

LE  
GE  
A  
T  
R  
I  
T  
E  
R  
I  
E  
R  
I  
E  
S

# 유네스코 유산, 평화를 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집필진 ]

**장정아**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연구책임)

**김민성** 원곡중학교 사회과 교사

**김수진** 선유고등학교 지리과 교사

**김원호** 원화중학교 영어과 교사, 교사팀 총괄

**안치영**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오성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오창현** 목포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성영** 곤지암중학교 역사과 교사

**이현경**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교수

**전원희** 부산국제중학교 역사과 교사

이 책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기획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발간사

‘유네스코’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계유산을 먼저 떠올립니다. 또한 세계유산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이나 교육 소재로서 세계유산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유산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물론, 등재유산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 교육자료는 흔치 않습니다.

유네스코가 추진해온 다양한 활동 가운데, 유네스코 등재유산은 남다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보존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세계유산(World Heritage)을 비롯해, 유네스코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목록에 등재한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과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 유네스코 등재유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등재유산은 때때로 갈등과 오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등재유산에 대한 자민족/자국가 중심의 해석과 실천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유네스코 등재유산 본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등재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혐오를 극복하고자 올해 유네스코 등재유산 교수학습자료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산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유산과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무지와 편견, 오해를 없애고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설립 목적에 따라 유산교육을 위한 책 『유네스코 유산, 평화를 품다』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998년 유네스코 본부에서 발간한 세계유산 교재(2002년 개정)를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2007)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발간한 바 있으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등재유산 교재를 직접 기획해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네스코, 즉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평화를 위해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입니다. 「유네스코 헌장」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국제사회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요긴한 도구로서 교육의 역할에 주목해 왔기에, 이번에 유산교육을 위해 발간하는 이 책은 그 의미가 깊습니다.

---

이 책은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연구해 온 학자, 유네스코학교 담당 교사 등 10명의 연구진이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해서 만들어낸 결과로서, 기존 유산교육 자료와는 몇 가지 점에서 차별성을 띠니다. 먼저 이 책은 각종 유네스코 등재유산에 대한 정보를 나열식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들 유산이 갖는 풍성한 의미들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유산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자 했고, 다양하고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참여형 수업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책에 기반해 국내 중/고등 유네스코학교에서 시범수업을 실시하는 한편, 2024년부터는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원연수용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역사와 예술작품을 소재로 집필에 매진해 온 미국의 소설가 스티브 베리는 “우리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은 우리의 문화, 교육, 미학, 영감 및 경제적 유산과의 중요한 연결고리다. 이들 유산 모두 말 그대로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것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교육의 주역인 교사, 나아가 교육의 수혜자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작을 지원해 준 대한민국 교육부, 그리고 약 8개월간 이 책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데 열정과 역량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9월 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경구

한경구

# 서문

여러분은 유산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왜 유산에 대해 배워야 하는 걸까요?**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만질 수 있는 역사'를 떠올리고, 유산 교육이라고 하면 문화유산 답사를 떠올리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유산을 통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고, 유산이 형성된 당시의 역사, 문화, 사회를 배우게 되지요. 또 찬란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유산을 만들어낸 공동체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유산은 단지 '과거'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 매체의 의미만 가지는 건 아닙니다.

**유네스코 등재유산 제도는 유산의 의미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확장시켜 생각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즉 '나의 유산이 '나의 정체성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유산으로서 인류 공동의 정체성 형성에 공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유산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대화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나의 유산이 소중하듯 '너'의 유산도 소중하기에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글로벌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유산에 대해 배우면서, 현재 어떤 유산에 대해 우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뀐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유산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사람과 세계, 과거와 현재를 대하는 태도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유네스코 등재유산 교육은 세계관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최초로 등재유산 교육을 위해 기획하여 출간하는 이 책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1) 설명이 아닌 흥미진진한 활동 사례부터 나와서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 (2) '고정관념 깨는 질문'이 사례마다 있어서 질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3) '더 읽을거리'가 사례마다 있어서, 심화학습 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책 본문은 활동지 사례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지는 여러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본문 순서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활동지를 선택해, 활동지가 담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유산, 유산과 평화, 유산과 문화다양성, 그리고 유산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을 함양하고 세계관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유네스코 기관과 유산에 대해 이해하고, 유네스코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평화', 유네스코에서 계속 확대되고 심화된 가치인 '문화다양성', 그리고 최근 가장 강력한 화두로 떠오른 '지속가능성'을 통해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그간 제공하던 교재는 20여년 전 유네스코 본부에서 발간한 교재를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유산에 대한 상황이나 관점이 많이 바뀌면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유산을 둘러싼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이 시점에서, 유네스코 등재유산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할 유산교육 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자기 나라 중심으로 유산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공동의 유산'이라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갈등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책은 북한의 유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이 책은 유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흥미롭게 접근하면서도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유산 전문가들과 유네스코학교 활동을 오래 해온 교사들이 참여해 함께 토론하며 집필했고, 다양한 전문가 및 교사들의 자문에 기반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유산 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의 세계관과 가치를 계속 바꾸어 나가며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시민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발간사 02

## 서문 04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에 나온 호주의 아름다운 바위 이야기

### 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13

수용소에 잡혀갈까봐 숨어있던 15살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왜 유네스코 유산이 되었을까요?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25

나는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 해녀 그리고 공동체문화 39

원자폭탄이 터진 곳에서 평화를 생각해보기

### 히로시마 원폭 돔 53

나는 어떤 김치를 담가서 누구와 나눠먹고 싶은가요?

### 김치와 문화 포용성 63

단오절을 아시나요?

### 여러 나라의 단오 문화 77

'씨름'이 남한과 북한 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요?

### 유산 공동등재 해보기 91

자연과 문화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만 관광할 수 있는 나라

### 팔라우 105

### 더 읽을거리 121



## 더 읽을거리

### 【 1부 유네스코와 유산 】

(1) 전쟁 속에 피어난 평화의 꽃, 유네스코.....	122
(2) 문화 이해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 모색.....	123
(3)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유사점과 차이점.....	124
(4) 유산에 대한 관점의 변화(1): 전문가와 유럽 중심에 대한 반성.....	125
(5) 유산에 대한 관점의 변화(2): 공동체 당사자의 중요성 인식.....	126
(6)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기준.....	127
(7)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과정과 절차.....	130
(8) 사례로 살펴보는 유네스코 등재유산(학생활동지: 나와 우리의 유산 선정해보기).....	132
(9) [심화활동지] 우리 지역 유산 등재해보기.....	138
(10) 유네스코 유산은 오직 한 국가의 유산일까요?.....	142
(11) 한국과 중국의 문화유산.....	143
(12) 국가와 국민과 민족: 복잡한 관계.....	144
(13) 일본과 중국에서 국가-국민-민족.....	145
(14) '나와 우리 나라'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다양한 가치의 존중으로.....	146
(15) 유산의 '기원'보다 공동체가 부여하는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147
(16) [심화활동지] 등재유산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놀이로 알아보기.....	149
<b>1부(유네스코와 유산) 심화 도서목록.....</b>	<b>156</b>

### 【 2부 유산과 평화 】

(17)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속적 여정: 평화 개념을 넓히다.....	158
(18) 전쟁 속 유산 파괴: 유네스코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59
(19) 바미안 계곡의 석불 파괴와 복원.....	160
(20) 난징대학살 문서를 둘러싼 논쟁.....	162
(21)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왜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164
(22) 유산 보호와 인권 존중의 평화로운 공존: 인권 문제로 등재가 취소된 유산도 있다고요?.....	165
(23) [학생활동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토론해보기.....	167
(24) 국제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화해와 치유의 유산보호 활동.....	171
(25) 북한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남북한 협력.....	172

(26) 남북한의 아리랑 비교 .....	174
<b>2부(유산과 평화) 심화 도서목록 .....</b>	<b>175</b>

### 【 3부 유산과 문화다양성 】

(27) 문화다양성: 평화적 공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 .....	178
(28)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서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선 문화다양성의 구현 .....	179
(29) 문화는 고정된 화석이 아니라 변화합니다 .....	180
(30) '국가'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인간과 공동체 중심으로 사고하기 .....	181
(31) 공동의 문화와 정체성: 유럽 사례 .....	182
<b>3부(유산과 문화다양성) 심화 도서목록 .....</b>	<b>183</b>

### 【 4부 유산과 지속가능성: 공존과 상생 】

(32) 지속가능발전: 인류 공동의 목표 .....	186
(33)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모든 분야는 연결되어 있다 .....	187
(34) 유산과 지속가능발전의 결합 사례: 함께 배우며 능력을 키우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	189
(35) [학생활동지] 내가 사는 지역 유산투어 스탬프 만들며 지속가능한 관광 생각해보기 .....	190
(36) 디지털 유산 관광의 지속가능성(학생활동지: 디지털 관광 가상체험해보기) .....	193
(37) 지구와 자연과 동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해외 사례 .....	195
(38) 환경 위기와 지속불가능성 위기 .....	196
(39) 토착적 전통지식과 지속가능성: 마양나 부족 .....	197
(40) 토착적 전통지식과 지속가능성 사례들 .....	198
(41)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	200
<b>4부(유산과 지속가능성) 심화 도서목록 .....</b>	<b>201</b>



고정관념 깨는 질문 (비판적 사고역량)	활동지 연결
<b>유네스코와 유산</b>	
질문(1) 유산은 한 나라, 한 민족만의 것인가요?	5(김치), 6(단오), 7(공동등재)
질문(2) 유네스코 유산은 다 등재기준이 똑같나요?	1(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질문(3) 아름답고 위대한 것만 유네스코 유산이 되나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도 유산이 되나요?	2(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4(히로시마 원폭 돔)
질문(4) 하나의 유산은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있나요? (문화유산/자연유산 등)	1(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b>유산과 평화</b>	
질문(5) 전쟁만 없으면 평화인가요? 평화란 무엇인가요?	2(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4(히로시마 원폭 돔)
질문(6) 유산에 대해 집단이나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네스코는 뭘 할 수 있나요?	1(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2(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4(히로시마 원폭 돔), 7(공동등재)
질문(7) 남한과 북한은 비슷한 유산이 있나요? 서로 도우며 유산보호를 하기도 하나요?	5(김치), 7(공동등재)
<b>유산과 문화다양성</b>	
질문(8) 문화는 한 나라에만 속하나요? 여러 나라와 민족이 문화를 공유할 수도 있나요?	5(김치), 6(단오), 7(공동등재)
질문(9) 문화다양성의 뜻이 뭔가요? 나라들이 서로 문화를 존중하면 되는 건가요?	1(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질문(10) '한국 문화', '그리스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걸까요?	5(김치)
<b>유산과 지속가능성: 공존과 상생</b>	
질문(11)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만 파괴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1(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3(해녀), 8(팔라우)
질문(12) 유산을 보호하려면 관광은 무조건 막아야 할까요?	1(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3(해녀), 8(팔라우)
질문(13) 유산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할까요? 아니면 유산은 우리 보호를 받는 대상일 뿐일까요?	3(해녀), 8(팔라우)
질문(14) 자연과 인간은 서로 떨어져 있나요? 자연과 문화는 서로 다른 것 아닌가요?	1(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3(해녀)

활동지	고정관념 깨는 질문 연결 (비판적 사고역량)
1.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에 나온 호주의 아름다운 바위 이야기 <b>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b>	질문(2) 유네스코 유산은 다 등재기준이 똑같나요? 질문(4) 하나의 유산은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있나요? 질문(6) 유산에 대해 집단이나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9) 문화다양성의 뜻이 뭔가요? 질문(11)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만 파괴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질문(12) 유산을 보호하려면 관광은 무조건 막아야 할까요? 질문(14) 자연과 인간은 서로 떨어져 있나요?
2. 수용소에 잡혀갈까봐 숨어있던 15살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왜 유네스코 유산이 되었을까요? <b>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b>	질문(3) 아름답고 위대한 것만 유네스코 유산이 되나요? 질문(5) 전쟁만 없으면 평화인가요? 질문(6) 유산에 대해 집단이나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나는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b>해녀 그리고 공동체문화</b>	질문(11)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만 파괴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질문(12) 유산을 보호하려면 관광은 무조건 막아야 할까요? 질문(13) 유산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할까요? 질문(14) 자연과 인간은 서로 떨어져 있나요?
4. 원자폭탄이 터진 곳에서 평화를 생각해보기 <b>히로시마 원폭 돔</b>	질문(3) 아름답고 위대한 것만 유네스코 유산이 되나요? 질문(5) 전쟁만 없으면 평화인가요? 질문(6) 유산에 대해 집단이나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나는 어떤 김치를 담가서 누구와 나눠먹고 싶은가요? <b>김치와 문화 포용성</b>	질문(1) 유산은 한 나라, 한 민족만의 것인가요? 질문(7) 남한과 북한은 비슷한 유산이 있나요? 질문(8) 문화는 한 나라에만 속하나요? 질문(10) '한국 문화', '그리스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걸까요?
6. 단오절을 아시나요? <b>여러 나라의 단오 문화</b>	질문(1) 유산은 한 나라, 한 민족만의 것인가요? 질문(8) 문화는 한 나라에만 속하나요?
7. '씨름'이 남한과 북한 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요? <b>유산 공동등재 해보기</b>	질문(1) 유산은 한 나라, 한 민족만의 것인가요? 질문(6) 유산에 대해 집단이나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7) 남한과 북한은 비슷한 유산이 있나요? 질문(8) 문화는 한 나라에만 속하나요?
8. 자연과 문화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만 관광할 수 있는 나라 <b>팔라우</b>	질문(11)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만 파괴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질문(12) 유산을 보호하려면 관광은 무조건 막아야 할까요? 질문(13) 유산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할까요?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에 나온  
호주의 아름다운 바위 이야기

## 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사진 제공: 김수진>



### 어떤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까요?

- 질문(2): 유네스코 유산은 다 등재기준이 똑같나요?
- 질문(4): 하나의 유산은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있나요? (문화유산/자연유산 등)
- 질문(6): 유산에 대해 집단이나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네스코는 뭘 할 수 있나요?
- 질문(9): 문화다양성의 뜻이 뭔가요? 나라들이 서로 문화를 존중하면 되는 건가요?
- 질문(11):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만 파괴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 질문(12): 유산을 보호하려면 관광은 무조건 막아야 할까요?
- 질문(14): 자연과 인간은 서로 떨어져 있나요?  
자연과 문화는 서로 다른 것 아닌가요?





## 무엇을 배우나요?



### 수업준비 확인

학습 주제	평화와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의 연결 느껴보기
수업관련 핵심 키워드	유산, 평화, 문화다양성, 지속가능한 관광, 원주민, 복합유산(자연+문화경관)
수업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하며 중간중간 간단한 퀴즈-활동하기</li> <li>■ 모둠별 토의 토론 학습      ■ 개인별 및 모둠별 이야기하기</li> </ul>
자료 및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자료    ■ 읽기 자료    ■ 디지털 도구</li> </ul>
수업분량	<p>1차시 + 활동에 따라 확장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 뒷부분에 추가로 '더 읽어보기' 있음</li> </ul>

※ 일러두기: 마지막 부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별 활동, 그리고 '더 읽을거리'와 연계한 추가 심화활동이 있으니 함께 보면서 수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 수업내용

주제	지도 내용
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산</li> <li>▶ 원주민과 정부의 갈등 역사</li> </ul>
원주민과 정부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정부가 먼저 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li> <li>▶ 원주민이 문화와 종교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반발</li> <li>▶ 유네스코에 원주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짐</li> <li>▶ 자연유산만이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들어간 '복합유산'으로 확장등재</li> </ul>
등반 금지: 지속가능한 관광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쫓겨났던 원주민이 이제 권리를 인정받음</li> <li>▶ 원주민은 정부와 국립공원을 공동관리함</li> <li>▶ 원주민은 울룰루가 신성한 곳이므로 관광객 등반 금지 요청</li> <li>▶ 원주민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2019년부터 등반 전면 금지</li> </ul>
더 생각해볼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안에서도 집단-공동체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보기</li> <li>▶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해결해나갔는지 생각해보기</li> <li>▶ 관광객 등반을 왜 금지해야 했는지 생각해보기</li> <li>▶ 현지인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각해보기</li> <li>▶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사례 찾아보거나 제안해 보기</li> </ul>
활동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룰루-카타추타와 비슷한 사례를 보고 토론해보기</li> </ul>





## 주제별 내용 이해하기

### 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알아보기 <sup>1)</sup>

- ▶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산
- ▶ 원주민과 정부의 갈등 역사



### 이야기 펼치기

#### ■ 세상에서 제일 큰 바위 '지구의 배꼽' 울룰루

-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중

**"원주민들은 여기를 신성한 곳,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한대"**

-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 주인공은 이 '세상의 중심' 바위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자는 몸이 아파서 점점 약해졌고, 남자는 여자친구를 울룰루에 데리고 가려고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왔는데, 공항에서 여자는 쓰러져버렸어요.



**자, 그럼 영화에서 나중에 남자친구는 이 바위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을까요? 그리고 만일 이 남자친구가 지금 울룰루에 간다면 바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마지막에 알아보기로 해요.

#### ■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산인 울룰루는 어떤 유산일까?



● 유네스코 유산에는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있어요. 무엇이 세계기록유산일까요? 예를 들어 훈민정음(해례본),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일명 팔만대장경)이 세계기록유산이에요. 무형문화유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춤, 노래, 연극, 공연 예술 등과 연관이 있어요. 김치를 담그는 풍습도 인류무형문화유산이에요. 세계유산에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런데 복합유산이란 건 못 들어봤죠? 복합유산은 말 그대로 복합, 그러니까 자연과 문화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울룰루예요.

자연과 문화가 함께 있는 유산이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울룰루라는 바위에 무슨 문화가 있다는 걸까요? 이제 함께 알아 볼까요?



### 활동내용

영상 찾아서 보기

울룰루는 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의 일부예요. 이 국립공원은 울룰루와 울룰루에서 42km 떨어진 곳의 36개 바위가 모여있는 카타추타(원주민 말로는 '많은 머리'라는 뜻)로 이루어져 있어요.

울룰루가 어떤 유산인지 추측해보기

## 원주민과 정부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 ▶ 호주 정부가 먼저 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 등재
- ▶ 원주민이 문화와 종교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며 반발
- ▶ 유네스코에 원주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짐
- ▶ 자연유산만이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들어간 '복합유산'으로 확장등재



### 활동내용



### 이야기 펼치기

#### ■ 원주민은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권리를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어요.

- 호주 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입장이 달랐어요. 이 지역은 원래 아난구(Anangu) 토착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아난구 원주민은 이 곳을 '울룰루-카타추타'라 불렀고, 자기 삶의 뿌리이고 문화의 중심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유럽인 탐험가에게 발견된 이후 유럽인들에 의해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울룰루' ⇨ '에이어스 록', '카타추타' ⇨ '올가 산')
- 관광산업이 시작되면서 원주민들은 계속 소외되었어요. 정부는 국립공원을 만들었는데 원주민 이름이 아니라 유럽인 이름을 따서 '에이어스 록-올가 산 국립공원'이라 지었어요.
- 아난구 원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여기 모여 살면서 권리를 계속 찾으려고 목소리를 냈어요. 마침내 법률이 통과되어서 원주민들이 땅 권리를 되찾았어요.

#### ■ 호주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연유산'으로 등재했어요.

- 그런데 이렇게 다시 찾은 원주민의 땅 권리를 호주 정부는 무시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세계유산 중에서 '자연'유산으로 등재했지요.
- 이걸 원주민 입장과 달랐어요. 단순한 자연만이 아니잖아요. 아난구 원주민이 오래 살아온 삶의 터전이고, 원주민 조상의 영혼이 담겨 있는 곳인데, 호주 정부는 이 '사람들'을 빼고 '자연' 유산으로만 신청한 거죠. 원주민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호주 정부는 왜 원주민의 주장을 무시했을까요?

내가 호주 정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난구 원주민	호주 정부
이 곳 이름에 대한 입장	울룰루-카타추타	에이어스 록-올가 산
유산에 대한 관점	원주민들이 사는 곳, 문화적·종교적 상징성을 갖는 삶의 터전임	호주의 주요 관광자원

■ 유네스코는 원주민 주장을 받아들여 생각을 바꿨을까요?

- 유네스코 결정에 대해 아난구 원주민들과 유산 전문가들이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 곳은 아난구 원주민의 조상이 수만 년 전부터 살면서 동굴 안의 그림 등 많은 흔적을 남겼고, 전통 풍습으로 관리하면서 인간과 환경의 가까운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주장했어요.
- 유네스코는 마침내, 이 장소가 단순한 자연만이 아니라 삶과 문화가 담긴 곳이라고 인정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만이 아닌 '복합유산'(자연+문화경관)이라고 확장해서 인정했어요. 이름도 원래 원주민이 부르던 '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재되었어요.

■ 평화와 문화다양성을 향한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

- 울룰루-카타추타 사례는 유네스코가 평화와 문화다양성을 향해 계속 노력하는 걸 잘 보여줘요. 정부만이 아니라 여러 당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결정을 바꾼 거죠.
- 문화다양성은 단순히 '국가'들이 서로의 문화 차이를 존중한다는 뜻만이 아니예요. 국가 안에도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유네스코는 이런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문화다양성의 중요한 핵심으로 강조한답니다.
- 이 사례는 유네스코가 원주민의 권리와 문화를 존중하며 세계유산을 통해 평화로운 보호 정책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어요.

복합유산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8)  
 복합유산 참고

자연과 문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기

내가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심사위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보기



## 등반 금지: 지속가능한 관광 알아보기

- ▶ 쫓겨났던 원주민이 이제 권리를 인정받음 ▶ 원주민은 정부와 국립공원을 공동관리함
- ▶ 원주민은 울룰루가 신성한 곳이므로 관광객 등반 금지 요청
- ▶ 원주민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2019년부터 등반 전면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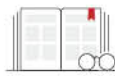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제목의 뜻은 세상의 중심인 울룰루 바위산에 올라가서 사랑을 외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주인공과 함께 지금 호주에 간다면, 울룰루에 올라가서 사랑을 외칠 수 있을까요?**



### 활동내용

울룰루에 간다면 뭘 하고 싶은지 이야기 해보기

등반금지에 대해 원주민 입장과 관광객 입장에서 찬반 토론 해보기



### 이야기 펼치기

#### ■ 울룰루에서 쫓겨난 원주민이 땅을 되찾고서 정부에 빌려주다

- 1930년대 자동차로 울룰루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자 호주 정부는 이 곳을 국립공원으로 만들고는 원주민을 다른 곳으로 강제이주시키고 못 오게 했어요.
- 그런데 원주민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리를 요구했어요. 결국 호주 의회가 원주민 권리를 인정했고, 이름도 바꿨어요. 대신 아난구 원주민은 호주 정부에 땅을 99년간 빌려주기로 했어요. 지금도 원주민은 공원 관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 ■ 울룰루 정상 등반이 금지라고요?

- 울룰루는 아난구 원주민에겐, 세계 창조 당시 조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예요. 조상의 영혼이 스며들어 있다고 느껴지는 곳에 관광객들이 흥미삼아 올라가며 밟는 것에 대해 불편했지요.
- 그래서 올라가지 말아달라고 여러 나라 말로 팻말도 세워놨지만 관광객은 여전히 등반을 계속했어요.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영원히 울룰루 등반이 공식 금지되었답니다.



<사진 제공: 김수진>

- 이제 관광을 가도 울룰루 정상에 올라서 사진도 찍을 수 없고 사랑도 외칠 수 없어서 서운한가요? 그 대신 안내소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곳의 문화적·종교적 의미를 설명해드립니다. 관광객들은 잠깐 흥미로 즐기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의 정신을 느끼고 올 수 있죠.
- 원주민이 권리를 가지고 유산과 공원 관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원주민이 원하는 대로 관광의 방법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런 걸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해요. 현지의 문화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현지인과 공존하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관광을 한다는 뜻이죠.
- 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은, 지속가능한 관광과 유산 보호를 결합시키고 공존과 상생을 향해 나아가는 좋은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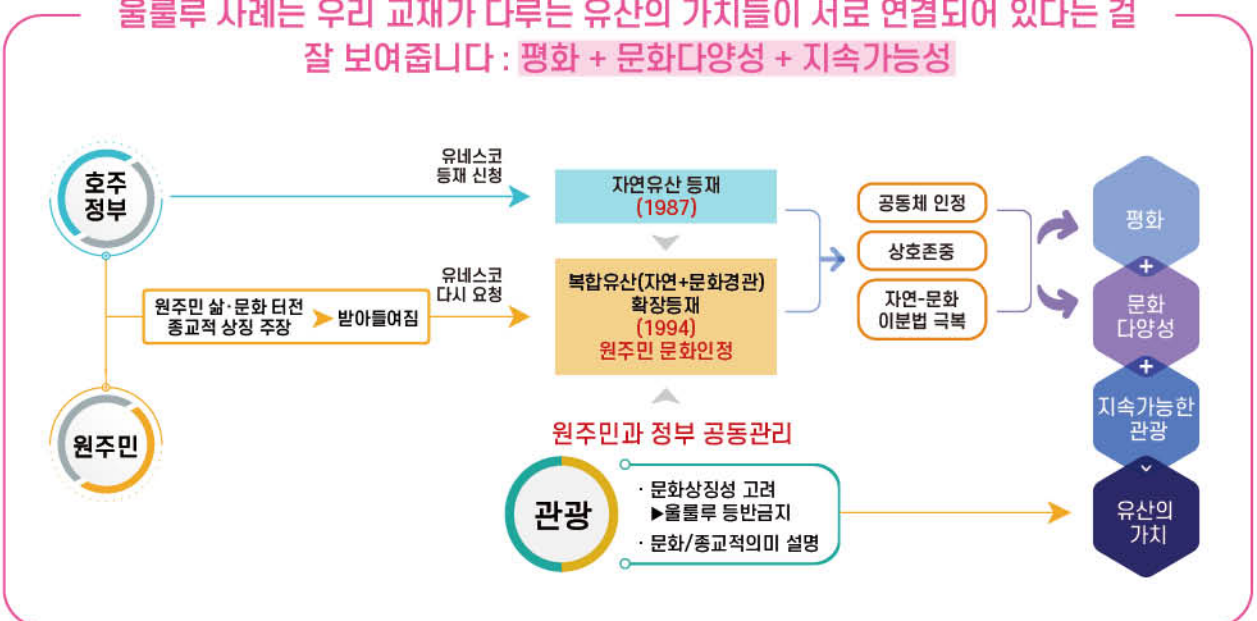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의 결말에서 남자 주인공은 울룰루에 갔어요. 그렇지만 여자친구는 아파서 쓰러져 결국 울룰루에 같이 못 갔어요. 그럼 여자친구는 울룰루를 보지 못했을까요? 여자 주인공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재를 울룰루에 뿌려줘. 그리고 너는 너만의 시간을 살아줘.”**

남자는 여자가 바랐던 대로 재를 울룰루에 뿌려줘요. 여자는 비록 살아서는 울룰루를 보지 못했지만, 원주민의 믿음처럼 여자의 영혼은 울룰루에서 살아 숨 쉬겠죠.

울룰루 사례는 우리 교재가 다루는 유산의 가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평화 + 문화다양성 + 지속가능성**



## 학생활동지 1

울룰루-카타추타의 사례와 비슷한 영화 감상하기

### 영화 <아바타>를 아시나요?

영화 <아바타>를 아시나요? 헐리우드 영화 <아바타>는 1편과 2편 모두 국내에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메시지가 위의 울룰루-카타추타 사례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영화를 감상하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봅시다.

(\* 영화가 긴 편이라 요약본을 볼 수도 있음)



영화 <아바타> 2)

#### 영화 즐거리

지구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도라 행성으로 향한 인류는 원주민 '나비족(Na'vi)'과 대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 설리(샘 워싱턴)가 '아바타' 프로그램을 통해 '나비족(Na'vi)'의 중심부에 투입되는데 임무 수행 중 나비족의 여전사 '네이티리(조 셸대나)'를 만난 '제이크'는 그녀와 함께 다채로운 모험을 경험하면서 '네이티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간다. 하지만 머지않아 전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규모 전투가 시작되면서 '제이크'는 최후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 함께 참고할 만한 영화:

<미션(1986)>, <늑대와 춤을(1991)>, <라스트 사무라이(2004)> 등

**아래의 질문에 모둠별로  
토론하고 답변하며 발표해 봅시다.**

1. (우리 안의 편견 깨기) 극 중에 나오는 나비족의 첫모습과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의 나비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느낌인가요?

---

2. (문화다양성) 인류의 입장과 나비족의 입장은 왜 다른가요?

---

3. (문화다양성) 극 중의 남자 주인공은 왜 인류를 버리고 나비족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나요?

---

4. (평화, 지속가능발전) 인류와 나비족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5. 영화 <아바타>의 이야기와 울룰루-카타추타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공통점:

• 차이점:

---



## 교과별 활동 및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계 1

(울룰루-카타추타)

교과	교과별 활동	교과별 교육과정 핵심역량 및 핵심 아이디어 연계	
국어	☞ 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해설사가 되어 해설 3분 영상 시나리오 만들기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정보활용 역량</li> <li>• 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li> <li>• 의사소통역량 · 문화 향유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매체 이용자는 매체 자료의 주체적인 수용과 생산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의미 구성 과정에 관여한다.
영어	☞ 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해설사가 되어 해설 3분 영어영상 시나리오 만들기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정보처리 역량 · 자기관리역량</li> <li>• 공동체 역량 · 영어 의사소통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의사소통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담화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사회 / 역사	☞ 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과 원주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2쪽짜리 미니북 만들어보기 ☞ 정상 등반을 못 하는 대신 다른 관광코스 짜보기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고력 · 비판적 사고력</li> <li>•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 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시대에 따라 지역, 교통·통신, 풍습 등 생활 모습이 달라진다.
음악	☞ 호주 원주민 음악과 공연 영상 찾아보며 특징 이야기해보기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성역량 · 창의성 역량</li> <li>• 자기주도성 역량 · 공동체역량 · 소통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인간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미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공감한다.
지리	☞ 울룰루-카타추타의 지리적 위치 찾아보며 호주 여행계획 짜보고 원주민문화 알아보기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고력 · 비판적 사고력</li> <li>•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 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지표상에 분포하는 모든 사건과 현상은 절대적, 상대적 위치와 다양한 규모의 영역을 차지한다.
과학 / 융합	☞ 울룰루-카타추타 공원의 자연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왜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유산'이란 개념이 나왔는지 이야기해보기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li> <li>• 과학적 탐구와 문제해결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육부,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 이 사례로 어떤 추가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더 읽을거리와 연결)

활동 1

영화에 유네스코 유산이 나온 사례 또 있는지 알아보기

활동 2

우리가 알고 있는 관광지 중에서 문화나 정신 보호를 위해 등반이나 입장을 금지할 곳이 있을지 생각해보기

활동 3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나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과 인디언 원주민의 사례와 비슷하거나 다른 점 알아보기

활동 4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복합유산에 또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3)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유사점과 차이점

☞ 더 읽을거리 (8) 사례로 살펴보는 유네스코 등재유산 (학생활동지: 나와 우리의 유산 선정해보기)

활동 5

내 지역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한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등재신청하는 역할을 맡고 다른 한쪽은 심사하는 역할 맡기

☞ 더 읽을거리 (6)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기준

☞ 더 읽을거리 (7)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과정과 절차

☞ 더 읽을거리 (9) [심화활동지] 우리 지역 유산 등재해보기



활동 6

세계유산 등재기준 알아보고, 놀이로 세계유산 이해해 보기

☞ 더 읽을거리 (6)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기준

☞ 더 읽을거리 (7)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과정과 절차

☞ 더 읽을거리 (16) [심화활동지] 등재유산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놀이로 알아보기

활동 7

관광은 유산 보호와 꼭 대립되는 것일까? 지속가능한 관광 개념 알아보기

☞ 학습활동지 8번 자연과 문화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만 관광할 수 있는 나라 팔라우

☞ 더 읽을거리 (35) [학생활동지] 내가 사는 지역 유산투어 스탬프 만들며 지속가능한 관광 생각해보기

☞ 더 읽을거리 (36) 디지털 유산 관광의 지속가능성 (학생활동지: 디지털 관광 가상체험해보기)

활동 8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이해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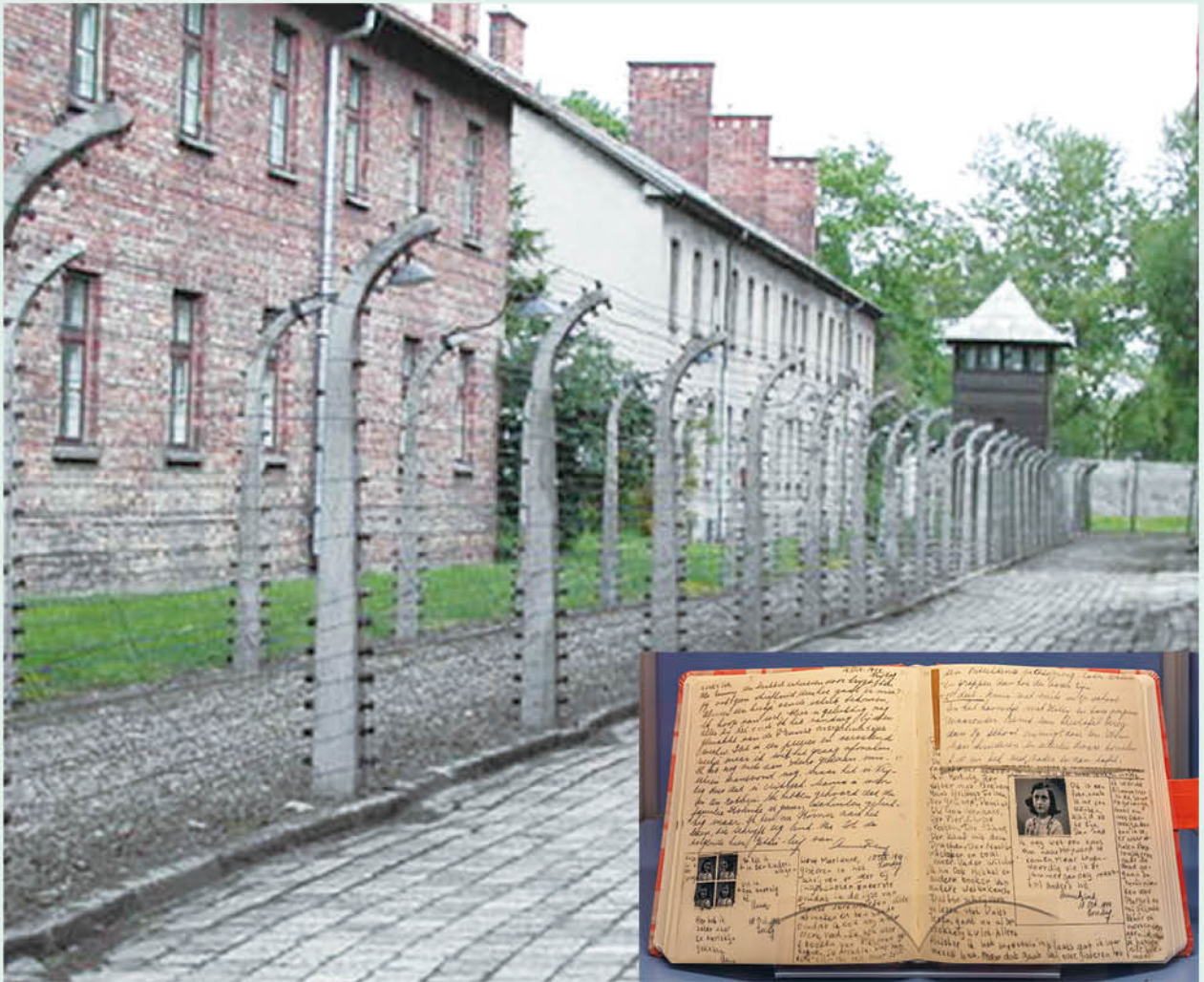
☞ 더 읽을거리 (32) 지속가능발전: 인류 공동의 목표

☞ 더 읽을거리 (33)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모든 분야는 연결되어 있다



수용소에 잡혀갈까봐 숨어있던 15살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왜 유네스코 유산이 되었을까요?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안네 프랑크의 일기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CC-BY-SA 4.0, ©Diario Deslo>

## 어떤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까요?

- 질문(3): 아름답고 위대한 것만 유네스코 유산이 되나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도 유산이 되나요?
- 질문(5): 전쟁만 없으면 평화인가요? 평화란 무엇인가요?
- 질문(6): 유산에 대해 집단이나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네스코는 뭘 할 수 있나요?





## 무엇을 배우나요?



### 수업준비 확인

학습 주제	안네 프랑크의 일기와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사례를 통해 '불편문화유산' 개념 이해하기
수업관련 핵심 키워드	평화, 불편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다크 투어리즘
수업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하며 중간중간 간단한 퀴즈-활동하기</li> <li>■ 모둠별 토의 토론 학습    ■ 개인별 및 모둠별 이야기하기</li> </ul>
자료 및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자료    ■ 읽기 자료(관련도서 등)    ■ 디지털 도구</li> </ul>
수업분량	<p>1차시 + 활동에 따라 확장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 뒷부분에 추가로 '더 읽어보기' 있음</li> </ul>

※ **일러두기:** 마지막 부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별 활동, 그리고 '더 읽을거리'와 연계한 추가 심화활동이 있으니 함께 보면서 수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 수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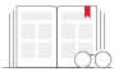
주제	지도 내용
안네 프랑크의 일기 읽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치 독일을 피해 숨어 지내던 한 유대인 소녀의 이야기</li> <li>▶ 한 소녀의 이야기이지만, 세계대전 동안 고통받은 수백 만 유대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개인의 기록이 역사 그 자체가 될 수 있어요.)</li> <li>▶ 안네 프랑크가 끌려간 곳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이에요.</li> </ul>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인종차별과 학살들</li> <li>▶ 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고문과 살인을 당했을까?</li> <li>▶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유산에 담긴 교훈적 가치들</li> <li>▶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성'</li> <li>▶ 현 시대에 존재하는 '총성 없는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li> </ul>
불편한 기억도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편문화유산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li> <li>▶ 부정적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 "네버 어게인(Never again)"의 가치</li> </ul>
불편한 기억을 따라가는 다크 투어리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무엇인가요?</li> <li>▶ 안네의 은신처에서 박물관으로: 안네 프랑크의 집(Anne Frank House)</li> <li>▶ 박물관이 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li> <li>▶ 유대인 학살에 대한 기억을 따라가는 여행루트 짜보기</li> </ul>
가상현실기술은 어떻게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치 전범 재판에 활용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VR 재현 기술</li> <li>▶ 홀로코스트 희생자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의 &lt;새로운 차원의 증언(Dimensions in Testimony)&gt; 프로젝트</li> </ul>
활동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네 프랑크의 일기 이어쓰기와 공감하기</li> </ul>



## 주제별 내용 이해하기

### 안네 프랑크의 일기 읽어보기

- ▶ 나치 독일을 피해 숨어 지내던 한 유대인 소녀의 이야기
- ▶ 한 소녀의 이야기이지만, 세계대전 동안 고통받은 수백만 유대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개인의 기록이 역사 그 자체가 될 수 있어요.)
- ▶ 안네 프랑크가 2년간 숨어 지내다 끌려간 곳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이에요.



### 이야기 펼치기

#### ■ 안네는 왜 2년 동안 숨어 살았을까요?

- '키티'라 이름 붙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 중

**"오랫동안 기다리던 친구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서 바로 이 일기장을 내 친구로 삼아 '키티'라고 부르겠어.(중략) 나는 1929년 6월 12일에 태어났어.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1933년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아빠는 트라피스 상회의 지배인이 되셨지."** 3)

- 1942년 6월 20일 일기 中

- 1929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안네는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1933년 인종차별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한 나치 독일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독일을 떠나 네덜란드로 이사하게 됩니다.
- 그런데 1942년 안네의 집에는 노동수용소로 가게 된다는 내용의 유대인 이민국에서 보낸 소환장이 도착해요. 그래서 안네와 가족들은 집을 떠나 은신처로 피난을 가게 되고, 2년 넘게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숨어 살았어요.
-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이렇게 숨어 살면서 1942년 6월 14일부터 1944년 8월 1일 까지의 일상생활을 기록한 이야기예요.



### 활동내용

관련 영상 찾아서 보기

안네 프랑크의 일기 읽어보기



■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한 개인의 기록인데 어떻게 ‘세계기록유산’이 될 수 있었을까요?

- ‘키티’라 이름 붙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 중

**“키티, 숨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끔 해괴한 일이 벌어지게 마련이야.”<sup>4)</sup>**

- 1942년 9월 29일 일기 중

**“키티, 오늘은 무섭고 우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열댓 명씩 잡혀가고 있단다. 나치의 게슈타포는 조금의 인정도 없이 유대인들을 가축용 트럭에 마구 실어서 트럭터에 있는 베스터보르크 유대인 수용소로 보내고 있어.”<sup>5)</sup>**

- 1942년 10월 9일 일기 중

- 한 소녀가 가상의 친구인 일기장 ‘키티’에게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네 프랑크의 일기 속 이야기는 동시대를 살았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겪었던 일이기도 해요. 따라서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전쟁 중 일기를 잃어버렸거나, 일기를 쓰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죠.<sup>6)</sup> 즉 개인의 기록이 역사 그 자체를 대변하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또 전쟁 중에도 기록이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집니다.
-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1944년 8월 1일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요. 그리고 안네와 가족들은 8월 4일 은신처가 발각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었어요. 과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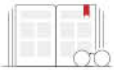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6)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안네 프랑크의 일기’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에 대해 질문 던지기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 ▶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인종차별과 학살들
- ▶ 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고문과 살인을 당했을까?
- ▶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유산에 담긴 교훈적 가치들
- ▶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성'
- ▶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총성 없는 전쟁'들을 생각해 봅시다.



### 이야기 펼치기

#### ■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인종차별과 학살들

-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2년부터 1944년 사이 폴란드에 위치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과 고문을 당했어요. 안네의 프랑크와 그녀의 가족들 역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었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그녀와 가족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기 3일 전에 쓴 글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이 안네가 되어서 그곳에서 겪었을 일들을 일기로 써볼까요?

#### ■ 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고문과 살인을 당했을까요?

-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경제대공황이 맞물리며 경제 위기를 맞이했어요. 독일인들은 불안감이 높아졌고, 그 사이 민족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일명 나치당이 등장하게 되죠.
- 나치당은 독일인들 사이에 만연한 혼란을 틈타, 독일인들이 힘든 이유엔 금융업으로 이득을 본 유대인들의 탓이 있다며 그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갔어요. 나치당은 게르만 민족우월주의를 강조하며, 유대인을 '박멸해야 하는 존재들'로 묘사했답니다.
- 나치당은 독일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집권에 성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고문과 학살을 당했죠. 이렇게 나치 독일이 주도한 유대인에 대한 폭력과 학살을 홀로코스트(The Holocaust)라고 한답니다. 여러분이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고문과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면 어떠할지 상상이 되나요?



### 활동내용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학살에 대한 영화, 영상들을 직접 찾아보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고 상상하며 일기 써보기(국어, 영어)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제1수용소와 아우슈비츠 제2수용소(비르케나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내부 <사진 출처: 유네스코 홈페이지, ©UNESCO(Francesco Bandarin)>

‘평화’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기

인간의 존엄성을 해  
치는 총성 없는 전쟁  
의 사례를 인터넷 뉴  
스를 통해 찾아보기

### ■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유산에 담긴 교훈적 가치들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독일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1940-1945)(이하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는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수용소가 세계유산이라니, 건물이 아름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수용소에 담긴 아픈 기억들로 인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사례예요.
- 세계유산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거나 위대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역사더라도 미래를 위한 교훈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지정되기도 한답니다.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해 보아요.

### ■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인간의 존엄성'

- 평화란 무엇일까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할까요? 무력 충돌이 없더라도 서로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학살을 자행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평화'로운 상태라 할 수 없겠죠.
- 유네스코는 인종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그럴 때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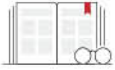
### ■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총성 없는 전쟁'들을 생각해 보아요.

-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는 국가 간이나 민족 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력 충돌 외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총성 없는 전쟁'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총성 없는 전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 불편한 기억도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 ▶ 불편문화유산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
- ▶ 부정적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 “네버 어게인(Never Again)”의 가치



### 이야기 펼치기

#### ■ 불편문화유산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

- 폴란드는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를 1978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신청했지만 실패했어요. 전쟁 가해국이었던 독일의 반대 때문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아니랍니다. 사실 독일은 과거 나치의 잘못을 확실히 반성했고,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등재를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 오히려 등재 실패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어난 논쟁 때문이었어요. 부정적인 기억을 가진 장소가 세계유산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부정적인 역사적 기억을 없애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답니다.
-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경복궁을 가로막고 있던 조선총독부 건물은 일제강점기의 잔재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여져 1995년 8월 15일 이 건물을 폭파했고 전국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답니다. 한편으로는 조선총독부 건물이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용된 근대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일제강점기 역시 우리 역사니까 아픈 역사도 끌어안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 보존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 ■ 부정적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 “네버 어게인(Never Again)”의 가치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가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류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적인 교육적 증거물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에 남겨진 시설들, 예를 들어 요새화된 벽, 막사, 교수대, 가스실, 소각장 등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가한 잔인한 학살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체계적 살인을 저지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로 남아, 전 인류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지요.



### 활동내용

불편문화유산을 보존하자는 입장과 불편한 과거는 없애자는 입장으로 나뉘어 각자의 생각을 토론해보기

조선총독부 건물이 여전히 경복궁 앞에 있다고 가정하고, 보존해야 할지 없애야 할지 토론해보기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왜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토론해보기

☞ 더 읽을거리 (21)



## 불편한 기억을 따라가는 다크 투어리즘

- ▶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무엇인가요?
- ▶ 안네의 은신처에서 박물관으로: 안네 프랑크의 집(Anne Frank House)
- ▶ 박물관이 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 유대인 학살에 대한 기억을 따라가는 여행루트 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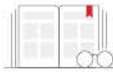
### 활동내용

다크 투어리즘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 사례를 찾아보기

안네 프랑크의 집 온라인 투어를 통해 은신처 돌아보기. 영어로 된 단어(집의 구조) 익혀보기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온라인 가상투어를 해보고, 그 풍경에 대한 감상을 글로 표현해보기

유대인 학살에 대한 기억을 따라가는 여행 일정 짜보기



### 이야기 펼치기

#### ■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무엇인가요?

- 전쟁이나 학살 등 비극적인 역사 현장, 혹은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다니며 교훈을 얻는 여행이에요.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또는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이라고도 해요.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는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의 목적지예요.

#### ■ 안네의 은신처에서 박물관으로: 안네 프랑크의 집(Anne Frank House)

- 안네와 가족들이 2년 1개월간 은신했던 곳은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어 박물관이 되었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 집은 안네의 일기가 세상에 알려지도록 힘쓴 아버지 오토 프랑크의 헌신 덕분에 박물관으로 탈바꿈되어 1960년 처음 대중에게 문을 열었어요.

▣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안네 가족의 은신처였던 이 곳을 온라인으로 여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 2년 동안 여기 살았을 안네가 되었다고 상상하며 글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여행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https://www.annefrank.org/en/anne-frank/secret-annex/>



#### ■ 박물관이 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는 폴란드 남부 오슈비엥침과 근교에 있어요. 여기도 박물관이 세워졌고, 나치의 행위를 기억하며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교훈을 느끼려고 많은 여행자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역시 온라인으로 여행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panorama.auschwitz.org/>



#### ■ 유대인 학살에 대한 기억을 따라가는 여행지들

- 유대인 학살은 나치 독일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유럽 곳곳에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와 안네 프랑크의 집 외에도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The Holocaust Memorial), 유대인 절멸을 위한 회의가 열렸던 반제 호숫가의 나치 친위대 별장,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몰아넣은 바르샤바 게토 등이 있어요. 또 어떤 여행지가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 가상현실은 어떻게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 나치 전범 재판에 활용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VR 재현 기술
- ▶ 홀로코스트 희생자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의 <새로운 차원의 증언(Dimensions in Testimony)> 프로젝트



### 이야기 펼치기

앞에서 우리는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가상현실을 통해 안네 프랑크의 집과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를 여행해보았죠. 오늘날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 덕분입니다. 이런 기술발전은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도 활용되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 ■ 나치 전범 재판에 활용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VR 재현 기술

-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은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를 3차원으로 재현한 VR 기술을 전범 재판에 사용하고 있어요. 나치 친위대원 라인홀트 한닝은, 자신은 감시탑에 근무해서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장면을 못 봤다고 했지만 이 기술 덕분에 거짓말이 들렸어요. 피해자들의 증언과 여러 기록을 통해 VR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보니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명난 거예요. 한닝은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어요.<sup>7)</sup>



#### ■ 홀로코스트 희생자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의 <새로운 차원의 증언(Dimensions in Testimony)> 프로젝트

- 기술은 한 차원 더 발전해, 인공지능(AI)으로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재현해서 우리와 직접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얼굴과 목소리, 기억을 재현했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지난 아픈 역사에 대한 질문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그들은 대답하며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기술 덕분에, 시간이 흘러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 곁에 남아 함께 이야기하며 아픈 역사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 활동내용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질문 던져보기

세계유산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기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찾아보기

## ‘안네 프랑크의 일기’ 이어쓰기와 공감하기

◇ 이어쓰기: 주인공 안네가 처한 상황을 상상하며 이어쓰기를 해봅니다.

1942년 9월 27일 일기 中

사랑하는 키티에게

오늘 엄마와 이른바 ‘대화’라는 걸 했어. 그런데 나는 여느 때처럼 제대로 이야기도 꺼내지 못한 채 곧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 나도 이런 내가 정말 싫어. 하지만 이 우는 버릇은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단 말이지. 아빠는 언제나 내게 다정하게 대해 주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훨씬 잘 이해해 주셔.

그렇지만 엄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 엄마와 나는 이방인과 같은 관계야. 엄마는 아주 사소한 문제조차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중략)

친엄마보다도 친구들이 더 잘 이해해준다……. 이게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니? <sup>8)</sup>

---



---



---



---

1942년 9월 29일 일기 中

사랑하는 키티에게

대충 상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목욕탕이 없으므로 대야에 물을 받아 목욕을 해. 더운물이 나오는 곳은 아래층 전체 사무실뿐이므로, 우리 일곱 명은 교대로 이 기막힌 사치를 즐기게 되지. (중략)

지난주 수요일에는 아래층 배관 공사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곤란했었어. 하루종일 물을 흘려보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도 갈 수 없었기 때문이야. 이 난관을 어떻게 넘겼을지 궁금하지 않니? <sup>9)</sup>

---



---



---



---

## 학생활동지 2

◇ 공감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안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와 공감의 편지를 써봅시다.

### 1943년 12월 24일 일기 中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키티에게

분명히 전에도 썼을 텐데, 이곳 사람들은 분위기에 좌우되기가 아주 쉬워. 그런데 내 경우에는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 괴테의 말 중에 “지상 천국인가, 절망의 구렁텅이인가”라는 게 있는데, 정말 이곳에 딱 어울리는 말이야.

다른 유대인 아이들과 비교해 이곳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운인가를 생각하면 이곳이 ‘지상 천국’이라고 외치고 싶다가도, (중략) 그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나도 그런 즐거움을 맛보고 싶고, 배가 아플 만큼 웃어 보고 싶은 거야. 특히 크리스마스나 신년 휴가가 계속되는 요즘 같은 때 우리만이 소외되어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더 강렬해지지.

사실 이런 얘기는 쓰지 말아야겠지? 감사하는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생각될 테니까. 하지만 나는 이런 것을 내 가슴속에만 묻어 둘수는 없어. 그러므로 이 일기의 맨 처음에 썼던 말을 다시 한번 쓰겠어. **“종이는 인간보다 더 잘 참고 견딘다”**라고 말이지.

밖에서 들어온 누군가의 옷에서 바람 냄새가 나고 매서운 바람에 시달린 그의 뺨이 홍조를 띠고 있는 걸 보면, 나는 나도 모르게 ‘도대체 언제쯤이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사치가 우리에게도 허용될까?’라는 생각을 해. 나는 그럴 때면 그런 생각을 잊으려고 담요에 얼굴을 파묻는 대신 오히려 머리를 높이 쳐들고 씩씩하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돼. (중략) 가끔씩 나는 자문자답을 해. 나의 이런 마음을 누군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아도 너그럽게 봐줄까? 유대인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나는 그저 평범한 한 소녀로서 떠들고 까불고 웃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줄까? <sup>10)</sup>

1. 위의 밑줄 친 “종이는 인간보다 더 잘 참고 견딘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2. 힘든 상황에 처한 안네에게 지금의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작성해봅시다.

---

---

---

---

---

---



## 교과별 활동 및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계 2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교과	교과별 활동	교과별 교육과정 핵심역량 및 핵심 아이디어 연계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안네 프랑크의 일기&gt; 읽어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정보활용 역량</li> <li>• 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li> <li>• 의사소통역량</li> <li>• 문화 향유 역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된 안네를 상상하며, &lt;안네 프랑크의 일기&gt; 이어쓰기</li> </ul>	핵심 아이디어	필자는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쓴다.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안네 프랑크의 일기&gt; 영어로 읽어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정보처리 역량</li> <li>• 자기관리역량</li> <li>• 공동체 역량</li> <li>• 영어 의사소통 역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된 안네를 상상하며, &lt;안네 프랑크의 일기&gt; 영어로 이어쓰기</li> </ul>	핵심 아이디어	적절한 사고 과정 및 전략을 활용해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네 프랑크의 집' 가상 현실 투어를 통해 집의 구조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 학습하기</li> </ul>		
사회 /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메이지 시대 산업 유산의 조선인 강제 노역 등 불편문화유산을 통해 역사 이해하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고력</li> <li>• 비판적 사고력</li> <li>•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li>• 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는 역사의 증거로 활용된다.
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 안네 프랑크의 집 등 유대인 학살의 기억을 따라가는 다크 투어리즘 지도 만들어 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고력</li> <li>• 비판적 사고력,</li> <li>•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li>• 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자료와 도구를 통한 지리 정보 수집은 장소와 지역의 여러 현상과 사건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추론하는 데 필수적이다.
과학 / 정보 / 기술 /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역사의 재구성 사례를 찾아보기</li> <li>☞ 앞으로의 기술들이 유산에 담긴 역사적 사실들을 재현하고 재구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li> <li>• 과학적 탐구와 문제해결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과학기술의 발달은 미래 사회의 모습과 직업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은 이러한 미래 사회의 모습과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며 자신의 삶을 준비한다.

※교육부,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 이 사례로 어떤 추가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더 읽을거리와 연결)

활동 1

제2차 세계대전을 묘사한 영화들 찾아보기

활동 2

세계기록유산의 등재 기준 알아보기

더 읽을거리 (6)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기준

활동 3

불편문화유산 더 찾아보기

더 읽을거리 (22) 유산 보호와 인권 존중의 평화로운 공존: 인권 문제로 등재가 취소된 유산도 있다고요?

더 읽을거리 (23) [학생활동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토론해보기

활동 4

가상현실 기술이 세계유산이나 역사적 구성에 활용된 사례들을 더 찾아보기

더 읽을거리 (36) 디지털 유산 관광의 지속가능성(학생활동지: 디지털 관광 가상체험해보기)







나는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해녀 그리고 공동체문화**



어떤 고정관념을 깨 수 있을까요?

- 질문(11):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만 파괴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 질문(12): 유산을 보호하려면 관광은 무조건 막아야 할까요?
- 질문(13): 유산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할까요?  
아니면 유산은 우리 보호를 받는 대상일 뿐일까요?
- 질문(14): 자연과 인간은 서로 떨어져 있나요? 자연과 문화는 서로 다른 것 아닌가요?





## 무엇을 배우나요?



### 수업준비 확인

학습 주제	제주 해녀 사례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의 연결 느껴보기
수업관련 핵심 키워드	문화다양성, 지속가능한 가치, 지속가능한 관광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체, 해녀
수업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하며 중간중간 간단한 퀴즈-활동하기</li> <li>■ 모둠별 토의 토론 학습    ■ 개인별 및 모둠별 이야기하기</li> </ul>
자료 및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자료    ■ 읽기 자료    ■ 디지털 도구</li> </ul>
수업분량	1차시 + 활동에 따라 확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 뒷부분에 추가로 '더 읽어보기' 있음</li> </ul>

※ **일러두기:** 마지막 부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별 활동, 그리고 '더 읽을거리'와 연계한 추가 심화활동이 있으니 함께 보면서 수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 수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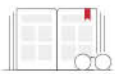
주제	지도 내용
나는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제주 해녀 되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숨을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 활동해 보기</li> <li>▶ 드라마 &lt;우리들의 블루스&gt; 속 제주 해녀 할머니들로부터 이야기 시작해보기</li> <li>▶ 제주 해녀(혹은 해남)처럼 잠수해서 바닷속 조개류나 해조류를 채취하는 상상해 보기</li> <li>▶ 숨비소리 내보기</li> </ul>
잠수만 잘하면 제주 해녀가 될 수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해녀(해남)가 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친화적인 잠수 기술</li> <li>▶ 제주 해녀(해남)가 되려면 공동체 정신을 배워야 한대요</li> <li>▶ 바위와 해조류와 조개류에 대해 많은 걸 알아야 한대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li> </ul>
유네스코는 왜 제주해녀문화를 인류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문화 속 지혜와 지속가능한 가치</li> </ul>
더 생각해볼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일본의 해녀문화</li> </ul>
활동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녀박물관 디지털체험 해보기</li> </ul>



## 주제별 내용 이해하기

### 나는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제주 해녀 되어 보기

- ▶ 숨을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 활동해 보기
- ▶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 제주 해녀 할머니들로부터 이야기 시작해보기



### 이야기 펼치기

- 우리 한번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해볼까요? 제일 오래 참은 사람은 얼마나 참았나요?
- 제주 해녀들은 산소마스크를 안 쓰고도 물속 10m까지도 잠수해서 일할 수 있대요. 그럼 해녀들은 한 번에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물 속에 들어가서 뭘 떠오르는 걸까요? 우리 제주 해녀에 대해 알아보까요?



### 활동내용

관련 영상 찾아서  
보기

#### ■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 제주 할머니들의 생업 '해녀'

**"해녀들은 전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혼자 움직여 돈 많이 벌면 좋으냐"**

여주인공 중 한 명인 영옥은 육지에서 제주로 들어와 해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영옥은 가장 어른인 춘희 삼촌을 따르며 제주해녀공동체에서 적응하며 살아가요. (제주도에서 '삼촌'은 남녀나 친족 구분 없이 나이가 많은 어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삼, 전복을 더 많이 채취하고 싶은 욕심이 들어 자꾸 규칙을 어기다가 결국 페그물에 발이 걸리는 사고가 나고 말아요. 또 다른 해녀인 혜자의 도움을 받아 구사일생으로 나오지만, 해녀공동체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말아요.

#### **"처음부터 육지 것들은 받는 게 아니었다. 어서 내쫓자"**

영옥은 왜 해녀공동체에서 쫓겨났을까요? 이 질문은 마지막에 알아보기로 해요. 먼저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알아보아요.



## 나는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제주 해녀 되어 보기

- ▶ 제주 해녀(혹은 해남)처럼 잠수해서 바닷속 조개류나 해조류를 채취하는 상상해 보기
- ▶ 숨비소리 내보기



### 활동내용

각자 가본 제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물속에서 숨을 참아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

숨비소리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기



### 이야기 펼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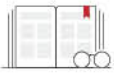
#### ■ 숨비소리를 아시나요?

- 여러분은 제주도에 가보았나요?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남서쪽에 있는 섬으로,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예요. 한국의 섬 중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섬이죠. 화산 활동으로 된 화산섬이라서, 한가운데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1,947m)이 있어요.
- 제주도는 토양이 비옥하지 않은 화산섬이라서 농사에 적합한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도 남성 중에는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주도에 남은 여성들은 바닷속에 잠수해 해조류와 조개류를 채취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물질’이라고 불러요.
- 물질 능력에 따라서 해녀를 다르게 불러요. 제일 실력좋은 해녀를 상군, 그 다음 순서대로 중군, 하군이라고 해요. 상군 해녀들이 나머지 해녀들을 지도하며 물질한답니다.
- 가장 잘하는 상군 해녀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최대 수심 10m까지 잠수해서 일을 할 수 있대요. 정말 놀랍죠? 한번 잠수할 때마다 1분간 숨을 참을 수 있고, 하루에 최대 7시간까지, 1년에 90일 정도 물질을 한다고 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숨비소리는 해녀들이 물속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내는 독특한 휘파람 소리예요. 여러분은 숨을 참았다가 내쉬며 휘파람 소리를 낼 수 있나요?



## 잠수만 잘하면 제주 해녀가 될 수 있나요?

- ▶ 제주 해녀(해남)가 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친화적인 잠수 기술
- ▶ 제주 해녀(해남)가 되려면 공동체 문화를 배워야 한대요
- ▶ 바위와 해조류와 조개류에 대해 많은 걸 알아야 한대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



### 이야기 펼치기

#### ■ 누구나 해녀(해남)가 될 수 있을까요?

- 옛날엔 제주도 해안 마을에서 소녀들이 얇은 바다에서 물질을 자연스럽게 배웠대요. 지금은 제주 해녀학교에서 물질을 배울 수 있어요.
- 해녀(해남)가 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남자도 지원할 수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해녀가 되기 위해 2주간 이론을 배우고 발차기와 잠수 실습을 해요. 학생 중에 4분 10초 동안이나 숨을 참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 ■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친화적인 잠수 기술 익히기

- 해녀는 산소호흡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잠수복만 입고 잠수해요. 처음 물질을 배운 사람들은 해산물을 더 많이 채취해 돈을 더 벌고 싶어하지만, 산소호흡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채취할 수 없답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영육이처럼 혼자서 너무 많이 채취하려고 욕심부리면 사고가 나기 쉬워요.
- 나 혼자서만 오늘 하루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오래오래 제주에서 살 수 있기 위해 해녀들은 욕심내지 않고 채취하는 법을 배운답니다. 유네스코는 제주해녀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이렇게 환경친화적인 방식이 현대 우리에게 지속가능성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높이 평가했어요.
- TV 프로그램에서 제주 해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수영선수, 수중발레 한국대표 선수가 물속에서 숨쉬지 않고 오래 버티기 시합을 했대요. 당연히 제주 해녀가 제일 늦게까지 버텨줄 것 같죠? 그렇지만 제주 해녀는 1분만에 제일 빨리 물에서 나왔대요. 왜냐하면 제주 해녀에게 잠수를 오래 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잠수를 오래 하며 많이 채취하려는 욕심을 줄이고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협동하는 공동체 정신이기 때문이에요.<sup>11)</sup>

## 해녀는 옛날부터 직업이었을까요?

해녀가 처음부터 전문적인 직업이었던 건 아니에요. 제주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예전부터 바닷속에 들어가 물질을 했는데, 예전엔 채취한 것 중 일부를 국가에 바칠 의무가 있었어요. 17세기까지는 국가에 바쳐야 하는 전복은 남성이 했고, 여성은 얇은 바다에서 미역을 따어요. 18세기부터 여성이 전복을 캐는 일까지 하게 되었고, 물질을 여성이 거의 전담하게 됐지요. 19세기 말부터 일본과 교역을 하게 되면서 제주 해녀들이 한반도 동·남해안뿐 아니라 일본, 러시아 연해주, 중국 산둥성까지 가서 해조류나 어패류를 채취해 일본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는 것처럼 해녀가 전문 직업이 되었답니다.<sup>12)</sup>



### 활동내용

제주 해녀학교 입학 조건 찾아보기

욕심부리다가 일을 망쳐버린 경험을 이야기해 보기

누군가 함께 할 때 힘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공동체를 위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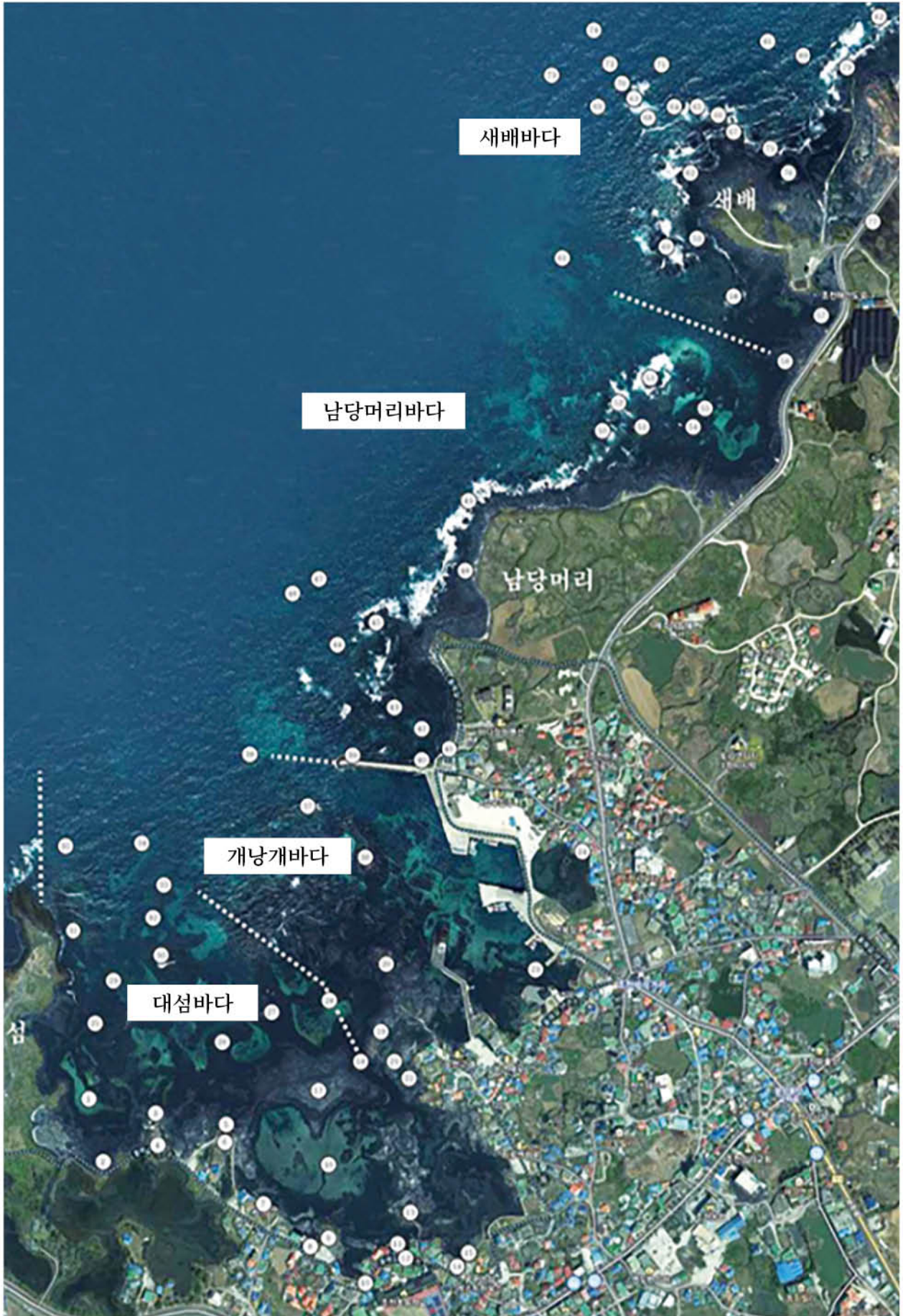
제주 잠수굿과 관련한 영상 찾아보기

## ■ 공동체문화: 공존과 조화 배우기

- 해녀는 채취를 잘하는 능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많이 채취할 수 없어요. 해녀공동체 전체가 해마다 며칠 몇 시간 잠수해서 일할지 함께 결정해요. 너무 작은 전복이나 소리는 못 잡게 한답니다. 또 아무 기술이나 사용할 수도 없어요. 새 장비를 가져와서 혼자 마구잡이로 채취하면 자연이 파괴되니까요. 이렇게 제주 해녀가 되려면 능력만 좋아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잘 살기 위한 공동체문화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 제주 바다는 개인의 것이 아니죠. 그렇기에 해녀들은 제주 바다에서 채취한 것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 '학교 바당'이라는 구역에서 얻은 소득은 공동체 어린이를 위한 초등학교를 짓는 데 사용되었어요. 바다는 각자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의 터전이지만 동시에 공동의 터전이기도 하죠. 해녀공동체가 가진 연대와 조화의 정신이 빛나는 부분이에요.
- 진정한 제주 해녀가 되려면 매년 이른 봄에 열리는 잠수굿에도 참여해야 해요. 잠수굿은 해녀들이 잠수를 앞두고 제주무당인 심방을 불러 용왕에게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의례랍니다. 잠수굿을 통해 용왕을 맞이해 잘 대접한 뒤 돌려보내는데, 이때 작은 짐배에 제물을 실어 용왕과 조상에게 보내며 풍어를 기원한다고 해요.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해녀들이 함께 부담하고, 바닷속을 관장하는 용왕과 돌아가신 조상에게 함께 기원하는 잠수굿은 해녀공동체를 잘 보여주는 의례랍니다.



잠수굿(1980년 촬영) <사진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아카이브> 13)



조천 바다밭 이름 <그림 출처: 고광민 외, 『제주 해안마을 바다밭 이름과 생활사 조사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8, 29쪽>

자기가 알고 있는 조개 이름이나 해조류 이름 생각해 보기

한국 어촌에서 사용하는 바람 이름 찾아 보기

## ■ 자연과 살아가기: 바위, 조개, 해조류, 밀물/썰물에 대한 해녀들의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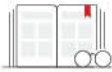
- 제주 해녀는 항상 바뀌는 환경 속에서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일해야 하기 때문에, 바닷속 암초, 조개들이 사는 곳에 대해 아주 많은 걸 알고 있어야 해요. 동물학자나 생물학자, 지리학자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머릿속에 자신만의 바다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해산물을 더 안전하고 빠르게 채취할 수 있대요.
- 앞의 그림은 제주 조천앞바다 해안의 바위 이름을 조사한 건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육지 가까운 곳 바다에 짙은 색의 갯바위들을 볼 수 있어요. 82개나 되는 바위 이름이 한 마을에서 나왔대요. 바위 이름도 아주 재밌답니다. 우미숫개, 김이통, 구물내알, 막여, 종여, 안여, 오다리코지, 섬여통머흠 등등. 해녀들이 정말 이 어려운 이름을 다 외우고 있냐고요?  
우리가 학교 교실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듯이, 해녀들도 갯바위 이름과 위치를 거의 다 외워야 일을 잘 할 수 있답니다.
- 해녀는 밀물과 썰물이 언제 바뀌는지도 알아야 하고, 바람과 해류 방향과 세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조류나 바람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가다가 힘만 빼기도 하고, 심지어 해류나 바람에 휩쓸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 해녀가 되려면 너무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구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지식이 필요하답니다.<sup>14)</sup>
-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이 소중한 지식이 아니고, 이렇게 해녀들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자연에 대한 수많은 지식도 자연과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지식이에요. 유네스코는 바로 이 해녀들의 살아있는 지식에 담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높이 평가했답니다.





## 유네스코는 왜 제주해녀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을까요?

▶ 공동체 문화 속 지혜와 지속가능한 가치



### 이야기 펼치기

#### ■ 공동체 문화 속 지혜와 지속가능한 가치

**“공동체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자연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그들의 지식, 삶의 기술과 능력을 체계화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려는 방법을 찾아왔다.”**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개정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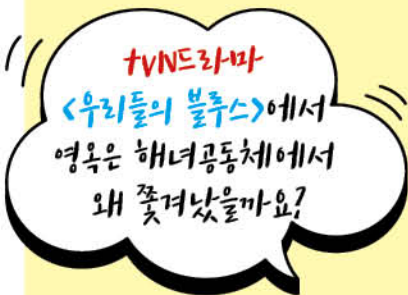
- 우리는 '공동체'나 '전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낡고 이제 사라져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해녀공동체가 서로 돕고 욕심내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문화는 결코 낡은 과거가 아닙니다.
- 해녀공동체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해산물을 마구 채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자연과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해녀공동체는 눈앞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 자연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건 채취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잠수를 며칠동안 할지 함께 결정하고, 너무 새로운 기술로 마구잡이 채취를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또 함께 작업해서 얻은 이익으로 초등학교를 세워서 공동체에 기여한답니다.
- 갈수록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류의 생존마저 파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죠? 유네스코는 제주 해녀의 공동체문화와 민간 지식이 바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새로운 대안이라고 보았어요. 제주해녀문화는 근대화에 밀려 사라져 갈 과거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오래된 미래랍니다.



### 활동내용

우리 학교나 지역에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별이는 활동이나 관련 지혜를 생각해 보기

자연 파괴를 멈추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



해녀공동체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던 영옥은 해녀들과 화해를 하게 되어요. 해녀 춘희 삼촌은 영옥을 해녀공동체에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옥이 아픈 동생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는 점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영옥도 자신을 심하게 나무랐던 해녀 해자가 어렸을 때 바다에서 어머니를 잃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로 이해했죠.

결국 영옥은 다른 해녀들에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해녀 모두를 위험과 걱정애 빠뜨리게 했다는 걸 알고 진심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영옥은 다시 해녀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 한국과 일본의 해녀문화

- 한국과 일본의 해녀문화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두 문화는 모두 바다를 공동의 것으로 바라보고, 바다에 들어가서 채취하는 시간을 제한하며 바다를 보호하는 등 소중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 한국과 일본의 해녀문화는 모두 관광과도 결합되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한국 제주도에서는 해녀체험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일본에선 해녀들이 쓰는 해녀의 집(아마고야)을 관광상품과 결합해서 해녀들이 관광객에게 해산물을 대접하며 해녀문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우리 한국의 해녀체험과 일본 해녀의 집을 온라인에서 찾아보며 가상체험해 볼까요?



- 한국과 일본의 해녀들은 함께 모여 서로의 문화에 대해 교류도 한답니다. 일본에는 해녀들의 모임인 '해녀 서밋(summit)'이 있는데 한국 해녀들은 이 '해녀 서밋'에 참가해서 일본 해녀들과 교류하고 있어요.
-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발전하는 유사한 문화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랍니다.

## ‘해녀박물관’ 디지털 체험

온라인 해녀박물관을 방문해 아래의 항목을 둘러보고 조사한 내용을 적은 후 발표해봅시다. (개별 및 모둠활동)

◆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jeju.go.kr/haenyeo/index.htm>



조사항목	조사내용 및 발표
해녀의 삶 (제 1 전시실)	
해녀의 일터 (제 2 전시실)	
해녀의 생애 (제 3 전시실)	
온라인 공연 및 온라인 전시(VR)체험	



## 교과별 활동 및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계 3

(해녀 그리고 공동체문화)

교과	교과별 활동	교과별 교육과정 핵심역량 및 핵심 아이디어 연계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녀 관련 영상들 보면서 내가 해녀라고 생각하고 해녀의 하루 생활 3분짜리로 소개하는 시나리오 써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정보활용 역량</li> <li>• 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li> <li>• 의사소통역량</li> <li>• 문화 향유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필자는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쓴다.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녀 관련 영상들 보면서 내가 해녀라고 생각하고 해녀의 하루 생활 3분짜리로 소개하는 영어 시나리오 써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정보처리 역량</li> <li>• 자기관리역량</li> <li>• 공동체 역량</li> <li>• 영어 의사소통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담화나 글로 표현하는 활동은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포용적으로 상호 소통하며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사회 /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의 반일 운동에 대해 살펴보기</li> <li>☞ 광복 직후 제주 해녀가 독도를 지키는 데 기여한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고력</li> <li>• 비판적 사고력</li> <li>•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li>• 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는 세계시민 의식의 기초가 된다.
지리 / 사회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해녀가 있는 곳 지리적으로 알아보기</li> <li>☞ 제주도 해녀문화를 체험하는 곳을 찾아서 온라인을 통한 가상체험 실시하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고력</li> <li>• 비판적 사고력</li> <li>•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li>• 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지리) 장소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문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 (사회·문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과학 / 정보 / 기술 /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녀는 숨을 오래 참으며 물질할 수 있지만 왜 욕심내서 많이 채집하면 안되는지 알아보기</li> <li>☞ 해녀는 왜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원리 알아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li> <li>• 과학적 탐구와 문제해결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육부,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 이 사례로 어떤 추가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더 읽을거리와 연결)

활동 1

해녀와 해남 문화가 발전한 일본 해녀(해남)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활동 2

일본 해녀가 등장한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활동 3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기

▶ 더 읽을거리 (34) 유산과 지속가능발전의 결합 사례: 함께 배우며 능력을 키우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 더 읽을거리 (41)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활동 4

문화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27) 문화다양성: 평화적 공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

활동 5

토착적 전통지식이 왜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소중한지 생각해보기

▶ 더 읽을거리 (39) 토착적 전통지식과 지속가능성: 마양나 부족

▶ 더 읽을거리 (40) 토착적 전통지식과 지속가능성 사례들





원자폭탄이 터진 곳에서 평화를 생각해보기  
**히로시마 원폭 돔**



어떤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까요?

- 질문(3): 아름답고 위대한 것만 유네스코 유산이 되나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도 유산이 되나요?
- 질문(5): 전쟁만 없으면 평화인가요? 평화란 무엇인가요?
- 질문(6): 유산에 대해 집단이나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네스코는 뭘 할 수 있나요?





## 무엇을 배우나요?



### 수업준비 확인

학습 주제	히로시마 원폭 돔 사례를 통해 '불편문화유산' 개념을 배우고 평화와 유산의 관계 생각해보기
수업관련 핵심 키워드	평화, 불편문화유산, 세계유산
수업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하며 중간중간 간단한 퀴즈-활동하기</li> <li>■ 모둠별 토의 토론 학습    ■ 개인별 및 모둠별 이야기하기</li> </ul>
자료 및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자료    ■ 읽기 자료    ■ 디지털 도구</li> </ul>
수업분량	1차시 + 활동에 따라 확장 가능 ■ 교재 뒷부분에 추가로 '더 읽어보기' 있음

※ 일러두기: 마지막 부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별 활동, 그리고 '더 읽을거리'와 연계한 추가 심화활동이 있으니 함께 보면서 수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 수업내용

주제	지도 내용
히로시마 원폭 돔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초 원자폭탄이 터진 곳</li> <li>▶ 원자폭탄이 터진 까닭과 전쟁 역사 알아보기</li> </ul>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나라들간 입장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중국은 왜 찬성하지 않았는지 알아보기</li> <li>▶ 각 나라 입장에서 이야기해보기</li> </ul>
불편문화유산 개념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음</li> <li>▶ 역사가 짧아도 의미 있으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음</li> </ul>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토론과정에서 평화를 만들어나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 차이와 갈등을 통해 더 많은 토론을 하게 됨</li> <li>▶ 피해자는 일본인만이 아니라 조선인도 있었음</li> <li>▶ 한국인과 일본인 시민들 사이에 연대활동이 생겨남</li> <li>▶ 평화는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li> </ul>
활동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간의 평화유산 찾기와 연대의식 만들기</li> </ul>





## 주제별 내용 이해하기

### 히로시마 원폭 돔 알아보기 <sup>15)</sup>

- ▶ 세계 최초 원자폭탄이 터진 곳
- ▶ 원자폭탄이 터진 까닭과 전쟁 역사 알아보기

#### 등재 기준

(vi)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원폭 돔)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초래한 참상을 보여주는 냉혹하면서도 강력한 상징이며, 핵무기의 궁극적 폐기와 세계평화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평가



### 이야기 펼치기

- 히로시마 시내 중심부에 있는 원폭 돔은 1996년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원폭 돔)(이하 히로시마 원폭 돔)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이 곳은 2차 세계대전 때 산업장려관으로 사용되었고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이 폭발한 곳이에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파괴된 건물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초래한 참상을 보여주는 냉혹하면서도 강력한 상징이란 점을 높이 평가했답니다. 또 원폭 돔을 보존해 온 히로시마 시민들의 노력이, 핵무기 폐기와 세계 평화에 대한 인류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인정했어요.



### 활동내용

사진 보면서 유네스코 유산 중 어느 유산인지(자연유산/문화유산/복합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자유롭게 추측해보고 나서 설명 듣기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나라들간 입장 차이

- ▶ 미국과 중국은 왜 찬성하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 ▶ 각 나라 입장에서 이야기해보기



### 활동내용

각 나라 입장이 되어  
주장해보기



### 이야기 펼치기

#### ■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나라 간 입장 차이와 갈등이 컸어요

-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측 참전국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미국의 반발은 컸어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길어져서 민간인과 군인의 희생이 커지자 원자폭탄 투하는 이런 희생을 끝낼 필수적인 선택이었다는 입장이었어요. 즉 원자폭탄 투하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폭 돔은 일본 주장처럼 '평화'의 유산이 아니라 '전쟁'의 유산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 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 중국도 히로시마 원폭 돔의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했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데 원자폭탄의 피해만 강조하면서 마치 피해국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이유에서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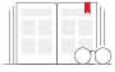


#### 유산등재에 대한 나라별 다른 입장을 보여주는 발언

일본	미국	중국
<p>“핵시대를 사는 인류 의지의 상징, 일본의 평화 실현 결의를 나타낸다” (1992년 히로시마 시의회 의견서)</p>	<p>“미국이 원폭을 투하한 이유는 많은 이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전쟁을 하루빨리 종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미국의 발언)</p>	<p>“원폭 돔의 세계유산 지정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중국의 발언)</p>

## 불편문화유산 개념 알아보기

- ▶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것도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음
- ▶ 역사가 짧아도 의미 있으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음



### 이야기 펼치기

#### ■ 아름답지 않고 아픈 역사가 담긴 것도 세계유산이 될 수 있나요?

- 유네스코는 자랑스러운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후대에 전해야 할 유산이라고 보았기에 히로시마 원폭 돔이 세계유산이 되었어요.
- 인류의 어둡고 아픈 역사를 담은 유산을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다크 헤리티지(dark heritage)', 혹은 '네거티브 헤리티지(negative heritage)'라고 불러요. <sup>16)</sup>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대표적인 예죠. (학습활동지 2)

#### ■ 역사가 짧아도 세계유산이 될 수 있나요?

- 원폭 돔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가장 역사가 짧은 현대식 건물 중 하나였어요(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와 유사한 사례). 또 구조물이 온전하지 않고 파괴된 건물의 잔해인데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도 의미 있어요.
- 오래된 것들을 유산으로 인정하던 관행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 ■ 히로시마 원폭 돔을 통해 생각해볼 요점 정리

- 인류의 아픔이 담긴 어두운 역사도 유산이 될 수 있어요.
- 역사가 짧아도 유산이 될 수 있어요.
- 건물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건물을 보존하려는 시민의 노력이 평화를 기원하는 인류의 희망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국제적 갈등 양상이 심각할 때도 많은 토론을 하면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 활동내용

불편문화유산 사례  
생각해보기

Difficult Heritage 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불편유산, 불편문화유산, 부(負)의 유산(negative heritage), 부정적 문화유산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본서에서는 '불편문화유산'으로 표기함.

히로시마 원폭 돔과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의 공통점 찾으며 이야기해보기(학습활동지 2번 참고), '불편문화유산' 참고)



##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토론과정에서 평화를 만들어나가다

- ▶ 입장 차이와 갈등을 통해 더 많은 토론을 하게 됨
- ▶ 피해자는 일본인만이 아니라 조선인도 있었음
- ▶ 한국인과 일본인 시민들 사이에 연대활동이 생겨남
- ▶ 평화는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



### 활동내용

히로시마 원폭 돔에  
만일 답사를 간다면  
무엇을 보고 느끼고  
싶은가요?



### 이야기 펼치기

#### ■ 논쟁과 갈등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됨

- 히로시마 원폭 돔을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게 맞는지에 대한 토론, 그리고 나라 간 입장 차이를 통해 평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 갈등과 논쟁은 나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성찰을 하게 해줘요.

#### ■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연대가 생겨나다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피해를 본 건 일본인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시 민간인 중 10분의 1은 조선인이었대요.<sup>17)</sup> 원폭 돔 평화공원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도 세워졌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은 서로 연대하면서 함께 평화운동을 하고 있습니다.<sup>18)</sup>
- 원폭 돔은 일본이 입은 피해만 기억하는 곳이 아니라, 다함께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의 자리인 거죠. 이렇게 평화는 단순히 전쟁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토론하면서 계속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사진 제공: 오은정>



## 반전을 노래하다, 평화를 꿈꾸다

미국의 대중음악가 밥 딜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는 2016년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노벨 문학상을 탄 최초의 가수입니다. ‘바람만이 아는 대답(Blowin’ in the Wind)’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 곡은 평화와 반전에 관해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노래를 감상하면서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고 질문에 답해봅시다.

(\* 영상 및 음원을 통한 ‘Blowin’ in the Wind’ 노래 감상/ 존 레논의 ‘Imagine’도 함께 감상 가능)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봐야 사람이라 불리게 될까?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이 바다 위를 날아봐야 백사장에 편안히 쉴 수 있을까?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 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그래, 포탄은 얼마나 많이 날아가야 그것들이 영원히 금지가 될까?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안다네. 바람 속에서 날아가고 있다네.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산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씻겨서 바다로 가게 될까?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사람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자유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사람은 얼마나 여러번 고개를 돌리고 보이지 않는 척하고 외면할 수 있을까?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안다네. 바람 속에서 날아가고 있다네.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really see the sky?

사람은 얼마나 많이 올려다 보아야 진짜 하늘을 볼 수 있을까?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사람은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타인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희생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되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을 깨닫게 될까?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안다네. 바람 속에서 날아가고 있다네.

- Blowin’ in the Wind 가사 및 번역 -

Q1. 이 노래가 왜 반전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Q2. 이 노래는 질문과 대답으로 가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의 의미는 무엇인지 각자의 의견을 말해봅시다.

## 한일 간의 평화유산 찾기와 연대의식 만들기



'이수현' 씨 영상 찾아서 보며 토론하기

'이수현' 씨의 사례처럼 한일 간의 문화교류 및 평화와 우호의 씨앗이었거나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서 한일 양국이 기억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봅시다.

내용	사례들
<p>과거에 있었던 한일 간의 우호와 평화의 사례</p>	<p>예시) 조선통신사 기록물: 학생활동지 7-2와 연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ul>
<p>현재의 한일 간 우호와 평화의 사례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 등)</p>	<p>예시) 한일 간 문화교류(K-Pop, 애니메이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ul>
<p>미래에 있을 한일 간 우호와 평화의 사례 (함께 할 평화 캠페인 등)</p>	<p>예시) 한일 간 공동사안 협력안(인구감소, 노령화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ul>



## 교과별 활동 및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계 4 (히로시마 원폭 돐)

교과	교과별 활동	교과별 교육과정 핵심역량 및 핵심 아이디어 연계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인과 일본인의 역할을 맡아서, 히로시마 원폭 돐에 대해 함께 평화 캠페인 3분 시나리오 써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정보활용 역량</li> <li>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li> <li>의사소통역량</li> <li>문화 향유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필자는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쓴다.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인과 일본인의 역할을 맡아서, 히로시마 원폭 돐에 대해 함께 평화 캠페인 영어로 3분 시나리오 써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정보처리 역량</li> <li>자기관리역량</li> <li>공동체 역량</li> <li>영어 의사소통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담화나 글로 표현하는 활동은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포용적으로 상호 소통하며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사회 /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히로시마 원폭 돐의 역사와 나라 간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기</li> <li>히로시마로 역사 테마투어 계획 짜보기 (다크투어)</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 사고력</li> <li>비판적 사고력</li> <li>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li>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자료이다. 지역의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는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쟁을 반대하는 전세계 노래들 찾아보기 (존 레논, 밥 딜런 등)</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성역량</li> <li>창의성 역량</li> <li>자기주도성 역량</li> <li>공동체역량</li> <li>소통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음악적 수용과 반응은 인간의 감수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위치 찾아보고, 원폭 당시 어디까지 피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 사고력</li> <li>비판적 사고력</li> <li>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li>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지표상에 분포하는 모든 사건과 현상은 절대적, 상대적 위치와 다양한 규모의 영역을 차지한다.
과학 / 융합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자폭탄의 파괴력과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적 의사결정 능력</li> <li>과학적 탐구와 문제해결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과학기술은 자원과 에너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한다.

※교육부,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 이 사례로 어떤 추가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더 읽을거리와 연결)

\*\*\*  
활동  
1

학습활동지2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와 연결지어 불편문화유산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  
활동  
2

불편문화유산 좀더 알아보기

\*\*\*  
활동  
3

유네스코의 평화 개념 변화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1) 전쟁 속에 피어난 평화의 꽃, 유네스코

☞ 더 읽을거리 (2) 문화 이해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 모색

☞ 더 읽을거리 (17)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속적 여정: 평화 개념을 넓히다

\*\*\*  
활동  
4

전쟁 속 유산 파괴: 유네스코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더 읽을거리 (18) 전쟁 속 유산 파괴: 유네스코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더 읽을거리 (19) 바미안 계곡의 석불 파괴와 복원

\*\*\*  
활동  
5

나라간에 유산등재를 둘러싸고 지금도 토론하고 있는 사례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20) 난징대학살 문서를 둘러싼 논쟁



\*\*\*  
활동  
6

인권 문제로 등재가 취소된 유산도 있다고요?

☞ 더 읽을거리 (22) 유산 보호와 인권 존중의 평화로운 공존: 인권 문제로 등재가 취소된 유산도 있다고요?

\*\*\*  
활동  
7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토론해보기

☞ 더 읽을거리 (23) [학생활동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토론해보기

\*\*\*  
활동  
8

국제협력을 통해 함께 유산 보호를 하는 걸 아시나요?

☞ 더 읽을거리 (24) 국제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화해와 치유의 유산보호 활동

☞ 더 읽을거리 (25) 북한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남북한 협력



나는 어떤 김치를 담가서 누구와 나눠먹고 싶은가요?

## 김치와 문화 포용성



### 어떤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까요?

- 질문(1): 유산은 한 나라, 한 민족만의 것인가요?
- 질문(7): 남한과 북한은 비슷한 유산이 있나요? 서로 도우며 유산보호를 하기도 하나요?
- 질문(8): 문화는 한 나라에만 속하나요? 여러 나라와 민족이 문화를 공유할 수도 있나요?
- 질문(10): '한국 문화', '그리스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걸까요?





## 무엇을 배우나요?



### 수업준비 확인

학습 주제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 유네스코 사례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평화 이해하기
수업관련 핵심 키워드	인류무형문화유산, 문화다양성, 문화 공동체, 공동등재, 평화
수업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하며 중간중간 간단한 퀴즈-활동하기</li> <li>■ 모둠별 토의 토론 학습    ■ 개인별 및 모둠별 이야기하기</li> </ul>
자료 및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자료    ■ 읽기 자료    ■ 디지털 도구</li> </ul>
수업분량	1차시 + 활동에 따라 확장 가능 ■ 교재 뒷부분에 추가로 '더 읽어보기' 있음

※ 일러두기: 마지막 부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별 활동, 그리고 '더 읽을거리'와 연계한 추가 심화활동이 있으니 함께 보면서 수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 수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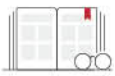
주제	지도 내용
김치, 유네스코 세계유산 맞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김치'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li> <li>▶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차이점 이해하기</li> <li>▶ 김치가 아니라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 이해하기</li> </ul>
남한과 북한의 김치는 다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는 음식문화 이해하기</li> <li>▶ 남한과 북한의 김치문화 관련해 각각 등재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비교하기</li> <li>▶ 남한과 북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기</li> </ul>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김치를 먹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임문화의 한 형태로서 김치 이해하기</li> <li>▶ 문화교류로 인한 식재료 변화를 통해 김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해하기</li> </ul>
세계의 김치, 세계의 김치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이 전세계로 퍼져나간 역사 이해하기(한인 디아스포라 개념 이해하기)</li> <li>▶ 한국인의 이주 역사 속 김치의 변화를 통해 '문화다양성' 살펴보기</li> <li>▶ 한류를 통해 새롭게 소개되는 김치와 김치 공동체의 형성 (세계화와 문화변용 이해하기)</li> </ul>
활동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Food 김치에 대해 탐구하기</li> </ul>



## 주제별 내용 이해하기

### 김치, 유네스코 세계유산 맞나요?

- ▶ ‘한국의 김치’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 ▶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차이점 이해하기
- ▶ 김치가 아니라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 이해하기



### 이야기 펼치기

#### ■ 한국의 대표적 전통 음식, 김치

- 영화 <식객2: 김치전쟁> 대사 중

####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김치는 어떤 김치입니까?”, “어머니의 맛”

- 영화 속 한일정상회담 자리, 일본총리의 저녁 초대에서 불고기와 김치가 특별만찬으로 준비되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우리 불고기와 김치에 이런 오묘한 맛이 숨어있었다니 놀랍군요”라고 하자 일본 총리는 이걸 일본의 야키니쿠와 기무치라고 응수합니다.

- 이후 한국은 김치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김치경연대회를 엽니다. 전통 요리 방식을 고수하는 인물 ‘성찬’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물 ‘정은’은 이 경연대회에 출전해요. 그리고 경연의 결승전에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김치는 바로 어머니의 맛임을 깨닫게 되지요.



### 활동내용

관련 영상 찾아서 보기





각 유산의 정의, 등재  
기준 살펴보기  
☞ 더 읽을거리 (6),  
(7)

음식과 관련된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예  
를 찾아보고 등재 이  
유 살펴보기

### ■ 김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일까요? <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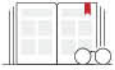
-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김치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아니에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유산이 있어요. 세계유산은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넘어서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산(不動産) 유산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있고, 심지어 먹어서 없앨 수 있는 성격을 지닌 김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수 없답니다.

### ■ 김치가 아니라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에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한 지식, 관습, 문화적 표현입니다.
- 따라서 김치라는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한국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겨난 김치 담그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음식을 준비하고 이웃과 나누는 관습이 어우러진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가 바로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었답니다.

## 남한과 북한의 김치는 다른가요?

- ▶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는 음식문화 이해하기
- ▶ 남한과 북한의 김치문화 관련해 각각 등재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비교하기
- ▶ 남한과 북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기



### 이야기 펼치기

#### ■ 남한과 북한의 김치는 다른가요?

- 김치는 한민족의 식탁에선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김치를 담그는 방식은 지역이나 가정마다 다양하지만, 김치를 담그는 전통 자체는 한반도 전체에서 공유하는 풍습이에요.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김치는 남북한의 공유 음식이며, 김치를 담그는 문화 역시 남북한 공유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남한의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와 북한의 '김치 담그기 전통'

- 남한과 북한은 이렇게 김치 담그기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각각 등재 신청을 했어요. 남한과 북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각각 등재 신청을 할 때 설명은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강조점도 이름도 좀 달랐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한국의 김치 문화는 북한보다 2년 먼저인 2013년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는 '김장'에 초점을 맞추고 협동과 나눔을 강조했어요. "김장은 실질적으로 모든 한국인이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고 하면서, 가족과 친족, 이웃뿐 아니라 종교기관과 교육기관 심지어 군대도 김장공동체가 된다는 점, 그리고 어려운 이들과 나눔다는 가치를 부각시켰어요.<sup>20)</sup>
- 북한의 김치 문화는 2015년 '김치 담그기 전통'으로 등재되었고, 김치가 세대를 넘어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지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sup>21)</sup> 김치를 만드는 방식이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또는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로 전승되거나 구전으로 주부들 사이에서 전승된다는 점, 특히 여성들이 다 같이 모여 김치를 담그며 김치 담그는 방식이나 지식을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 활동내용

북한의 유네스코 유산 찾아보기

북한과 남한의 공유 음식문화 찾아보기





## ■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는 유산과 문화는 유네스코에 언제나 따로 등재해야 할까요?

- 유네스코는 유산 보호제도를 통해 인류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가고,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보호하는 평화 정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국가 간에 공유하는 문화가 있다면 '공동등재'를 권하고 있어요.
- 2018년 남한과 북한이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것은 유네스코의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보여준 모범사례입니다. 김장 외에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를 살펴보고 공동등재의 가능성을 찾아보면서 유네스코 평화 정신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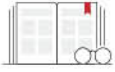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공동등재된 사례  
와 등재 이유를 찾아  
보기

유네스코 '평화' 개념  
에 대해 생각해보기  
☞ 더 읽을거리 (1),  
(2), (17)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김치를 먹었나요?

- ▶ 절임문화의 한 형태로서 김치 이해하기
- ▶ 문화교류로 인한 식재료 변화를 통해 김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해하기



### 이야기 펼치기

#### ■ 김치는 절임 문화의 오랜 역사 속에서 발달해 온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 김치는 한국 고유의 향신료와 해산물로 양념해 발효한 한국적 방식의 채소 저장 식품이에요. 김치는 한국의 독창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김치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인의 식단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농경사회에 진입하고 남는 작물이 생기자, 이를 오랜 기간동안 저장 보존하기 위한 식품 저장법이 나타났는데요. 소금에 채소를 절인 김치는 그러한 저장법 중 하나예요.<sup>22)</sup>
- 김치는 단순 염장절임에서 발효절임 단계를 거치면서 현재 우리가 쉽게 접하는 김치의 모습으로 발전했어요.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어느 문화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단순절임 형태에다가 발효기술과 민족적 기호, 자연환경 여건에 맞추어 조리법을 발전시켜 한국의 김치가 탄생한 것이죠.<sup>23)</sup>

#### ■ 조선시대에도 현재와 같은 붉은 김치를 먹을 수 있었나요?

-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760년 이전에도 한국인의 식단에는 김치가 있었다고 해요.<sup>24)</sup> 그렇다고 760년 전 김치도 현재 우리가 먹는 김치와 같았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지금과 같이 고추가 재배되고 있지 않았으니 아마 백김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추측해요.
- 한국의 매운 맛을 상징하는 지금과 같은 종류의 고추는 16세기 임진왜란을 전후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고 비로소 김치에도 사용하게 되었어요. “산림경제(1715년경)”라는 책에 나오는 오이김치가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의 최초기록이에요. 18세기부터는 고춧가루가 다양한 김치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해요.<sup>25)</sup>



### 활동내용

절임 문화를 통해 발전한 세계의 음식 찾아보고 김치와 비교해 보기





### ■ 미래의 김치 모습 상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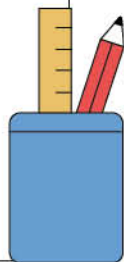
기후 변화를 통해 식재료가 변화한 미래의 한국에는 어떤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 김치의 요리법은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하고 변화해 왔어요.<sup>26)</sup> 이렇듯 새로운 농작물과 식자재가 도입되면 음식 문화에 혁명이 일어나요.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김치가 탄생했듯, 앞으로 김치는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며 계속 새롭게 발전하겠죠.
- 앞으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사라지고 식품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김장문화는 많이 바뀌게 되겠죠? 또, 기후 위기로 인해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한 배추를 구하기 어려워질 거라고도 해요. 이제 미래에 우리는 어떤 재료로, 어떤 양념으로, 어떤 방법으로 김치를 담그고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주아주  
중요해!

#### ‘한인 디아스포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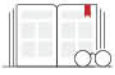
‘디아스포라’는 원래 유대인 집단이 살던 곳을 떠나 세계 각지로 흩어진 현상과 그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점점 의미가 확장되어 현재는 자의나 타의로 원래 살던 땅을 떠나 다른 곳에서 집단을 형성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폭넓게 쓰입니다. ‘구약’의 유대인 언급에서 기원했다는 점에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용어가 망명자나 소수민족 집단만 가리킨다고 여기기도 해요. 그러나 현재 ‘디아스포라’는 그보다 넓은 의미로 초국경 시대에 본토를 떠나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또는 이주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요. 따라서 우리 교재는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세계의 김치, 세계의 김치 공동체

- ▶ 한국인이 전세계로 퍼져나간 역사 이해하기 (한인 디아스포라 개념 이해하기)
- ▶ 한국인의 이주 역사 속 김치의 변화를 통해 '문화다양성' 살펴보기



### 이야기 펼치기

#### ■ 한인 디아스포라

- 전 세계 어디에 가도 그 나라에 정착한 이주 한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이주한 경우도 있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도 있고, 197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대거 이민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공동체를 재외동포, 재외국민 혹은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칭합니다.

#### ■ 한인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김치 문화

- 재외동포는 정착한 지역에 적합한 식재료로 그들의 김치를 담그고 나누면서 살아갔어요. '당근 김치'를 들어보셨나요? 당근 김치는 러시아 연해주에 사는 러시아동포의 대표적인 음식이고 유라시아 민족의 전통적인 빵과 곁들여 즐겨 먹어요. 마치 쌀밥에 배추김치를 먹는 것처럼요. 당근 김치는 러시아에서 비싼 배추보다 가격 면에서 훨씬 싼 '당근'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한민족의 맛과 향수를 느낄 수 있어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 식단의 필수 품목이었다고 해요.<sup>27)</sup>



마르코프차(당근김치)

-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김치 문화는 함경도 김치와 비슷하고, 배추김치 외에도 갓김치와 영채 김치를 즐겨 담근대네요. 이유는 이 채소가 추운 연변지역에서 배추보다 키우기 쉬운 채소라서 그렇다고 해요.
- 20세기 초 한인은 멕시코, 쿠바, 브라질, 파라과이까지 농업 이민을 떠났어요. 중남미에는 배추가 없었기 때문에 재외 한인들은 멕시코 메리다에서 시들해진 양배추, 호배추 잎을 따서 김치를 담갔다고 해요. 또 손바닥처럼 생긴 노팔(nopal) 선인장의 가시만 쳐내고 나박나박 썰어 깍두기로 만들어 먹은 방식은 이민 3세대까지 이어온답니다.<sup>28)</sup>



### 활동내용

한인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김치를 찾아보고, 김치 지도 만들기

디아스포라는 고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형성된 집단, 즉 이주민을 뜻하는 용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하기  
 ▶ 더 읽을거리 (27), (28), (29)

## 세계의 김치, 세계의 김치 공동체

▶ 한류를 통해 새롭게 소개되는 김치와 김치 공동체의 형성 (세계화와 문화변용 이해하기)



### 활동내용

수출하고 싶은 김치  
혹은 김치 제품에 대  
해 토론하기

중국의 파오차이, 일  
본의 기무치/츠케모  
노, 그리고 한국의 김  
치 비교하기

외국인 친구와 함께  
담그고 나누고 싶은  
김치는 무엇인지 이  
야기해보기



### 이야기 펼치기

#### ■ 한류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김치 문화

- 한국인 정체성과 이주민 정체성이 공존하면서 계승되는 한인 디아스포라 김치 문화가 흥미로우셨나요? 이제 한류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 맞추는 다양한 김치와 김치 제품이 개발되고 있어요.
- 먼저 베트남 김치 시장에 맞추어 현지인에게 익숙한 향신채소인 고수를 넣고 매운맛을 조정해서 '고수 김치'가 개발되었어요. 고수 김치는 베트남에서 요리 토핑이나 샐러드 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대요.<sup>29)</sup>
-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현지인이 선호하는 양배추, 케일, 당근을 활용한 김치, 매운맛을 싫어하는 현지인들을 위해 젓갈이 들어간 오리지널 버전과 젓갈이 들어가지 않은 비건 버전의 마일드 김치도 선보이고 있어요.<sup>30)</sup>

#### ■ 세계의 김치, 세계의 김치 공동체

- 김치 소비가 전 지구로 확산되면서 현지인 입맛에 맞게 김치의 맛과 형태가 변용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인터넷 플랫폼인 아마존(Amazon)에서 김치 파우더가 판매 1위를 하기도 하고, 미국인 셰프가 김치 쉽게 만드는 법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한답니다.
- 한국의 김치는 동아시아 '김치 전쟁' 속에서 중국의 파오차이, 일본의 기무치와 경합을 벌이기도 했어요.<sup>31)</sup> 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발전하는 김치는 이제 한국의 음식인 동시에 세계의 음식이에요. 그 김치를 함께 만들고 먹고 즐긴다면 누구든 김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있지요.
- 여러분은 어떤 김치를 담궜서 누구와 나누어 먹고 싶으세요?



## K-Food, 김치의 모든 것



◆ 김치와 관련된 다음의 활동을 해봅시다.

<p>김치가 건강에 좋은 이유 2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p>다양한 김치의 종류 3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p>김치와 어울리는 음식 5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li>•</li> </ul>
<p>김치로 만들 수 있는 음식 5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li>•</li> </ul>

## 학생활동지 5

◆ 김치의 글로벌화와 관련된 다음의 활동을 해봅시다



<p>외국인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김치 관련 음식</p>	<p><b>음식명 :</b></p> <hr/> <p><b>이유 :</b></p>
<p>외국인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나만의 김치 관련 음식 레시피 (영어 작성가능)</p>	<p><b>음식명 :</b></p> <hr/> <p><b>음식재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hr/> <p><b>조리법 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li>•</li> <li>•</li> </ul>





## 교과별 활동 및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계 5 (김치와 문화 포용성)

교과	교과별 활동	교과별 교육과정 핵심역량 및 핵심 아이디어 연계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는 음식 문화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신청서 A4 1장으로 작성하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정보활용 역량</li> <li>• 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li> <li>• 의사소통역량</li> <li>• 문화 향유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필자는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쓴다.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김치를 나누어 먹고 싶은 외국인 친구에게 영어로 김치 만드는 방법 소개하기</li> <li>☞ 아마존 등 인터넷에서 외국인에게 판매 가능한 김치 관련 상품 아이디어 기획하기</li> <li>☞ 김치 및 김장 문화와 관련된 관광 상품 기획하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정보처리 역량</li> <li>• 자기관리역량</li> <li>• 공동체 역량</li> <li>• 영어 의사소통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적절한 사고 과정 및 전략을 활용해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한다.
사회 /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치와 같이, 절임문화 속에서 탄생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찾아보고, 그 음식의 역사와 변천사 정리하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고력</li> <li>• 비판적 사고력</li> <li>•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li>• 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태도는 세계시민 의식의 기초가 된다.
지리 / 사회 /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인 디아스포라 김치 지도 만들어보기</li> <li>☞ 절임문화에서 탄생한 세계의 다양한 음식과 김치 비교하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 사고력</li> <li>• 비판적 사고력</li> <li>•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li>• 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지리) 장소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문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 (사회·문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화를 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과학 / 정보 / 기술 /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작물 재배 한계선의 변화를 살펴보고, 10년, 20년, 30년 후 개발할 수 있는 미래 한국의 김치 재료 토론허기</li> <li>☞ 중국의 파오차이, 일본의 츠키모노/기무치와 한국의 김치 비교하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li> <li>• 과학적 탐구와 문제해결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육부,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 이 사례로 어떤 추가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더 읽을거리와 연결)

\*\*\*  
활동 1

### 문화는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 더 읽을거리 (29) 문화는 고정된 화석이 아니라 변화합니다

\*\*\*  
활동 2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 기준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6)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기준

☞ 더 읽을거리 (7)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과정과 절차

\*\*\*  
활동 3

### 북한의 유네스코 유산과 관련해 공동등재와 유네스코 평화에 대해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6)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기준

☞ 더 읽을거리 (17)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속적 여정: 평화 개념을 넓히다

☞ 더 읽을거리 (25) 북한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남북한 협력

\*\*\*  
활동 4

### 학습활동지3 해녀 그리고 공동체 문화와 연결지어 문화다양성과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 더 읽을거리 (4) 유산에 대한 관점의 변화(1): 전문가와 유럽 중심에 대한 반성

☞ 더 읽을거리 (5) 유산에 대한 관점의 변화(2): 공동체 당사자의 중요성 인식

☞ 더 읽을거리 (27) 문화다양성: 평화적 공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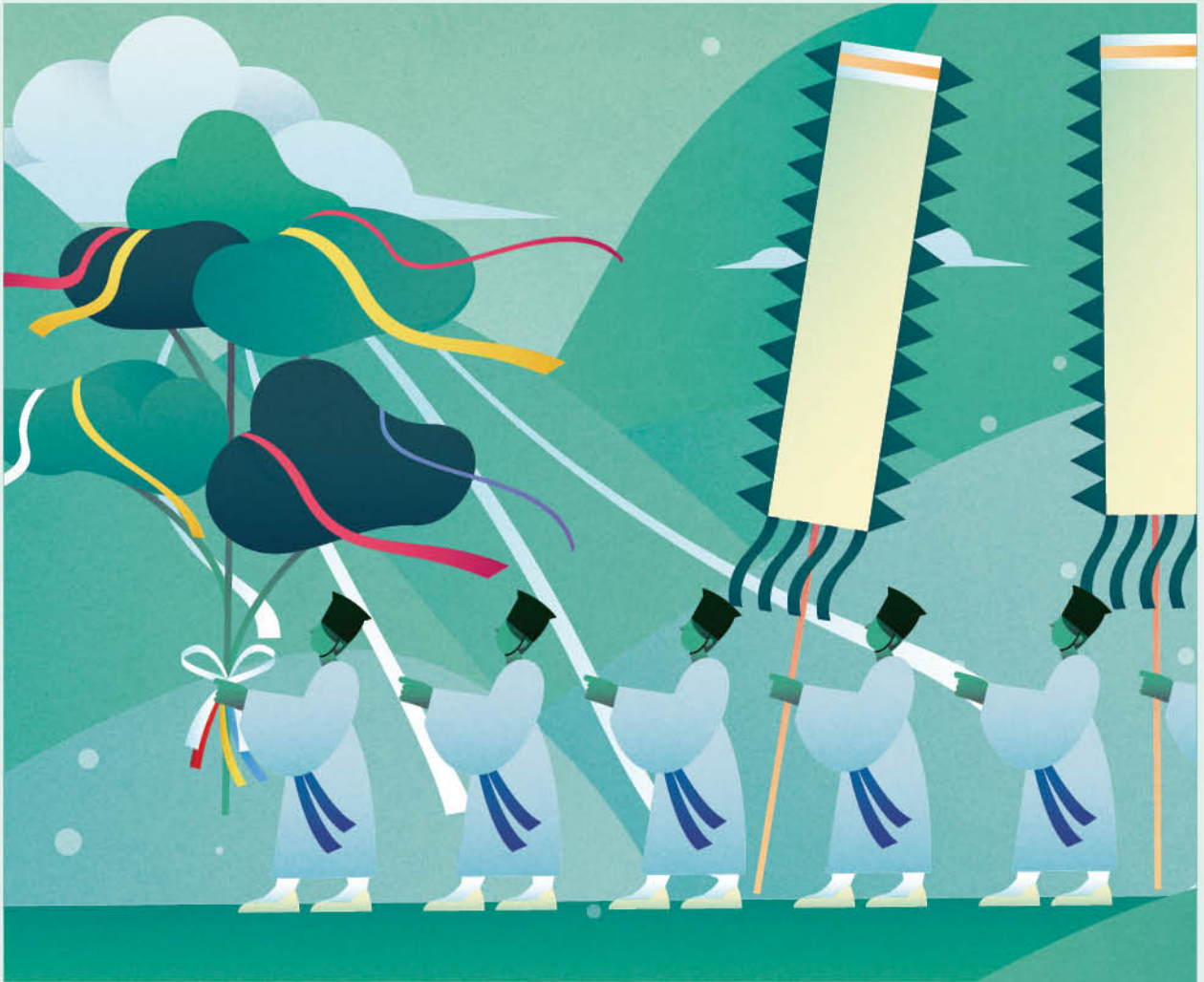
☞ 더 읽을거리 (28)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서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서 문화다양성 구현

☞ 더 읽을거리 (30) '국가'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인간과 공동체 중심으로 사고하기



단오절을 아시나요?

## 여러 나라의 단오 문화



### 어떤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까요?

- 질문(1): 유산은 한 나라, 한 민족만의 것인가요?
- 질문(8): 문화는 한 나라에만 속하나요?  
여러 나라와 민족이 문화를 공유할 수도 있나요?





## 무엇을 배우나요?



### 수업준비 확인

학습 주제	여러 나라의 단오 문화를 알아보며 '공동의 문화'를 생각해 보기
수업관련 핵심 키워드	문화다양성, 단오, 공동체, 공동의 유산, 공동의 문화
수업형태	■ 프로젝트 학습   ■ 모둠별 조사 학습   ■ 발표 수업
자료 및 준비물	■ 정사각형 색지(학생활동지 6-1 참조), 채색도구, 풀, 가위 등 ■ 디지털 도구
수업분량	2차시 + 활동에 따라 확장 가능 ■ 교재 뒷부분에 추가로 '더 읽어보기' 있음

※ 일러두기: 마지막 부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별 활동, 그리고 '더 읽을거리'와 연계한 추가 심화활동이 있으니 함께 보면서 수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 수업내용

주제	지도 내용
공동의 문화유산	▶ 단오절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 여러 공동체나 민족이 공유하는 유산들 ▶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단오 문화
여러 공동체나 민족이 '공유'하는 공동의 문화유산	▶ 문화는 한 나라나 한 민족만의 것일까요?
공동의 문화, 공동의 유산에 대해 생각해보기	▶ 각 나라가 유네스코에 유산등재를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공동의 유산'이란 게 가능한가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동아시아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	▶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오해 알아보기
4개국 단오 문화 이해하기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단오 문화
활동해보기	▶ 단오 삼각책 만들기 ▶ 4개국 단오 문화 비교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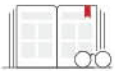




## 주제별 내용 이해하기

### 공동의 문화유산

- ▶ 단오절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 여러 공동체나 민족이 공유하는 유산들
- ▶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단오 문화



### 이야기 펼치기

#### ■ 여러분은 단오절을 아시나요? 중국, 일본, 베트남에도 단오날 행사가 있다는 건 아시나요?

- 단오날 한국에선 전통굿과 가면극놀이를 하고, 중국에선 용모양의 배 경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에선 단오날이 남자 어린이날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또 중국과 대만, 베트남에선 단오날 비슷한 찹쌀음식을 먹어요.
- 이제부터 단오절에 대해 알아보아요. 단오날은 우리 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문화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생긴 오해에 대한 뉴스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기로 해요.

#### ■ 단오절은 뭘까요? 왜 단오날엔 의례와 놀이가 생겨났을까요? 한국만의 문화인가요?

- 단오날은 음력 5월 5일이에요. 양력으로는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데 대체로 6월입니다. 단오날은 무더위가 곧 시작되는 시기라서, 전염병이나 안 좋은 운을 없애고 건강을 지키며 풍년을 기원하는 문화가 오래 전부터 생겨났어요.
- 그런데 단오날에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며 즐깁니다.<sup>39)</sup> 같은 날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걸 먹기도 하고 서로 다른 놀이를 하며 즐긴다니 굉장히 큰 명절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만나서 다같이 놀아보아도 즐거울 것 같지 않은가요?



### 활동내용

단오절에 대해 들어본 사람 있는지, 단오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지 이야기해보기

단오에 대해 인터넷 검색해 보고 어떤 뉴스가 있는지 찾아보기



## 여러 공동체나 민족이 '공유'하는 공동의 문화유산

▶ 문화는 한 나라나 한 민족만의 것일까요?

무형문화유산은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념하고  
즐거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축제는 이미 문화의 국경을 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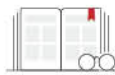
니시카와 나가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명예교수<sup>33)</sup>



### 활동내용

문화가 계속 변하는  
사례 이야기해보기  
☞ 학습활동지 (5)  
'김치' 참고

서로 다른 나라나 민  
족이 영향을 주고받  
으며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례 이야기해  
보기



### 이야기 펼치기

#### ■ 여러 나라와 민족이 문화를 공유한다는 건 뭘까요?

- 한 나라의 문화는 오직 그 나라만 가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미국 문화', '그리스 문화' 같은 표현을 즐겨 씁니다. 즉 어떤 문화는 한 나라가 혼자서만 소유하는 독특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문화는 각 나라가 혼자서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문화의 경계선은 반드시 그렇게 분명하게 그어지지 않아요.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답니다.
- 사실 유네스코도 처음에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각 나라마다 각자 하나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떤 문화유산이 자기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쟁이 과열되고 때로는 갈등이 생겨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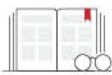


## 공동의 문화, 공동의 유산에 대해 생각해보기

▶ 각 나라가 유네스코에 유산등재를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공동의 유산'이란 게 가능한가요?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적 특성은 공유성이고, 따라서 서로 다른 공동체나 민족이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다.  
영토적 경계는 문화의 경계가 될 수 없다.

강릉 공동무형문화유산 권고문 (2009)



### 이야기 펼치기

- 현실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도 세계유산의 관리 보호도 모두 각 국가가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동의 유산'이란 생각을 실제 제도에서 완전히 실현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sup>34)</sup> 그래서 국제적 문화유산 전문가인 임돈희 명예교수(동국대)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꼭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sup>35)</sup>
- 2009년에는, '무형문화유산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공유하는 건 흔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선언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바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최한 '동아시아 공동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포럼' 참가자들이 함께 채택한 '강릉 공동무형문화유산 권고문'이에요. 참가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의 기원이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생겨나는 현실은 유네스코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분명히 지적했답니다. 강릉포럼에서는, 앞으로 여러 나라와 민족이 공유하는 문화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문화축제를 많이 개최하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 활동내용

공동등재에 대해 알아보기

☞ 학습활동지 (7)  
'공동등재' 참고

매사냥이라는 문화유산은 무려 11개국 이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이후 7개국 추가)

☞ 학습활동지 (7)  
'공동등재' 참고

##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동아시아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

▶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생겨날 수 있는 오해 알아보기



### 활동내용

나라별 단오 문화 뉴스 영상찾기를 통해 나라별 단오 문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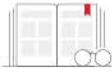
### 이야기 펼치기

- 동아시아 지역은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비슷한 문화를 가진 게 많아요.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은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한자, 율령, 불교' 등 공유하는 문화가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간에 문화를 두고 '원조' 논쟁이 종종 생기기도 해요.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서로의 문화를 몰라 생기는 오해일 때도 있고, 온라인에서 자극적으로 부풀려지며 여론이 커지기도 해요.
- 한국 강릉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되었어요. 그러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한국이 단오절을 빼앗아갔다는 오해가 생겨났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등재신청 때부터 단오날 자체는 중국에서 유래한 절기라고 밝혔어요. 즉 한국이 신청하는 문화유산은 단오 자체가 아니라 축제인 강릉단오제라고 밝혔지요. 중국의 유산 전문가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sup>36)</sup> 중국정부는 한국이 단오절을 빼앗아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시작된 오해가 커져서, 뉴스에서 보듯이 아직도 양국 사이엔 안타깝게 오해가 남아있기도 하답니다.



## 4개국 단오 문화 이해하기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단오 문화



### 이야기 펼치기

#### ■ 나라별 단오풍습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 [ 한국: 강릉단오제 ]

- 한국에선 단오 때 병이 많이 나는 시기라서 쑥과 익모초 뜯기, 창포로 머리 감기 등의 문화가 있었어요.
- 단오날 강원도 강릉지역에서는 단오제례, 강릉 단오굿, 관노가면극, 시 낭송을 비롯한 다양한 의례와 놀이가 개최되고, 전국 최대 규모 노천시장인 난장도 벌어져요. 강릉단오제는 김유신 장군을 대관령산신으로 모신답니다. 강릉단오제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속에서도 계속 전승되어 왔어요.



##### [ 중국: 용선 경주행사 ]

- 중국에선 단오날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여러 가지 풍습이 있었어요. 쑥이나 창포를 문에 매달고 향주머니를 차고 종이 공예품을 창문에 붙이고, 쫄즈(粽子, 찹쌀과 여러 재료를 갈대잎이나 대나무잎에 싸서 찐 음식)를 먹는답니다. 중국에선 단오날에 역사 속 인물을 기념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굴원을, 어떤 지역에서는 오자서를 기념해요.
- 용선(龍船, 용 모양의 배) 경주 행사는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열리는 흥겨운 축제로서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요. 중국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단오날 용선 경주행사를 즐겨요. 같은 단오날 하는 의례와 놀이로 한국에선 강릉단오제가, 중국에선 용선 경주 행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예요.



### 활동내용

창포로 머리감는 풍습 사진 찾아보기

강릉단오제 행사 찾아보기

용선 경주행사 사진 찾아보기



◀ 한국의 강릉단오제 <sup>37)</sup>

<사진 출처: KOREA.NET(FLIKOR) ©해외문화홍보원  
(촬영: JEON HAN), CC-BY-SA 2.0>



▲ 중국 단오날 용선축제 <sup>38)</sup>

<사진 출처: HUPAI'S HOMEPAGE, DOUYIN ©FJHUPAI >



▲ 일본 단오날 잉어깃발 걸기 문화 <sup>39)</sup>

<사진 출처: FLIKR, © SÉBASTIEN BERTRAND, CC-BY 2.0>

일본 단오날(남자 어린이날) 걸어 놓는 잉어깃발 사진 찾아보기

중국과 베트남에서 단오날먹는 찹쌀음식 사진 찾아보기

### [ 일본: 남자 어린이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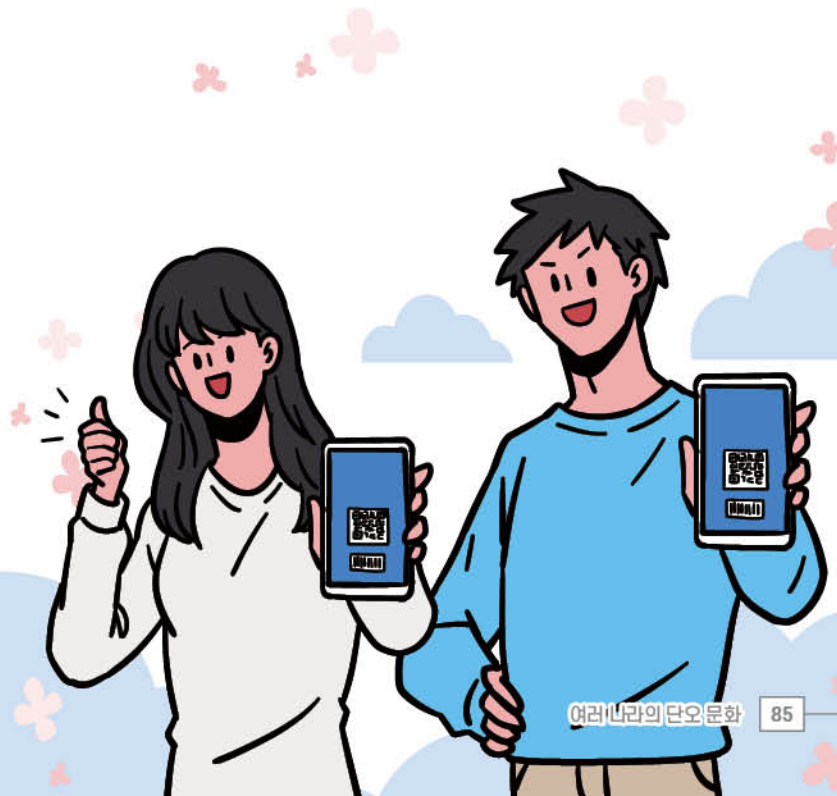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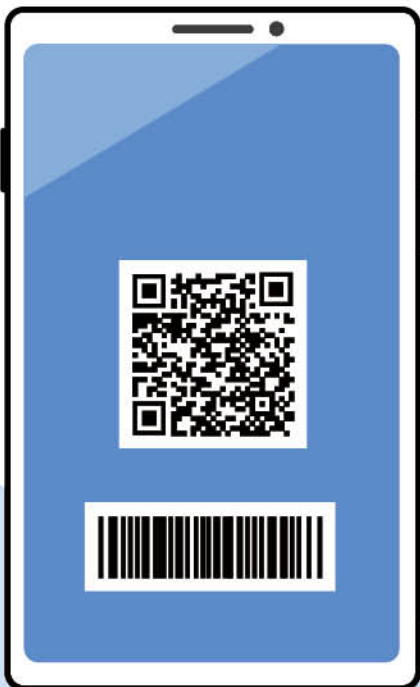
- 일본에선 예전에는 단오날 중국이나 한국처럼 약초를 뜯거나 창포를 쓰다가, 에도시대 부터 남자아이의 건강과 출세를 비는 어린이날이 되었어요.
- 즉 일본에서 단오날은 이제 남자 어린이날이에요. 이 날 집안에는 무사 인형을 장식하고 집밖에는 잉어 깃발(고이노보리)을 매달아 바람에 날리게 해요. 일본에는 여자 어린이날은 3월 3일로 따로 있습니다.

### [ 베트남: 단오날 명절놀이 ]

- 베트남에서도 단오날을 '뗏 도안 응오'라고 부르면서 설날 다음으로 큰 전통 명절로 여겨요. 해충을 죽이는 날이라고도 표현한답니다. 베트남에선 찹쌀로 만든 '바잉 찌'나 찹쌀술밥 등 음식을 해서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가족이 모여 제사지내고 약초를 뜯어요. 한국에서 창포잎으로 머리를 감듯 베트남에선 찻잎으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기도 해요.

■ 관련 자료 및 사이트 참고

<p>유네스코한국위원회 (<a href="https://www.unesco.or.kr">https://www.unesco.or.kr</a>)</p>	<p>SCAN ME </p>
<p>문화재청 (<a href="https://www.cha.go.kr">https://www.cha.go.kr</a>)</p>	<p>SCAN ME </p>
<p>국립문화재연구원 (<a href="https://www.nrich.go.kr">https://www.nrich.go.kr</a>)</p>	<p>SCAN ME </p>
<p>국가문화유산포털 (<a href="https://www.heritage.go.kr">https://www.heritage.go.kr</a>)</p>	<p>SCAN ME </p>
<p>한국문화재단 (<a href="https://www.chf.or.kr">https://www.chf.or.kr</a>)</p>	<p>SCAN ME </p>



## 단오 삼각책 만들기

### ◆ 수업의 흐름

모둠별로 나라별 단오 행사를 조사해 삼각책을 만들어 미니 전시장을 꾸밉니다. 전시된 작품 혹은 발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나라별 단오 행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 [ 1차시 - 삼각책 만들기 ]

- 4인 1개 모둠 구성하기
- 모둠별 주제 뽑기: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4개국의 단오 유래, 음식, 놀이, 기타풍습

한국 단오 유래	중국 단오 유래	일본 단오 유래	베트남 단오 유래
한국 단오 음식	중국 단오 음식	일본 단오 음식	베트남 단오 음식
한국 단오 놀이	중국 단오 놀이	일본 단오 놀이	베트남 단오 놀이
한국 단오 기타 풍습	중국 단오 기타 풍습	일본 단오 기타 풍습	베트남 단오 기타 풍습

(\*학급 구성원이 많을 경우 강릉단오제 조사 모둠을 만들어 운영하기. 또는 한국, 중국 조사 모둠 증설)

- 개인 자료 조사 : 학생용 사전 조사지 배부(학생활동지 6-1)
- 삼각책 만들기(개별) : 모형 제시(학생활동지 6-1 단오 삼각책 만들기 도안 참조) -> 합체 -> 꼭지점에 국가 깃발 달기

(\*같은 주제는 같은 색의 색지를 써서 삼각책 만들기. 이후 나라별 합체, 주제별 합체 가능)



<사진 제공: 이성영>

### [ 2차시 - 4개국 단오 문화 비교해보기 ]

- 전시 및 모둠별 발표하기
- 모둠 발표를 들으며 < 학생활동지 6-2 > 1번 작성하기, 간단한 퀴즈로 확인하기
- < 학생활동지 6-2 > 2번 풀고 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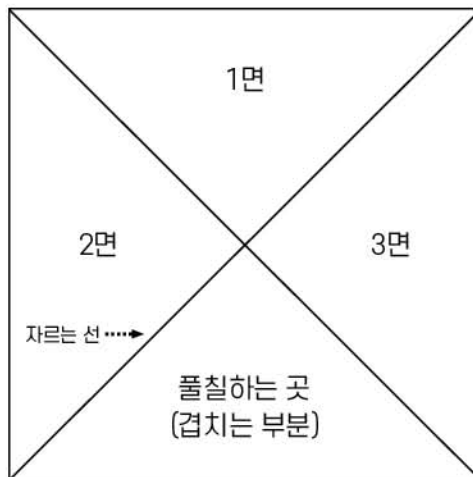


## 사전 조사 활동지

주제 :		학년 반 번 이름:
<b>①</b> 면	<b>②</b> 면	<b>③</b> 면
< 사진 또는 그림 >	< 사진 또는 그림 >	< 사진 또는 그림 >
<내용 요약>	<내용 요약>	<내용 요약>

## 단오 삼각책 만들기 도안

정사각형으로 접어 자르기



## 4개국 단오 문화 비교해 보기

1. 모둠 발표를 들으며 4개국 단오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날짜				
유래				
음식				
놀이				
기타				

2.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차이점





## 교과별 활동 및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계 6

(여러 나라의 단오 문화)

교과	교과별 활동	교과별 교육과정 핵심역량 및 핵심 아이디어 연계	
국어	☞ '춘향전'에서 단오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교과 역량	• 자료·정보활용 역량 • 문화 향유 역량 • 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
	☞ 단오날이 등장하는 문학작품 알아보기	핵심 아이디어	인간은 문학을 향유하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영어	☞ 아시아의 다양한 단오 소개하는 5분 영상 영어로 시나리오 만들기	교과 역량	• 지식정보처리 역량 • 자기관리역량 • 공동체 역량 • 영어 의사소통 역량
		핵심 아이디어	적절한 사고 과정 및 전략을 활용해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한다.
사회 / 역사 / 지리	☞ 나라별 단오 주요행사 알아보기 및 따라해보기	교과 역량	• 창의적 사고력 • 비판적 사고력 •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 정보 활용 능력
	☞ 단오날을 설명하는 역사자료 살펴보기		
	☞ 아시아 '단오 문화지도' 간단히 만들어보기. 나라마다 돌아가며 축제 계획하기	핵심 아이디어	장소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문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
음악	☞ 단오 노래 배우기 영상 보기(국악TV 참조)	교과 역량	• 감성역량 • 창의성 역량 • 자기주도성 역량 • 공동체역량 • 소통역량
	☞ 나라마다 다른 단오 문화를 노래가사로 직접 만들어보기	핵심 아이디어	음악적 수용과 반응은 인간의 감수성과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과학 / 기술 / 가정	☞ 단오 때 먹는 썩, 창포로 머리감기 등이 왜 과학적으로 몸에 좋은지 알아보기	교과 역량	•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 • 과학적 탐구와 문제해결능력
	☞ 단오 때 먹는 수리취떡 혹은 창포물, 창포비누 등 만들어보기	핵심 아이디어	기술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혁신적인 문제 해결 활동으로 인류 문명을 주도하고 사회·문화·경제 등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미술	☞ 단오날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미술작품 알아보기	교과 역량	• 심미적 감성 역량 • 시각적 소통역량 • 정체성 역량
		핵심 아이디어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맥락적 이해와 비평은 미적 판단 능력을 높인다.
체육	☞ 단오날 민속놀이(씨름, 그네, 딱지치기 등)를 경쟁형 스포츠로 바꾸어 활동해보기	교과 역량	• 움직임 수행역량 • 건강 관리 역량 • 신체활동 문화 향유 역량
		핵심 아이디어	인간은 스포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함으로써 움직임의 즐거움을 느끼고 활동적인 삶의 태도를 배운다.

※교육부,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 이 사례로 어떤 추가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더 읽을거리와 연결)

\*\*\*  
활동 1

강릉 관노가면극 영상 시청

\*\*\*  
활동 2

단오날에 하는 용선축제(드래곤보트 축제) : 중국, 홍콩, 베트남 등 영상 시청

\*\*\*  
활동 3

단오 문화 영상을 보여주고 어느 나라인지 맞춰보기

\*\*\*  
활동 4

왜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는지 알아보기

\*\*\*  
활동 5

각국의 새해맞이 행사나 8월 추석행사를 같은 방법으로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보기

\*\*\*  
활동 6

문화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기

☞ 더 읽을거리 (27) 문화다양성: 평화적 공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

☞ 더 읽을거리 (28)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서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선 문화다양성의 구현

☞ 더 읽을거리 (29) 문화는 고정된 화석이 아니라 변화한답니다

☞ 더 읽을거리 (30) '국가'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인간과 공동체 중심으로 사고하기

☞ 더 읽을거리 (31) 공동의 문화와 정체성: 유럽 사례

\*\*\*  
활동 7

한국과 중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11) 한국과 중국의 문화유산

☞ 더 읽을거리 (15) 유산의 '기원'보다 공동체가 부여하는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  
활동 8

국가와 국민과 민족의 관계가 왜 복잡한지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10) 유네스코 유산은 오직 한 국가의 유산일까요?

☞ 더 읽을거리 (12) 국가와 국민과 민족: 복잡한 관계

☞ 더 읽을거리 (13) 일본과 중국에서 국가-국민-민족

☞ 더 읽을거리 (14) '나와 우리 나라'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다양한 가치의 존중으로

☞ 더 읽을거리 (30) '국가'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인간과 공동체 중심으로 사고하기

‘씨름’이 남한과 북한 공동의 문화유산이라고요?

## 유산 공동등재 해보기



### 어떤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까요?

- 질문(1): 유산은 한 나라, 한 민족만의 것인가요?
- 질문(6): 유산에 대해 집단이나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네스코는 뭘 할 수 있나요?
- 질문(7): 남한과 북한은 비슷한 유산이 있나요? 서로 도우며 유산보호를 하기도 하나요?
- 질문(8): 문화는 한 나라에만 속하나요?  
여러 나라와 민족이 문화를 공유할 수도 있나요?





## 무엇을 배우나요?



### 수업준비 확인

학습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등재와 공유유산 이해하기</li> <li>• 남북한이 공유하는 문화 알아보기</li> </ul>
수업관련 핵심 키워드	공동등재, 남북한, 공유유산
수업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식</li> <li>■ 모둠별 토의학습</li> <li>■ 개인별 및 모둠별 과제수행</li> </ul>
자료 및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자료</li> <li>■ 읽기 자료</li> <li>■ 인쇄된 수업 활동지 및 채색도구, 가위 등</li> <li>■ 디지털 도구</li> </ul>
수업분량	2차시 + 활동에 따라 확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 뒷부분에 추가로 '더 읽어보기' 있음</li> </ul>

※ 일러두기: 마지막 부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별 활동, 그리고 '더 읽을거리'와 연계한 추가 심화활동이 있으니 함께 보면서 수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 수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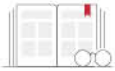
주제	지도 내용
평화로운 공존에서 유산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씨름을 공동등재한 과정 알아보기</li> <li>▶ 남북한이 공유하는 유산</li> <li>▶ 유네스코는 공동등재를 장려해요</li> <li>▶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한의 협력</li> </ul>
남북한이 공유하는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냉면을 먹어볼까요?</li> </ul>
여러 나라의 공동등재 사례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사냥: 공동등재 모범사례</li> <li>▶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한·일 공동등재</li> </ul>
활동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유산 비교 놀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과 북한 씨름 비교하며 씨름해보기</li> </ul> </li> <li>▶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미니북 만들어보기</li> <li>▶ 공동등재 찾아보기 활동</li> <li>▶ 나는 공동등재유산 큐레이터: 공동등재 놀이해보기</li> </ul>



## 주제별 내용 이해하기

### 평화로운 공존에서 유산의 역할

▶ 씨름을 공동등재한 과정 알아보기



#### 이야기 펼치기

##### ■ 남북한이 최초로 공동등재: 평화 정신을 세계에 보여줌

- 여러분, 씨름은 누구나 아시죠? 씨름이 우리 문화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 혹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것도 아시나요? 더구나 남한과 북한이 최초로 유네스코에 공동등재한 유산이에요. 그 과정이 유네스코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 잠깐 보기로 해요.
- 북한이 먼저 2015년에 유네스코에 씨름을 등재신청했고, 남한이 2016년에 등재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유네스코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2018년 4월 남북한의 판문점 회담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 분위기가 활발해졌고, 문화유산 공동등재를 통해 평화를 보여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북한은 모두 유네스코에 씨름 공동등재 요청을 했고, 2018년 11월 만장일치로 공동등재가 받아들여졌어요. 씨름이 남한과 북한에서 가지는 문화적 의미가 같다는 게 인정된 거예요.
- 씨름의 공동등재는 여러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답니다.<sup>40)</sup> 남북한이 최초로 유네스코에 공동등재한 유산이고, 처음엔 각자 신청하고 나서 남한과 유네스코가 함께 협력하며 공동등재를 하게 된 특별한 사례였고, 유네스코에서도 각자 등재신청한 걸 공동등재로 받아들인 건 처음이었어요. 남한과 북한이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었는데도 씨름 문화가 비슷하다는 게 인정되어, 문화적으로 공동체라는 걸 보여준 거죠. 문화유산을 통해 전 세계에 평화로운 공존 정신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어요.



#### 활동내용

남한과 북한의 씨름 사진 찾아보기



이번 공동등재는 남북 화해의 길에서 매우 상징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문화유산이 가진 평화구축의 힘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남북 양측이 오랫동안 이어온 깊은 유대관계의 승리입니다.

2018년 11월 남북한 씨름의 공동등재 후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발언



##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유산의 역할

- ▶ 남북한이 공유하는 유산   ▶ 유네스코는 공동등재를 장려해요
- ▶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한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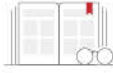


### 활동내용

지중해식 식문화를 공동등재한 나라들을 찾아보고, 지중해식 식문화의 특징 찾아보기

북한 유산 등재를 위해 남북한이 협력한 사례 알아보기

더 읽을거리 (25): 북한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남북한 협력



### 이야기 펼치기

#### ■ 남북한이 공유하는 유산

- 남한과 북한은 분단되어 70년 넘는 시간 동안 단절된 채 생활해왔지만 여전히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생활문화도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북한의 문화유산 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건 총 4개예요. ‘조선민요 아리랑(2014년)’, ‘김치 담그기 전통(2015년)’, ‘씨름(2018년)’, ‘평양냉면 풍습(2022년)’인데, 이중 씨름은 남한과 공동등재했고, 아리랑과 김치 담그기 문화는 남한과 공유하는 무형문화유산이지만 따로 등재했어요.
- 씨름 공동등재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을 통해 전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답니다.

#### ■ 유네스코는 공동등재를 장려해요.

- 유네스코는 유산이 한 국가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유산임을 알려주고자 국가들의 공동등재를 장려한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유산이나 문화는 한 나라나 민족 혼자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나 민족, 집단이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해요.
- 세계유산도 공동등재를 할 수 있고, 후에 살펴볼 인류무형문화유산 ‘매사냥’은 무려 11개 나라가 공동등재하고서 계속 추가로 7개의 다른 나라들이 공동등재에 합류했구요, 또 7개 나라가 공동등재한 ‘지중해식 식문화’도 있어요.

#### ■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한의 협력

- 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 관계는 계속 변해왔지만 1990년부터 남북한은 함께 유물전시회, 공동발굴조사 등을 계속해 왔어요.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경험이 좀더 많은 남한이 북한의 유산이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 되도록 협력하면서 교류한 사례도 많답니다.



## 남북한이 공유하는 문화

▶ 함께 냉면을 먹어볼까요?



### 이야기 펼치기

#### ■ 우리 모두 즐겨먹는 냉면

- 여러분은 냉면을 먹어보셨나요? 어떤 맛의 냉면을 좋아하시나요? 평양냉면은 북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음식 중 하나예요. 한국에서도 평양냉면은 대중적으로 즐기는 음식이고,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선 평양냉면 맛집을 찾아 목록을 만들고 맛을 비교하는 문화도 생겼어요. 남한의 평양냉면 문화는 한국전쟁 때 피난온 분들을 통해 들어왔고, 최근엔 북한이탈 주민들이 개업한 음식점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 사실 냉면뿐 아니라 북한의 황해도 굿과 북청사자놀음도 피난민을 통해 남한에 전해져서 전승되고 있답니다. 이렇듯 남한과 북한은 공유하는 문화가 많아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남북한의 평화교류와 세계평화에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북한의 평양냉면 풍습에 대해 알아보아요. 평양냉면은 메밀로 면을 뽑고 시원한 고기 육수나 동치미 국물을 부어 고기와 김치, 야채 등을 곁들여 올린 음식으로 주로 놋그릇에 내놓아요. 평양냉면은 평양사람들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정월대보름 전날 가족이나 이웃이 모여 함께 먹으며 긴 국수가락처럼 오래 살기를 함께 빌기도 하고, 생일이나 결혼식 때 친척·이웃·친구에게 평양냉면을 대접하기도 해요. 이젠 특별한 날 외에도 평소에 먹기도 하고 전문식당도 많이 생겨났어요. 집안에서 할머니나 어머니를 통해 자녀들에게 평양냉면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기도 하고, 식당, 요리경연대회, 축제 등에서 기술을 전수하기도 해요.



### 활동내용

한국의 평양냉면 음식문화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 냉면에 무엇을 넣어 먹는지, 어떤 반찬과 함께 먹는지, 주로 어떨 때 먹는지 이야기해보아요.



옥류관 평양냉면 41)

< 사진 출처: Flickr ©Uri Tours, CC-BY-SA 2.0 >

## 여러 나라의 공동등재 사례 알아보기

▶ 매사냥: 공동등재 모범사례



### 활동내용

매사냥 사진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



### 이야기 펼치기

#### ■ 매사냥은 여러 나라가 공동등재한 ‘공동의 유산’이에요!

- 여러분은 매를 훈련시켜서 야생 동물을 잡는 ‘매사냥’이라는 우리나라 풍습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문화는 무려 18개 나라(2023년 기준)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예요. 놀라운 건, 이 나라들이 각각 등재신청을 한 게 아니라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했다는 거예요. 이 사례는 어떤 문화가 하나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예요. 지금도 계속 다른 나라들이 추가로 공동등재에 참여하고 있어요.
- 즉 어떤 문화가 한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끝이 아니고 계속 여러 나라에서 “우리도 그런 문화 있으니까 함께 참여할게요”라고 신청해서 추가로 공동등재가 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랍니다. <sup>42)</sup>

#### ■ 4천 년 이상 전승된 문화

- 인류역사에서 4천 년 이상 전승된 매사냥 문화는 현재 60개 이상의 나라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 매를 잡아서 길들인 후 겨울에 사냥을 하는데, 매를 길들이는 동안 매 주인은 매방에서 매와 함께 지내며 친해지고, 매사냥은 팀을 구성해서 한답니다. 매사냥은 매사냥꾼들이 서로 공감과 이해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전통이에요. 매사냥은 식량 확보를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동료애 가치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 나라에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즐기고 있어요. 매사냥 문화 전승을 통해 공동체들의 정체성이 더 풍부해진답니다.



19세기 카자흐스탄에서 매사냥 <sup>43)</sup>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PD-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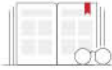


오스트리아의 매사냥 <sup>44)</sup>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CC-BY-SA 4.0 International, ©Bo.botonés>

## 여러 나라의 공동등재 사례 알아보기

▶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한·일 공동등재



### 이야기 펼치기

#### ■ 한국과 일본의 민간이 주도해 공동등재를 이루어냈어요.

-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을 들어보셨나요? 임진왜란 이후 국교 회복을 위한 일본의 요청으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12회 파견된 외교사절단 기록이예요. 이 교류가 이루어진 약 200년간은 양국간 전쟁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고 해요. 이 건 세계사를 통틀어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기록의 의미가 크게 인정받아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17-19세기 한일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로 등재되었어요.
-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이 기록물을 공동등재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져요. 1910년부터 일본 학계에선 이 기록을 연구했고, 제일 한인 역사학자가 기록영화를 만들어서 1979년 일본에 알렸어요. 영화를 보고 감명받은 일본인이 1980년 대마도 전통축제에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했어요. 그러자 이 행렬에 감명받은 한국의 부경대 총장이 2001년 '조선통신사행렬재현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부산바다축제에서 처음으로 행렬을 재현했어요.
- 이렇게 민간에서 열정적으로 서로 알리면서 2013년 마침내 본격적으로 한·일이 모여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약 40년 동안 양국 국민이 서로 관심과 열정에 감동받아서 이루어낸 성과인 거죠!

#### ■ 오랜 토론으로 입장 차이도 극복하고 평화적 유산으로 남겼어요.

- 그런데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민감했던 내용은 “일본의 토요일미 히데요시가 조선국에 출병한 이후”라는 표현인데, 한국은 ‘출병’이 아니라 ‘침략’ 표현을 요구했어요.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올바른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 영문 뿐 아니라 일본 신청서에도 ‘침략’으로 표기하자는 한국의 요청을 일본이 토론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 양국은 민감한 용어에 대한 입장 차이까지도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양국의 소중한 평화적·지적 유산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어요. 평화적 공존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양국 문화교류의 기록을 더욱 의미있게 보존할 수 있게 된 거죠.



### 활동내용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아요.

전쟁을 겪고 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파견된 통신사라고 생각하고, 조선과 일본 역할을 맡아서 서로 교류하는 놀이활동을 해보아요.

## 남북한 유산 비교 놀이활동

- ◆ 남한과 북한 씨름 비교하며 씨름해보기     ◆ 남북한 유산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해보기
- 남한과 북한의 씨름 살바잡기 차이를 알아보고(남한은 앉아서, 북한은 일어서서) 남한식, 북한식으로 씨름해 볼까요?

**참고: 통일부 전격탐구 북한씨름 이야기 (카드뉴스)**

[http://www.unikorea.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02&mode=view&cntId=54123](http://www.unikorea.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02&mode=view&cntId=54123)



-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있는 남북한의 아리랑, 김치담그기 풍속에 대한 소개를 찾아보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아요.

김치담그기	
유사성	
차이점	

학습활동지 (5)  
'김치'와 연결

남북한이 공유하는  
문화에 대한 다른 사  
례도 찾아보기

아리랑	
유사성	
차이점	

##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미니북 만들기



- ◆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등재 과정 영상 시청하기
- ◆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내 문화 교류 분석하기
- ◆ 미니북 만들기 활동

●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내 문화 교류 미니 북 만들기 ※점선- 절취선(B4 확대 출력해 활용)


## 공동등재 찾아보기 활동

- 서로 다른 나라가 유네스코에 공동등재한 사례를 조사해 특징, 그리고 유산에 담긴 가치를 서술해 봅시다.



[관련 자료 및 사이트]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활동 전 QR 코드를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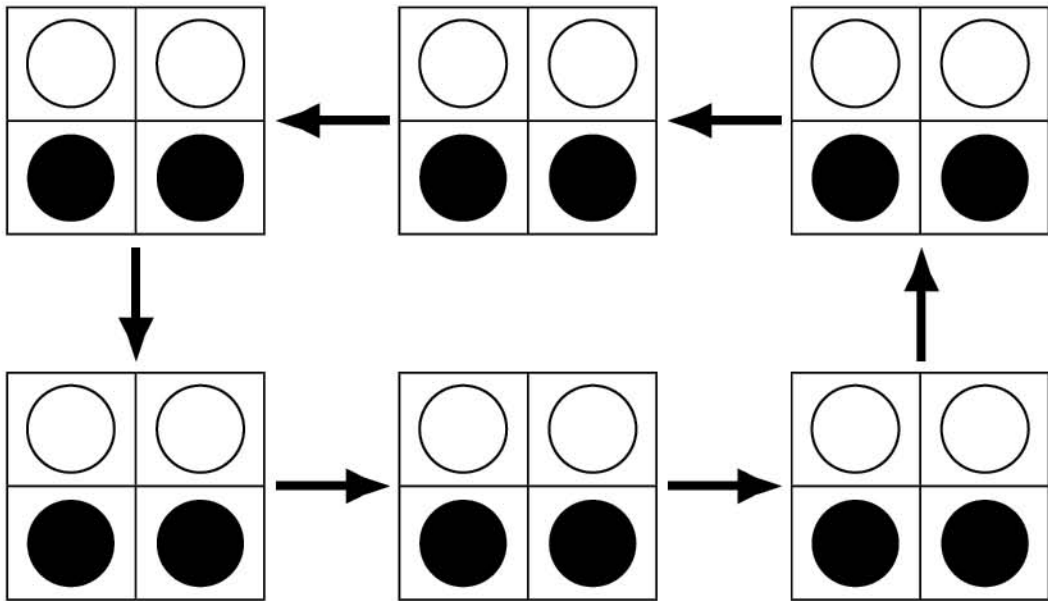
활동에 대한 자신의  
감상문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지도합  
니다.

<p>(사례 1:                    )</p>	<p>특징 :</p>
	<p>가치 :</p>
<p>(사례 2:                    )</p>	<p>특징 :</p>
	<p>가치 :</p>

## 나는 공동등재유산 큐레이터! 공동등재 놀이해보기

◇ 수업 모형도

칠판(교실 앞)



### [수업 방법] 돌 가고 돌 남기

1. 각 모둠에 남아 모둠에서 등재한 공동 유산을 설명할 큐레이터 2명을 결정한다.  
(예시: ● 큐레이터 역할 학생)
2. 각 모둠을 돌면서 다른 모둠의 내용을 취재할 기자 역할 2명을 결정한다.  
(예시: ○ 기자 역할 학생)
3. 기자 역할을 맡은 학생은 화살표 방향대로 이동해 다른 모둠의 공동 유산 내용을 취재한다.
4. 모둠에 남아 있는 큐레이터 학생은 자신이 등재한 유산에 대해 설명한다.
5. 기자, 큐레이터 학생은 각 2분씩 발표한다.
6. 모든 모둠의 내용을 다 얻을 때까지 발표를 진행한다.
7. 원래 모둠으로 돌아와 각자 배운 내용을 공유한다.

## 학생활동지 7-4

[내용 정리]: 모둠별 발표 내용을 듣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모둠	모둠
----	----

모둠	모둠
----	----

모둠	모둠
----	----





## 교과별 활동 및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계 7 (유산 공동등재 해보기)

교과	교과별 활동	교과별 교육과정 핵심역량 및 핵심 아이디어 연계	
국어	☞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고, 같은 문화를 어떻게 다르게 부르는지 알아보기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정보활용 역량</li> <li>의사소통역량</li> <li>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li> <li>문화 향유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국어는 체계와 구조를 갖춘 의미 생성 자원이자, 사회적으로 구성된 관습적 규약이며, 공동체의 사고와 가치를 표상하는 문화적 산물이다.
영어	☞ 씨름이나 냉면, 김치를 남북한이 공동등재한다고 생각하고 신청 이유를 영어로 작성해보기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정보처리 역량</li> <li>자기관리역량</li> <li>공동체 역량</li> <li>영어 의사소통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담화나 글로 표현하는 활동은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포용적으로 상호 소통하며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사회 / 역사	☞ 국가 간 공동등재된 세계유산 목록 찾아보기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 사고력</li> <li>비판적 사고력</li> <li>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li>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인간의 신념 및 활동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한다.
지리 / 사회 / 문화	☞ 세계유산 지도를 통해 공동등재유산 찾아보기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 사고력</li> <li>비판적 사고력</li> <li>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li>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인류는 공동의 번영과 공존을 위해 지역적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까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상호 협력 및 연대가 필요하다.
미술	☞ 인류무형문화유산 한 가지를 골라서 서로 다른 나라의 무형문화를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예: 남북한의 냉면음식문화, 남북한의 씨름, 여러 나라의 지중해식 식문화, 여러 나라의 매사냥 등)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미적 감성 역량</li> <li>시각적 소통역량</li> <li>정체성 역량</li> <li>창의 융합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표현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시각화하는 창의적 사고와 성찰의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부,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 이 사례로 어떤 추가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더 읽을거리와 연결)

활동 1

전 세계적인 스포츠나 종목이 나라마다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조사하기

☞ 야구와 크리켓, 축구와 미식축구 등

활동 2

유산과 관련된 국제 협력 사례: 문화유산 ODA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24) 국제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화해와 치유의 유산보호 활동

활동 3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남북한이 공유하는 한반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북한 소재 문화유산을 찾아보고 그 가치에 대해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25) 북한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남북한 협력

☞ 더 읽을거리 (26) 남북한의 아리랑 비교

활동 4

유네스코 유산 등재 기준과 절차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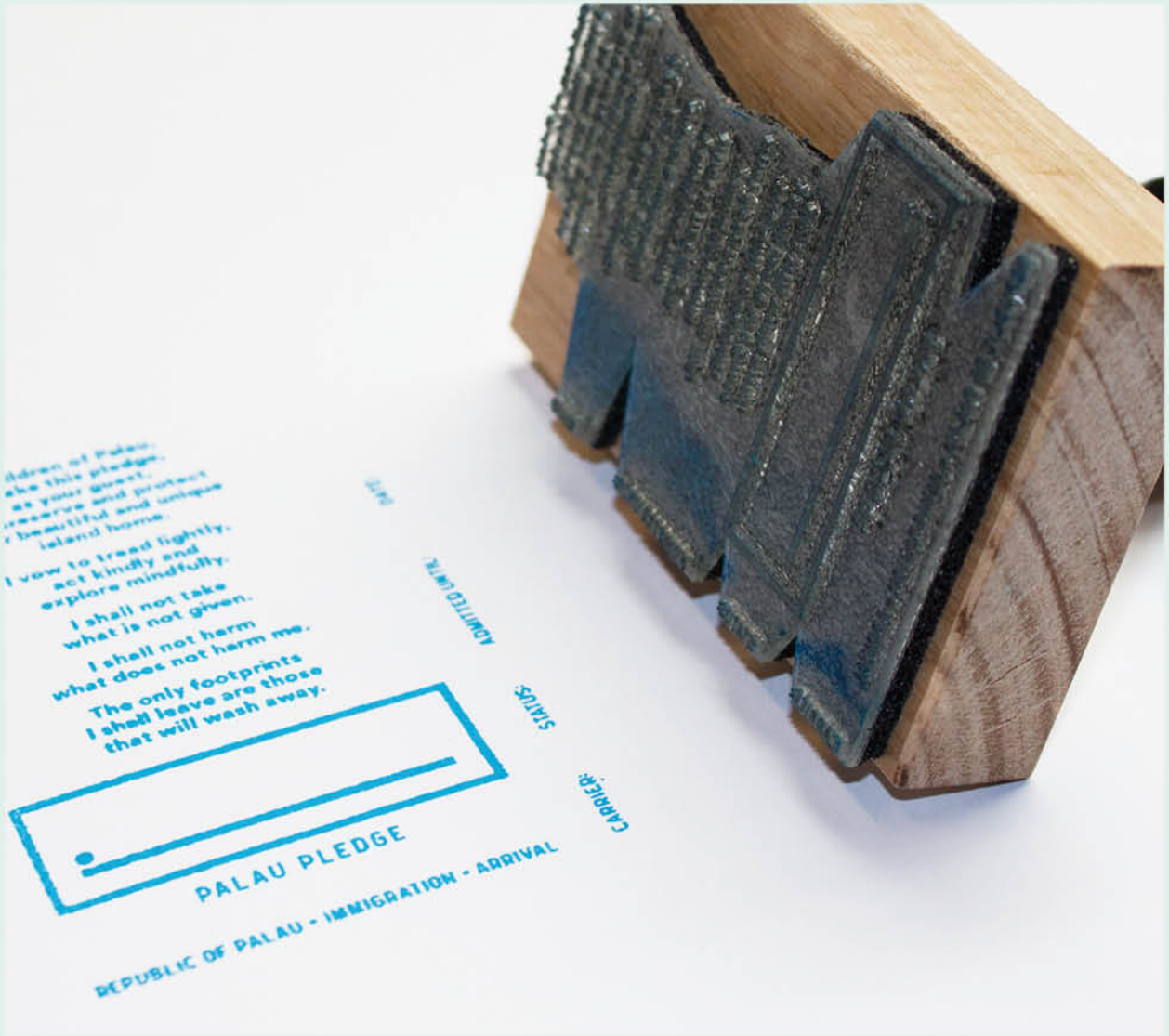
☞ 더 읽을거리 (6)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기준

☞ 더 읽을거리 (7)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과정과 절차



자연과 문화를 파괴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만  
관광할 수 있는 나라

## 팔라우



<사진 출처 : 태평양관광기구 공식 블로그>

### 어떤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까요?

- 질문(11):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만 파괴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 질문(12): 유산을 보호하려면 관광은 무조건 막아야 할까요?





## 무엇을 배우나요?



### 수업준비 확인

학습 주제	팔라우 사례를 통해 유산보호와 관광의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성 생각해보기
수업관련 핵심 키워드	유산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성, 인간과 자연, 지구와 동물의 권리
수업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명하며 중간중간 간단한 퀴즈-활동하기</li> <li>■ 모둠별 토의 토론 학습    ■ 개인별 및 모둠별 이야기하기</li> </ul>
자료 및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영상 자료    ■ 읽기 자료    ■ 디지털 도구</li> </ul>
수업분량	1차시 + 활동에 따라 확장 가능 ■ 교재 뒷부분에 추가로 '더 읽어보기' 있음

※ 일러두기: 마지막 부분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별 활동, 그리고 '더 읽을거리'와 연계한 추가 심화활동이 있으니 함께 보면서 수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 수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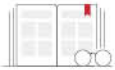
주제	지도 내용
'신들의 바다 정원' 팔라우 입국 체험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라우 입국할 때 시청해야 하는 영상 보기</li> <li>▶ 팔라우 입국하며 서약해보기</li> </ul>
팔라우에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라우에선 선크림을 아무 거나 쓰면 안 된다고요? 팔라우 방문객이 할 수 없는 것을 알아볼까요?</li> <li>▶ 팔라우에서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다고요? 팔라우 방문객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볼까요?</li> </ul>
유산 보호를 하려면 관광은 무조건 막아야 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과 자연·문화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도 있어요</li> <li>▶ 지속가능한 관광, 책임있는 관광 사례 알아보기</li> </ul>
지구와 동물도 법적 권리를 가진다고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과 자연은 연결되어 있어요</li> <li>▶ 지구와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한 나라도 있어요</li> <li>▶ 자연유산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한다고요?</li> </ul>
활동해보기	▶ 우리만의 '팔라우 서약' 만들기



## 주제별 내용 이해하기

### ‘신들의 바다 정원’ 팔라우 입국 체험해보기

▶ 팔라우 입국할 때 시청해야 하는 영상 보기



#### 이야기 펼치기

-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4시간 50분 가면 도착하는 태평양의 ‘팔라우’라는 나라는 입국할 때 비행기 안에서 꼭 봐야 하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사진 출처 : 태평양관광기구 공식 블로그>

- 56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팔라우’는 너무나 풍경이 신비로워서 ‘신들의 바다 정원’이라고 불려요.
- 인구는 2만명이지만 1년에 방문객이 20만 명이 넘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입국할 때 비행기 안에서 꼭 봐야 하는 영상에는 거인이 나와요. 이 거인은 바로 여러분 같은 방문객을 상징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팔라우에 온 거인이 이 곳의 사람과 자연을 아낄 줄 모르고 여기저기 망가뜨리다가, 아이들로부터 서로를 아끼며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내용의 영상이랍니다.



#### 활동내용

영상 찾아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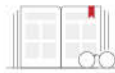
## ‘신들의 바다 정원’ 팔라우 입국 체험해보기

▶ 팔라우 입국하며 서약해보기 <sup>45)</sup>



### 활동내용

팔라우 서약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서약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사진에 서약하며 팔라우 보호에 동참해 볼까요?



### 이야기 펼치기

팔라우에 입국할 때는 여권에 ‘팔라우 서약’이 찍히는데, 모든 방문객은 여기에 직접 싸인을 해야만 입국이 허가된답니다.

#### 팔라우 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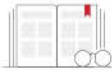
**“팔라우 어린이 여러분,  
저는 방문객으로서 여러분의 아름답고 독특한 섬 나라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자연을 해치지 않고, 친절하게 행동하며, 주의해서 여행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갖지 않겠습니다.  
저를 해치지 않는 대상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직 남기게 될 것은  
물에 씻겨 나갈  
발자국 뿐입니다.”**



<사진 출처 : 태평양관광기구 공식 블로그>

## ‘신들의 바다 정원’ 팔라우 입국 체험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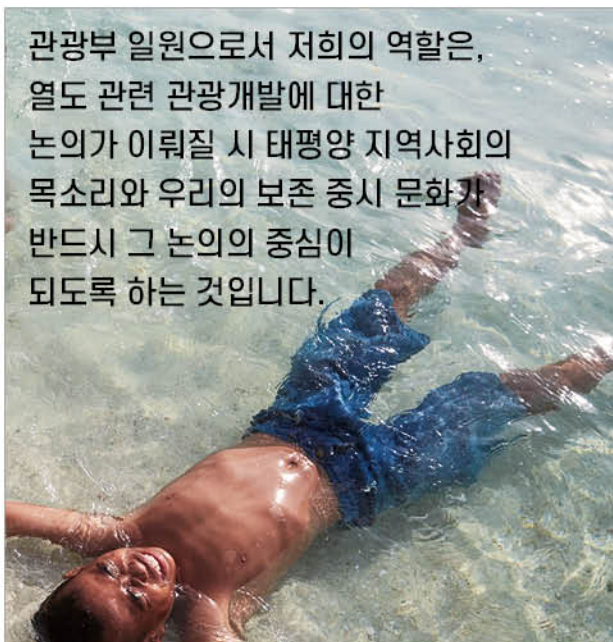
▶ 팔라우 입국하며 서약해보기



### 이야기 펼치기

■ 멋진 팔라우 서약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놀랍게도 팔라우 어린이들이 초안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서약에 서명하면서 모든 방문객은, 팔라우에서 자연도 문화도 파괴하지 않고 책임감있는 관광객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게 됩니다.



**팔라우는 책임감있게 섬을 즐기는 법을 알려주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팔라우 서약은 팔라우인들과 방문객 간 연결고리를 형성해주며 또한 모두에게 자연환경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태평양관광기구 공식 블로그>

## 팔라우에서 할 수 없는 것

▶ 팔라우에선 선크림을 아무 거나 쓰면 안 된다고요? 팔라우 방문객이 할 수 없는 것을 알아볼까요?

### 활동내용

산호초에 안전한 선크림에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기

팔라우 상어 관련 사진과 영상 찾아보기

### 이야기 펼치기

해양생물을 기념품으로 모으지 마세요



Don't collect marine life souvenirs

물고기와 상어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Don't feed the fish and sharks

산호를 만지거나 밟지 마세요



Don't touch or step on coral

수영할 때는 오리발이 산호 위를 스치지 않게 하세요



Don't drag fins over coral when swimming

정원에서 과일이나 꽃을 따지 마세요



Don't take fruit or flowers from gardens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쫓지 마세요



Don't touch or chase wildlife

<그림 출처: 팔라우 관광청>

■ 팔라우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선크림 사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한 나라예요. 산호와 해양 생물을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 팔라우는 세계 최초로 상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배타적 경제구역에선 모든 상어 낚시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종의 상어를 만날 수 있답니다.
- 팔라우에서 수영할 때는 오리발이 산호 위를 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산호를 만지거나 밟으면 안 돼요. 일회용 플라스틱과 스티로폼도 쓰면 안된답니다.



## 팔라우에서 할 수 있는 것

▶ 팔라우에서 스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다고요? 팔라우 방문객이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까요?



### 이야기 펼치기

팔라우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보세요



Do learn about  
the culture and people

다른 이들의 관습을 존중하도록  
해주세요



Do get others to  
respect the customs

팔라우의 사업체들과 지역사회들을  
지지해주세요



Do support  
local businesses  
and communities

산호초에 안전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세요



Do use reef-safe sunscreen

<그림 출처: 팔라우 관광청>



### 활동내용

팔라우 해파리호수  
사진 찾아보기

팔라우 스쿠버다이  
빙과 스노클링 사진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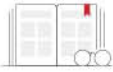
### ■ 팔라우에선 금지된 것만 있는 게 아니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 팔라우 원시림엔 무려 약 1,400종의 식물이 있고, 바다에는 746종의 어류, 385여 종의 산호, 최소 13종의 상어와 쥐가오리가 살아요. 특히 2,200만 마리의 독성 없는 해파리가 서식하는 해파리 호수는 팔라우에서 가장 놀라운 자연 환경 중 하나예요. 팔라우는 상업적 낚시 대신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등 지속가능한 형태의 생태관광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인답니다.
- 팔라우는 관광객들에게 팔라우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의 가게들과 지역공동체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요. 팔라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관광을 통해 이 나라의 문화와 자연에 대해 배우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 유산 보호를 하려면 관광은 무조건 막아야 하나요?

▶ 유산과 자연·문화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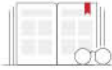
### 이야기 펼치기

- 우리는 흔히, 유산을 ‘파괴’하지 않고 ‘보호·보존’하려면 가능한 한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방문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관광’은 유산 보호와 대립된다고 여기게 되죠. 그런데 유산으로 지정되어 관광이 활성화되는 건, 유네스코 보호협약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요. 유네스코 협약의 목적은 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오히려 중요한 건, 유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는 거예요.
- 유산 관광은 다른 문화의 대표적 유산을 경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어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 되기도 해요. 문제는 관광 개발이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지나치게 이루어지거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거예요.
- 만일 관광객은 많이 몰려드는데 정작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점점 가난해지거나 거길 떠나야 한다면, 이건 결코 지속가능한 관광이 아니에요. 지속가능한 관광은, 현지 주민과 공존하면서 문화와 유산도 보호하는 관광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함께 이렇게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고, 팔라우는 바로 이것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팔라우에서는, 관광 개발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팔라우 사람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팔라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관광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지속가능한 관광, 책임있는 관광 사례 알아보기



### 이야기 펼치기

- 우리는 팔라우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찾아볼 수 있어요. 관광은 문화·유산 보호와 대립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관광을 통해 관광객이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고, 관광 수익이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sup>46)</sup>



**코스타리카**는 산림을 베지 않고 재생가능한 자원을 사용해서 국가 전기 사용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친환경 숙박시설과 고래관찰탐험 등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여행사를 선정하는 인증제도** 도입했어요.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는 무려 1,200km의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여행자들은 **지속가능 프로그램인 '싱크서스테이너블리(Think Sustainably)'**를 통해 친환경 호텔, 채식주의 식당, 중고 상점을 찾아 방문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포르투갈령 섬 아소르스 제도**는 유럽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너무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칼데라 벨하 온천'은 입장객 수를 제한**해서 환경을 보호해요.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화산국립공원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고릴라가 사는데, 르완다는 이 곳을 지키기 위해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방문객에게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알려줘요.

입장객이 낸 비용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을 연결시켰어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는 매년 300만 명이 넘는 전세계 방문객으로 인해 유산이 훼손되거나 지역주민의 삶이 침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앙코르와트 정부는 문화유산 관광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가 살아갈 방법을 고민한 끝에,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경제적 수익이 지역 공동체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단순히 관광을 막고 무조건적 '보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광의 문제점을 줄이면서도 유산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을지 현지 주민과 함께 길을 찾아나가는 사례랍니다.



### 활동내용

여기 나온 사례 중 하나를 찾아서 내가 직접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한다고 생각하고 여행계획 짜보기

## 지구와 동물도 법적 권리를 가진다고요?

▶ 인간과 자연은 연결되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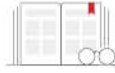


### 활동내용

우리 주변,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의 토착 지식이나 지혜 중 환경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기

토착민의 전통지식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세계의 흥미로운 사례들을 알아볼까요?

☞ 더 읽을거리 (39), (40)



### 이야기 펼치기

“ 삶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복원한다는 것은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함께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Maffi, L. & Woodley, E. 2010 <sup>4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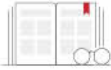


### ■ 인간과 자연, 문화와 생물은 완전히 다른 걸까요?

- 우리는 흔히, 자연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고, 생물과 문화는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곤 해요. 정말 그럴까요?
- 생물다양성은 문화다양성과도 연결되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세계 원주민이나 토착민이 갖고 있는 전통지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라 자연과 생물을 지켜줌으로써 지구와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해녀는 암초의 위치와 조개류 서식지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자기만의 바다 지도가 있고,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채취합니다.

## 지구와 동물도 법적 권리를 가진다고요?

▶ 지구와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한 나라도 있어요.



### 이야기 펼치기

#### ■ 지구와 강,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한 나라들이 있어요 <sup>48)</sup>

- 여러분은 우리 인간만이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물이나 강, 숲, 지구는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 한국에서 2003년 색다른 소송 사건이 있었어요. 경상남도 천성산에 있는 꼬리치레 도롱뇽들이, 산을 뚫는 경부 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고 소송을 냈어요. 놀랍죠? 도롱뇽이 직접 할 수 없으니 '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대신 소송을 냈답니다. 법원에서는, 동물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동물은 법적 자격이 없는 게 당연해 보이시나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지구나 강,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 활동내용

도롱뇽 입장에서 법정에서, 산을 뚫는 고속철도 건설 공사 종단을 요청하는 주장을 해보기



<사진 제공: 최상원>



꼬리치레 도롱뇽 <사진 제공: 임경숙>

## 지구와 동물도 법적 권리를 가진다고요?

▶ 지구와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한 나라도 있어요.



### 활동내용

지구의 법적 권리를 찾아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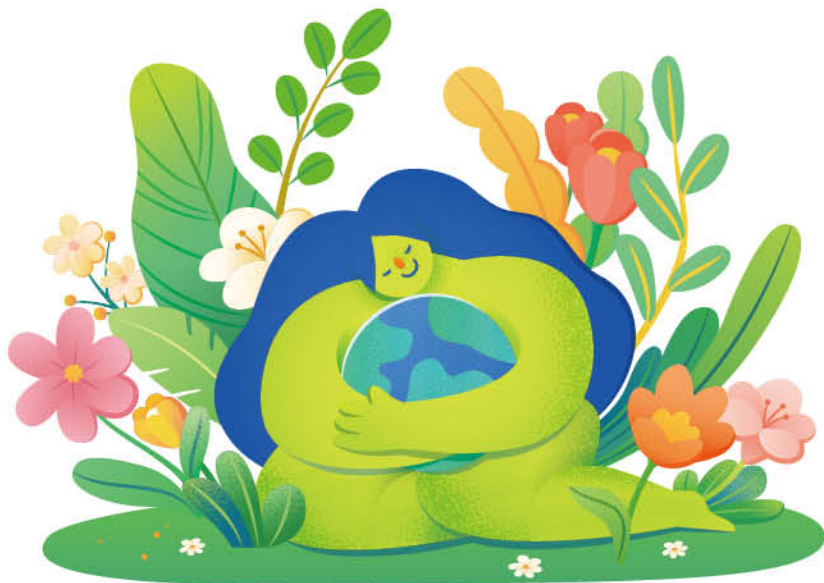
☞ 더 읽을거리 (37)



### 이야기 펼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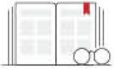
#### ■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법은 '어머니 지구'의 법적 권리를 인정했어요

- 지구에게 법적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나라들이 있다는 걸 상상해보신 적이 있나요?
- 에콰도르는 '어머니 지구'라는 뜻의 '파차마마(pachamama)'의 법적 권리를 2008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넣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 전체에 대한 법을 한 나라에서 만든 거지요. 우리는 사실 자연과 인간을 따로 생각하면서,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죠. 에콰도르 헌법은, 그런 생각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 볼리비아도 2011년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어머니 지구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오염되지 않을 권리, 존재하고 생존할 권리,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 균형을 해치는 개발 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자연에 대해 인정했어요.
- 안데스 산맥 주변에서 살아가는 에콰도르나 볼리비아 사람들은, 인간이 지구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의 수많은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추구하는 삶은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적 관계, 내적인 평화를 중요시하는 삶입니다.



## 지구와 동물도 법적 권리를 가진다고요?

▶ 자연유산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한다고요?



### 이야기 펼치기

#### ■ 자연이 우리 보호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러분은 '자연을 보호하자'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자연이 우리 보호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연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환경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자연 그리고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파괴로부터 보호하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자연유산은 환경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보루가 되기도 합니다. <sup>49)</sup> 유산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기도 해요.
-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보호구역들은 육상에서는 그린 카본(산림이 흡수한 탄소), 해상에서는 블루 카본(해양 생태계가 흡수한 탄소)을 저장하고 있어요. 갯벌은 육상보다 최대 50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점을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갯벌은 약 1,300 만 톤의 블루카본을 저장하고 있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바다는 생태다양성과 평화적 공존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sup>50)</sup>



### 활동내용

갯벌이 가진 가치를 찾아보기  
 ▶ 한국의 갯벌 세계 유산 등재추진단 사이트 참고



## 우리만의 '팔라우 서약' 만들기

-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우리 학교에 '팔라우 서약'과 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 친구들과 함께 '팔라우 서약'에 대응하는 우리의 '서약'을 만들어볼까요?
- 방문객이 이 '서약'을 가장 잘 지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팔라우 서약	우리 학교 서약	실천방식 (규칙 위반시 대안)
■	■	■
■	■	■
■	■	■
■	■	■

### 관련 자료 및 사이트



◆ 팔라우 서약 홈페이지  
<https://palaupledge.com>



◆ 팔라우 입국행 비행기에서 보는 영상:  
<https://palaupledge.com/media/>





## 교과별 활동 및 교육과정 핵심역량 연계 8 (팔라우)

교과	교과별 활동	교과별 교육과정 핵심역량 및 핵심 아이디어 연계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팔라우 관광을 간다고 생각하고 가상으로 관광체험기를 써보며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 생각해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료·정보활용 역량</li> <li>비판적·창의적 사고역량</li> <li>의사소통역량</li> <li>문화 향유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필자는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글을 쓴다.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팔라우 관광을 간다고 생각하고 가상으로 관광체험기를 영어로 써보며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 생각해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정보처리 역량</li> <li>공동체 역량</li> <li>자기관리역량</li> <li>영어 의사소통 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담화나 글로 표현하는 활동은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적이고 포용적으로 상호 소통하며 의미를 표현하거나 교환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사회 /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와 자연과 동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해외 사례들 찾아보기: 더 읽을거리 (37)</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 사고력</li> <li>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비판적 사고력</li> <li>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li>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인간의 신념 및 활동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한다.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팔라우 관광을 간 내 모습을 상상하며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미적 감성 역량</li> <li>정체성 역량</li> <li>시각적 소통역량</li> </ul>
		핵심 아이디어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맥락적 이해와 비평은 미적 판단 능력을 높인다.
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도에서 팔라우를 찾아보고 해파리 호수, 산호초 등 사진을 찾아보기</li> <li>안데스 산맥과 에콰도르, 볼리비아 찾아보고 어머니 지구 법 내용 알아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적 사고력</li> <li>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li> <li>비판적 사고력</li> <li>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li> <li>정보 활용 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지표상에는 다양한 기후 특성이 나타나며, 기후 환경은 특정 지역의 생활양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왜 팔라우에서 어떤 선크림은 산호초에 유해하다고 하는지 과학적으로 알아보기</li> <li>산호초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다른 제품도 찾아보고 이야기해보기</li> </ul>	교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적 의사결정 능력</li> <li>과학적 탐구와 문제해결능력</li> </ul>
		핵심 아이디어	과학기술은 자원과 에너지 등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한다.

※교육부,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 이 사례로 어떤 추가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더 읽을거리와 연결)

\*\*\*  
활동 1

지속가능발전이란 어떤 뜻인지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 생각해보기

▶ 더 읽을거리 (32) 지속가능발전: 인류 공동의 목표

▶ 더 읽을거리 (33)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모든 분야는 연결되어 있다

\*\*\*  
활동 2

지속가능발전은 유산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34) 유산과 지속가능발전의 결합 사례: 함께 배우며 능력을 키우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 더 읽을거리 (35) [학생활동지] 내가 사는 지역 유산투어 스탬프 만들며 지속가능한 관광 생각해보기

\*\*\*  
활동 3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메타버스로 하는 디지털 유산관광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36) 디지털 유산 관광의 지속가능성  
[학생활동지: 디지털 관광 가상체험해보기]

\*\*\*  
활동 4

환경위기와 기후 변화가 지속가능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 더 읽을거리 (38) 환경 위기와 지속불가능성 위기

\*\*\*  
활동 5

관광은 유산 보호와 꼭 대립되는 것일까? 지속가능한 관광 개념 알아보기

학습활동지 1 울룰루-카타추타

▶ 더 읽을거리 (35) [학생활동지] 내가 사는 지역 유산투어 스탬프 만들며 지속가능한 관광 생각해보기

▶ 더 읽을거리 (36) 디지털 유산 관광의 지속가능성  
[학생활동지: 디지털 관광 가상체험해보기]





더 읽을거리

---

**1부**  
**유네스코와 유산**

## 전쟁 속에 피어난 평화의 꽃, 유네스코

“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하여  
인간과 인종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유네스코 헌장' (1945) 중 일부

”

- 혹시 유네스코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랍니다.
-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 10월 24일에 창설된 국제기구예요. 2차 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심의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등의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 전쟁이었죠. 1억 1,000만 명의 병사가 참전해 2,700만 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500만 명이 희생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이었습니다. **유엔은 바로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랍니다.**
- 유엔은 때로는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유엔군을 파병하기도 하지만 이런 군사적 개입은 예외적이예요. 주로 국제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한답니다(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노동기구,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등). 유네스코도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로서 1945년 11월에 설립되었어요. **유네스코는 군사·경제적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적·문화적인 방식으로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문화 이해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 모색

- <더 읽을거리 (1)>에 있는 '유네스코 현장'에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유네스코 현장에서 특히 주목해주시길 부분은, 이 전쟁이 서로의 풍습과 생활, 즉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겨났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전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서로의 마음에 대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해야만 참혹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선언,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 현장'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예요.
- 유산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대화의 통로이며, 유산 보호는 다양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평화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유산 보호 정책은 문화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제활동이에요.
- 유산 보호는 더 이상 인류사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노력입니다.



##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네스코 등재유산인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어떻게 다를까요? 각 유산마다 특성에 맞게 보호제도도 만들어졌으니, 우리 각 유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볼까요?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 어떤 계기로 그 유산을 보호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생겨났는지, 각 유산의 목적과 범주, 등재 기준, 첫 해 등재된 대표적 사례를 비교해 봅시다. 특히 첫 해에 등재된 사례는 각 등재유산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우리는 각 유산의 등재 기준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 표-1 ] 유네스코 등재유산 종류별 비교

	세계유산(1972)	세계기록유산(1992)	인류무형문화유산(2003)
<b>발생 계기</b>	아스완 하이 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처한 이집트 누비아 유적을 보호하고자 1959년 국제사회가 '누비아 캠페인'을 진행하며, 중요한 유산을 보호할 체제 필요성 제기됨.	1992년 8월 25일 보스니아 국립 도서관이 내전으로 폭격을 맞아 책 150만 권 소실됨. 기록유산이 담고 있는 인류의 기억을 보호할 필요성 제기됨.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 중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 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새롭게 인식 확대로 시작됨
<b>간단한 정의</b>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 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뉨.	전세계 민족의 집단 기록이자 인류의 사상, 발견 및 성과의 진화 기록.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b>목적</b>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보호 활동을 통해 보편적 인류 유산 파괴를 막고, 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나라별 유산 보호 활동을 도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을 적절한 기술로 보존</li> <li>■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과 보존 필요성 증진</li> <li>■ 신기술을 통해 기록유산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향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li> <li>■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 도모</li> </ul>
<b>유산 범주 및 유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 유적, 건축물,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장소 등</li> <li>■ 자연유산: 생물학적 군락, 지질학적 생성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서식지 등</li> <li>■ 복합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자로 기록된 것 (책, 필사본, 포스터 등)</li> <li>■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 (지도, 악보 등)</li> <li>■ 비문 ■ 시청각자료</li> <li>■ 인터넷 기록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li> <li>■ 공연 예술</li> <li>■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li> <li>■ 전통 기술</li> </ul>
<b>주요 등재 기준 (키워드 정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탁월한 보편적 가치</li> <li>■ 진정성 ■ 완전성</li> <li>■ 보존관리 계획 수립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성</li> <li>■ 완전성</li> <li>■ 세계적 중요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li> <li>■ 관리계획</li> <li>■ 공동체 참여</li> </ul>
<b>첫 등재 연도</b>	1978년 12건 등재	1997년 38건 등재	2001, 2003, 2005년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 등재
<b>첫해 대표 등재물 사진</b>	<p>갈라파고스 제도(에콰도르)</p> 	<p>훈민정음(해례본) (한국)<sup>51)</sup></p>  <p>&lt;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Kbarends, PD-self &gt;</p>	<p>쿠티아탐 산스크리트어 연극(인도)<sup>52)</sup></p>  <p>&lt;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Sajiraju, CC-BY 3.0 &gt;</p>
<b>유네스코 정신과 연관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의 유산(shared heritage)을 통한 세계시민공동체 형성</li> <li>■ 평화구축(peace building)</li> </ul>		

## 유산에 대한 관점의 변화(1): 전문가와 유럽 중심에 대한 반성

- 유산에 대한 관점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변화를 겪어왔어요. 그만큼 유네스코에서 인류 유산에 대해 계속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자기반성을 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모색해 왔다는 뜻이죠. 세계유산 보호체계가 세계기록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계유산제도를 대표로 해서 유산 관점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해요.
- 유네스코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계유산 제도를 전세계에 널리 확산하고자 했어요.
  - 그렇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까지도 세계유산 등재의 대부분은 유럽이나 유럽 관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었답니다.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전문가가 많고, 그 전문가들은 유럽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성이 이루어졌어요.
  - 그래서 세계유산에 대한 관점을 질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생겨났어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을 통해 4C 전략을 내세웠어요: 신뢰성(Credibility), 보존(Conservation), 역량(Capacity), 대화/소통(Communication)



- 2003년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문화다양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통과되었어요.
  - 이제 세계유산은 더 이상 유럽이나 유럽인이 진출한 식민지에 많이 분포된 오래된 건축물이나 기념물만이 아니라, 자연환경, 기술, 지식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어요.
  - 특히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했던 무형문화유산도 세계유산의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지요.<sup>53)</sup>

## 유산에 대한 관점의 변화(2): 공동체 당사자의 중요성 인식

-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관점이 변한 것 중 중요한 게 바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 유산, 그리고 유산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 유산을 누리는 공동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게 된 건데요, 이걸 유산에 대한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큰 변화였어요.
-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유산 보호와 가치 전달에 참여하게 되고, 원주민(indigenous people), 여성 공동체, 심지어 유산을 둘러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집단도 유산의 이해 당사자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 유산의 물리적 가치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억하는 일이 현재 유네스코 유산 보호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 이렇듯 유네스코가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문가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그리고 “공동체와 사람 중심으로” 옮겨 왔어요.
- 과거에는 전문가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곧 유산이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다양한 민족과 집단의 구성원이 자기 문화정체성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유산이라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 유산은 더 이상 하향식으로 의미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자기 삶 속에서 의미를 계속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유산의 역할은 치유와 사회적 웰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요.<sup>54)</sup>





##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기준

-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등재기준과 과정을 종류별로 비교하며 알아보까요? 그리고 각 유산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도 살펴보기로 해요.
  - 특히 각 등재유산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훨씬 잘 이해될 것 같아요.
- 유네스코 등재유산 종류인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는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를 보존하고 보호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는 목적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 그렇지만 각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등재기준도 달라요.

### (i) 세계유산의 등재기준

-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등재기준의 핵심이에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인류 보편의 문화 발전 가운데 특정 시대 및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가치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었을 때 세계유산에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세계유산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 기준이랍니다.
  - 그리고 세계유산이 형성되었을 당시 본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가와 연관된 '진정성(authenticity)', 본연의 가치가 얼마나 흠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완전성(integrity)'도 등재기준의 핵심 가치예요.
-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총 10개 목록이 있고, 등재기준 1부터 6까지는 문화유산 관련 기준, 7부터 10까지는 자연유산 관련 기준이에요.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성을 모두 가진 '복합유산'은 1부터 10까지의 등재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요.

구분	기준	사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대한민국 종묘

문화유산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동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대한민국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공통	완전성(integrity):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 (ii) 세계기록유산의 등재기준

-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유산협약을 참조해서 등재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유산과 유사점도 있지만, 기록유산 특성에 맞게 다른 용어를 선택했어요.
  -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진품 유무를 측정하는 진정성(authenticity), 온전한 형태의 구현을 평가하는 완전성(integrity), 그리고 세계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기록물인지 측정하는 세계적 중요성(world significance)이 핵심 기준이에요.

등재기준		세부사항
주요 기준	진정성	유산의 본질과 유래가 정확히 밝혀진 진품일 것
	독창성, 대체 불가능성	특정 시대 및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손실 혹은 훼손될 경우 인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만큼 중요한 유산일 것
	세계적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유산의 오래됨이 아닌, 특정 시대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보여주는지 여부</li> <li>• 장소: 세계사 및 문화에서 중요한 장소에 대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li> <li>• 사람: 인류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li> <li>• 주제와 테마: 과학, 사회학, 예술 등의 발전상에 관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li> <li>• 형식과 스타일: 탁월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지니거나 표현 형식에 있어 중요한 표본이 되는 경우</li> </ul>
보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귀성: 내용이나 물리적 특성이 희귀한 경우</li> <li>• 완전성: 온전히 하나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li> <li>• 위험성: 유산의 보존상태가 각종 위험요소에서 안전하거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li> <li>• 관리계획: 유산의 중요성을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우</li> </ul>	

### (iii)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기준

- 세계유산은 마치 유산 '미인대회'처럼 서구의 기준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유산을 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어요.
  - 그래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이런 비판을 극복하고자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존중을 등재의 핵심 기준으로 했어요.
  - 그 결과, 세계유산 등재는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인류무형문화유산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아시아, 남미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준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기준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기준3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기준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기준5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있을 것

##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 등재과정과 절차

- 이제 유네스코에서 어떤 기준으로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심사하는지 알아보을까요? 여러분이 유네스코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 세계유산과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매년, 기록유산은 2년에 1번 등재 심사가 있습니다. 다만, 세계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아직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한 번도 하지 못한 나라에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다등재 국가에게는 2년에 한 번 등재신청의 기회를 줍니다.
  - 심사는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유산 관련 다양한 공동체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어요.
  - 세계유산 심사 과정에는 현지 방문 실사 조사가 포함되지만,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비디오 제출로, 세계기록유산은 실제 기록물 제출 대신 비디오 및 사진으로 심사를 대신한답니다.

### (i) 세계유산 등재 심사 과정

단계	심사 과정
1	세계유산 등재를 원하는 국가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자국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겠다고 서약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됨.
2	협약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것을 잠정목록(tentative list)으로 작성함.
3	당사국이 잠정목록에서 후보지를 선택함.
4	신청서를 작성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함.
5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뒤, 평가를 위해 자문기구에 보냄(자문기구: 문화유산은 ICOMOS*, 자연유산은 IUCN**). 복합유산 신청서는 IUCN과 ICOMOS 기구에 동시에 전달됨.
6	각 자문기구 전문가들이 후보지를 방문해 등재 신청서 내용을 기반으로 유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유산 보호·관리 상태를 점검함. 복합유산은 자연유산 전문가와 문화유산 전문가가 공동으로 조사함.
7	자문기구는 실사조사를 토대로 신청서를 평가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세계유산센터에 전달함.
8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World Heritage Bureau)위원 7명이 신청서와 평가 내용을 검토한 뒤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함.
9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가 등재, 보류, 반려 또는 등재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함.
참고사항	*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1965년 창립되어 전 세계 역사적 기념물과 유적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전문가 NGO조직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을 심사하고 등재여부를 권고함. **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국제자연보존연맹)은 1948년 창립되어 전 세계 자원 및 자연보호를 지원하는 국제적 NGO조직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등재여부를 권고함.

(ii)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 과정

단계	심사 과정
1	국가가 기록물이나 컬렉션을 세계기록유산 후보로 신청함. 세계기록유산은 국제협약이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협약 가입 절차가 없음
2	신청서를 전달받은 유네스코 사무국이 검토하고, 등재 소위원회(RSC, Register Sub-Committee)가 적격성을 검토한 뒤, 회원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신청 유산을 공개함.  ** 2022년 세계기록유산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특정 국가의 반대가 있으면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를 개시해야 하며, 대화 종료 후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변화가 생겼음. 이는 중국의 난징대학살 문서가 2015년 등재되고 일본군 '위안부' 문서가 기록유산 후보에 오르면서 일본이 유네스코에 적극 건의해 생겨난 변화임.
3	등재 소위원회에서 각 신청서를 세세히 검토하고 필요 시 관련 전문가들에게 추가 의견을 받아 각 신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에 제출함
4	사무국은 선정된 전문가들과 계약을 체결해 평가서를 받고, 권고문을 작성함.
5	최종적으로 국제자문위원회가 권고문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등재를 최종결정함.

(iii)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사 과정

단계	심사 과정
1	세계유산 등재와 유사하게, 무형문화유산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이 먼저 무형문화유산을 선택해 등재 신청서를 제출함.
2	선발된 12개국의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가 이를 심사함.
3	최종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에서 등재를 최종결정함.









## 사례로 살펴보는 유네스코 등재유산

### [학생활동지] 나와 우리의 유산 선정해보기




-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종류별로 주요 특징과 등재기준, 심사과정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아요. 최대한 생생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례를 준비했어요.
  -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마다 각각, 유산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사례, 우리에게 지리적 접근성으로 친숙한 아시아 사례, 그리고 각 유산의 고정관념을 탈피해 등재된 새로운 사례로 구성해서 총 9개씩 풍부하게 사례를 넣었어요.
- 유네스코는 유산이 한 국가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 하고, 등재 과정에 서 각국이 경쟁하기보다는 평화롭게 연대하도록 독려하기 때문에 공동등재를 환영합니다.
  - 우리 다같이 아래 사례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유산 중 어떤 것이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어느 나라 유산과 공동등재할 수 있을지 토론해 볼까요?

#### (i) 사례로 살펴보는 세계유산

- 세계유산은 원래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의 세 종류였는데, 하나의 유산에 자연과 문화 요소가 섞여있고 무형적 가치가 유형 유산에 들어있다는 인식이 점점 생겨났어요.
  - 그러면서 1992년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세계유산에 소개되었어요.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이 만나서 만들어낸 상호관계를 담고 있고, 자연 속에서 인간이 생존해 온 자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가치입니다.
- 세계유산에는 연속유산(serial properties)이란 것도 있는데, 문화·사회·기능적으로 연결되는 둘 이상의 유산을 하나의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 한 국가 내에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여러 국가가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요.
  - 2016년에 7개국이 17개의 유산을 공동 등재한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 모더니즘 운동에 관한 탁월한 기여'가 대표적 사례예요.
- 세계유산에는 또 접경지역유산(transboundary properties, 혹은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로 월경(越境) 유산이라고도 함)이란 것도 있어요.
  - 여러 국가 영토에 걸쳐져 있는 유산을 뜻하는데,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비아워비에자 숲'(Bialowieza Forest)은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영토에 걸쳐있는 접경지역유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 접경지역유산(월경유산)은 바로 유산이 어느 한 나라 영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주지요. 우린 흔히 유산은 어떤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그 나라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접경지역유산입니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세계유산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사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그리스 / 1987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미국 / 1979	마추픽추 역사 보호 지구 페루 / 1983
			
아시아에 있는 세계유산 사례	석굴암과 불국사 한국 / 1995	무릉원 중국 / 1992	타이산 중국 / 1987
			 <small>&lt;Photo by Junyao Yang on Unsplash&gt; 55)</small>
전형성을 탈피한 새로운 세계유산 사례	연속유산	불편문화유산	월경유산/접경지역유산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 일본 / 2015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독일 나치 강제수용소 및 집단학살수용소 (1940-1945) 폴란드 / 1979	피레네 산맥 - 몽 페르뒤 산 프랑스, 스페인 / 1997
	 <small>&lt;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Koji 12, CC-BY-SA 4.0 International&gt; 56)</small>		

(ii) 사례로 살펴보는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사례	라틴어 성경 MS. GKS 4 2° 제1-3권 덴마크 / 2011	1215년에 선포한 마그나카르타 영국 / 2009	니벨룽겐의 노래 독일 / 2009
	 <p>&lt;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The Royal Library, Denmark, PD-old&gt; 57)</p>	 <p>&lt;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University of Minnesot Law Library, PD-old-70&gt; 58)</p>	 <p>&lt;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Badische Landesbibliothek Karlsruhe, PD-old&gt; 59)</p>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존재하는 세계기록유산 사례	투울슬랭 학살 박물관 기록물 캄보디아 / 2009	직지심체요절 한국 / 2001	1893년 여성 참정권 탄원서 뉴질랜드 / 1997
	 <p>&lt;사진 출처: Flickr, ©Robin Kirk, CC-BY 2.0&gt; 60)</p>	 <p>&lt;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Daderot, CC0&gt; 61)</p>	 <p>&lt;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Archives New Zealand, CC-BY-SA 2.0&gt; 62)</p>
세계기록유산의 고정관점을 확장시킨 사례	안네 프랑크의 일기 네덜란드 / 2009	영화 <오즈의 마법사> (1939)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사 제작, 빅터 플레밍 감독) 미국 / 2007	메트로폴리스 지헤룽스투크 Nr. 1 : 2001년 복원판 네거티브 필름 독일 / 2001
	 <p>&lt;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PD&gt; 63)</p>	 <p>&lt;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NBC Television Network, PD-pre1978&gt; 64)</p>	 <p>&lt;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Boris Konstantinovich Bilinsky (1900-1948), PD-Old-70&gt; 65)</p>



(iii) 사례로 살펴보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인류무형 문화유산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사례	<p>탱고 아르헨티나 / 2009</p>  <p>&lt;사진 출처 : Photo by Ardian Lumi on Unsplash&gt; 66)</p>	<p>지중해식 식문화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모로코, 포르투갈 / 2013</p>  <p>&lt;사진 출처 : Photo by Jez Timms on Unsplash&gt; 67)</p>	<p>프레부, 헤시피 카니발의 공연예술 브라질 / 2012</p>  <p>&lt;사진 출처 : Flickr, ©Prefeitura de Olinda, CC-BY 2.0&gt; 68)</p>
	<p>중국 전통 차(茶) 제조 기에 및 관련 풍습 중국 / 2022</p>  <p>&lt;사진 출처 : Photo by Mirko Stödter via Pixabay&gt; 69)</p>	<p>평양냉면 풍습 북한 / 2022</p>  <p>&lt;사진 출처 : KOREA.NET(Flickr) ©해외문화홍보원(촬영: 김순주), CC-BY-SA 2.0 Generic&gt; 70)</p>	<p>가부키 일본 / 2008</p>  <p>&lt;사진 출처 : Photo by Guillermo Gavilla via Pixabay&gt; 71)</p>
	<p>아시아의 문화를 보여주는 인류무형 문화유산 사례</p>	<p>너그러움의 상징 '아랍 커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오만, 카타르 / 2015</p>  <p>&lt;사진 출처 : Photo by Sidhik Keerantakath via Pixabay&gt; 72)</p>	<p>바게트 빵의 장인 노하우와 문화 프랑스 / 2022</p>  <p>&lt;사진 출처 : Photo by Sergio Arze on Unsplash&gt; 73)</p>

## 나와 우리의 유산 선정해보기

- 지금까지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살펴보았는데, 나와 내주변 나아가 지역, 국가,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유형, 무형)을 하나씩 선정하고 보존방안에 대해 말해보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	선정이유:
	보존방안: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	선정이유:
	보존방안:

## 학생활동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

선정이유:

보존방안:

우리나라에  
가장 소중한 유산

선정이유:

보존방안: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

선정이유:

보존방안:

## (심화활동지) 우리 지역 유산 등재해보기

### 교수 - 학습지도안

학습주제	지역 유산 등재 신청하기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유산 등재 기준을 재구성할 수 있다.</li> <li>▶ 유산의 상대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li> </ul>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생각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유산 소개하기</li> <li>▶ 지역유산의 가치 탐색하기</li> </ul>	5분	◇ 사진, 동영상
전개	우리 지역 유산의 가치 재발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유산 조사 발표하기</li> <li>▶ 지역 유산의 가치 탐색하기</li> <li>▶ 지역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 발견하기</li> </ul>	15분	◇ 동영상 자료 ◇ 에듀테크 활용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신청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 등재 신청 유산 선정하기</li> <li>▶ 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하기</li> <li>▶ 발표 자료 스토리보드 만들기</li> </ul>	20분	◇ 모둠별 토의
학습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산 등재 신청서 검토</li> <li>▶ 모둠별 발표 자료 피드백하기</li> </ul>	5분	◇ 모둠 발표 활동은 별도 차시로 운영
지도방법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원 역할이 공평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한다.</li> <li>▶ 발표 자료의 분량은 발표 시간을 고려해 제작하도록 한다.</li> <li>▶ 모둠별로 선택하는 문화유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li> </ul>		

#### [참고사이트]



유네스코와 유산  
<https://heritage.unesco.or.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 다양한 우리 지역 유산 알아보기

**[활동 안내]**

- 유산 지도 및 자료 검색을 통해 우리 지역의 유산에 대해 조사 정리한다.
- 유네스코 등재신청을 추천하고 싶은 유산을 선택해 이유를 적고 발표한다.
- 모둠별 토의를 통해 유산 등재를 신청하고 싶은 유산을 한가지 선택한다.

우리 지역 유산 알아보기

( )모둠		학년 반 이름 :	
유산	[사진 또는 그림]		
	유산명칭		
주요특징			
등재 추천 유산	유산 :		
	추천이유 :		

## 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하기

### [활동 안내]

- 유산 등재 기준을 참고해 선택한 유산의 등재 신청서를 작성한다.
- 등재 신청 대상 유산의 유네스코 이념에 부합하는 가치와 그 내용을 적는다.
- 등재 신청 대상 유산의 등재 타당성을 각각의 등재 기준과 연관 지어 설명글을 적는다.

### 유산 등재 신청서

유산 명칭		
위치 및 면적		
사회·역사 문화적 배경		
유네스코 이념과 가치	이념, 가치	내용
등재의 타당성	관련 등재 기준	신청 대상 유산이 어떤 점에서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가?

신청인 (                  ) 모동 : \_\_\_\_\_  
  년    월    일

## 유산 등재 신청 발표 자료 만들기

### 유산 신청 발표 스토리보드

1. 주제		
2. 목차		
3. 주요 개념		
[PART 1] 구상 개요 :		
장면 1	장면 2	장면 3
발표내용 1	발표내용 2	발표내용 3
[PART 2] 구상 개요 :		
[PART 3] 구상 개요 :		

## 유네스코 유산은 오직 한 국가의 유산일까요?



-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유산'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과 갈등이 생겼던 기억이 많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 어떤 무형유산을 유네스코에 누가 먼저 등재할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나라가 등재하면 우리나라의 유산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 그렇지만 유네스코가 유산 등재제도를 만든 취지는 결코 나라들간의 경쟁이 아니라 민주주의/국제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세계평화를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 유엔이든 유네스코든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주권 국가의 참여와 지원으로 움직이지요.
  - 세계유산도 각 국가가 자기 영토 안에서 세계유산을 발굴해 지정을 요청할 때 비로소 유네스코가 심의할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뒤에도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대체로 국가가 단위가 되지요 (물론 최근에는 여러 나라가 함께 보호하는 사례도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국가는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되어 있죠?
  -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국가'에 대해서도 소속감을 갖게 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외 여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져요.
- 즉 우리는 '국민' 정체성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게 중요하답니다.
  - 때로는 국적과 상관없이 다른 국가나 민족에 대해 운명공동체라고 느끼기도 해요.
  - 예를 들어 재외동포 중에는, 국적은 한국이 아니지만 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이가 많답니다.



## 한국과 중국의 문화유산

- 한국과 중국의 문화유산 중 언론에 많이 나오는 고구려 유적과 김치에 대해 알아보까요?
- 고구려 유적은 북한과 중국이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해서 2004년 모두 등재되었어요.
  - 당시 중국은 동북 변경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계획인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 동북공정을 계기로 중국은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보던 관점을 수정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답니다.
  - 이후 중국은 중국의 고구려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어요.
  - 이걸 사실 기준에 방치되어 있던 유물이 정비되고 보존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어요.
  - 그렇지만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 한반도 북부와 중국의 동북 지역에 걸쳐 있던 고대국가 고구려 지역의 유산을 현재 북한과 중국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하나의 땅을 가졌던 역사가 영토가 분할되면서 서로 다른 유산으로 서술되고 있는 거죠.
- 한국의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어요.
  - 2020년 중국 쓰촨 지방의 염장 채소인 파오차이(泡菜)가 ISO 인증을 받은 후 중국의 한 언론(『환구시보』)에서 “중국이 파오차이 업계 국제 표준 제정 주도: 파오차이 종주국 한국의 치욕”이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한중 김치(파오차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 사실 채소를 절인 음식은 전세계 문화권에서 볼 수 있어요.
  - 다만, 사용하는 재료나 절이는 방법에 따라 음식문화가 달라지는데 파오차이도 그중 하나랍니다.
  - 한국 김치의 경우에는 채소에 동물성 재료를 넣고 ‘발효’한 음식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 중국이 ISO 인증을 받은 것은 김치가 아니라 중국의 염장 채소 파오차이예요.
  - 중국에서 김치가 ‘파오차이’로 번역되면서 중국의 파오차이 ISO 인증이 김치 표준인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 그리고 중국 언론 『환구시보』 기사에서 쓴 ‘치욕’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김치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현상을 한국의 언론에서 보도할 때 쓴 표현을 가져온 것인데, 파오차이의 ISO 인증 소식과 함께 이 표현을 씬으로써 더 오해가 커졌답니다.



## 국가와 국민과 민족: 복잡한 관계

- 국가와 국민, 민족의 관계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유네스코의 목적 그리고 현실적 한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 민족주의<sup>76)</sup>는 혈통, 역사, 언어, 종교, 풍습 등을 포함하는 '민족'이 '국가'와 일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적·정치적 운동이자 정책 목표이기도 해요.
  - 그런데 특히 한국에서 '민족'은 매우 강한 핏줄의 느낌을 주고 오래전부터 당연히 이어져온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 그렇지만 '민족'은 근대에 와서 만들어지고 강화된 개념입니다.
  -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통이나 언어, 역사 의식을 같이 하는 집단은 '종족(種族, ethnic group)'이라고 불러요.
  - '민족'은 '국민'과 서로 겹치기도 하고 일치하지 않기도 해요.
- 같은 민족이라도 각자 처한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다른 민족으로 인식되거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 중국의 조선족이나 미국의 한인동포, 일본의 재일교포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곤 하죠.
  - 또 거꾸로, 서로 다른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같은 민족으로 상상하기도 해요.
  - 예를 들어 한국인은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온 북한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동포와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기에, 서로 다른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상상해요.
  - 그렇지만 유사한 상징과 의례를 공유할지라도 서로 공동체를 상상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앞으로 더 변화는 클 거예요.
- 한국을 '단일민족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안에는 이미 다양한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한국인, 즉 '국민'이 되어 살고 있어요.
  - 또 어떤 한국인들은 한국이라는 주권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한국보다 훨씬 넓은 한민족 공동체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기도 해요.
  - 이는 아마 오랫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뤘던 사람들이 식민지기를 거치며 수백만 명이 해외로 이주해 살고 광복 이후엔 분단되어 있는 상황과도 연관되겠죠.
- 이렇듯 민족과 국민과 국가의 경계는 결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복잡하며, 소속감까지 생각하면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로 인해 나라들 사이에 종종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sup>76)</sup>

## 일본과 중국에서 국가-국민-민족

-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단일민족국가'라는 믿음, 즉 동질적인 민족이라는 믿음이 최근까지도 강했어요.
  - 1985년 나온 『외교청서(外交靑書)』는 “우리나라처럼 1억여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인종, 언어, 문화가 동질적인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희박하다. 단일민족국가라 칭해질 수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특질은 전후 40년간 부흥과 성장과정에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쓰고 있어요.<sup>77)</sup>
  - 그렇지만 실제 일본에는 홋카이도와 사할린에 살던 아이누족과 류큐 왕국에서 살던 오키나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일본 제국 시절에 중국과 조선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많아요.
  - 특히 1980년대부터 수십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신부, 난민에 주목하면서 일본에서는 ‘국제화’, ‘다문화주의와 공생’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민족을 규정하는 방식은 훨씬 더 복잡해요.
  - 중국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漢族)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라고 스스로 말해요.
  - 그리고 중국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합쳐서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 다양한 기원을 갖는 여러 민족이 융합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주장이에요.<sup>78)</sup>
  - 중국의 영역은 팽창과 축소를 반복하면서 점차 확장되어 왔어요.
  - 또 외부 민족이 중국을 정복하며 민족이 때로는 이동하면서 ‘중국인’과 중국 민족 구성도 계속 변화했어요.
  - 중국을 지배했던 다른 민족들이 중국에 융합된 경우도 있고, 외부 민족이 중국을 정복하고서 자신을 중국으로 부르기도 했고, 또 국제 정세에 의해 중국으로 이주해온 민족도 있어요.
  -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되 중국 안에서의 공식 분류는 ‘조선족’이고 국적은 ‘중국인’이에요.
  - 이렇듯 민족과 국민의 관계가 복잡하고, 특히 현재의 중국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구성되었기에, 중국의 ‘민족’ 개념을 알기 위해선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답니다.



## ‘나와 우리 나라’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다양한 가치의 존중으로

- 국가마다 민족을 상상하는 방식이나 국가를 통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유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또 동일한 유산을 두고도 각 국가마다 관점도 다를 거예요.
  - 특히 형체가 불분명한 문화의 경우 더욱 그러하답니다.
-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각국이 처한 상황이나 문화가 다양한 만큼 유산에 대한 시선이 국가별, 집단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 세계유산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유네스코가 현실적으로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 운영된다고 해서 정책적 가치를 국가에 두지는 않아요.
- 세계유산의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 간 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예요.
  - 오히려 지난 반세기 동안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정책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 내부의 더 작은 집단들, 예를 들어 소수민족, 빈민, 여성과 어린이 등 소수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 **저희가 이번 교재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도 여기에 있어요.**
  - **유산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와 우리 나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 그럼으로써 다름을 존중하고, 유산이 우리 모두의 유산이므로 공동으로 책임지며 함께 보호하고 향유하자는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 유산의 ‘기원’보다 공동체가 부여하는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 같은 유산도 공동체마다 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 특히 한·중·일처럼 문화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해 온 국가들 간에 이런 현상이 많아요.
  -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탈 문화는 탈의 상징이나 의례 형식이 유사하지만 탈을 통해 표현하려는 상징적 의미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답니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면, 일본 이와테현의 ‘하야치네 카구라(早池峰神樂)’(2009)나 아키타현의 ‘오가의 나마하게(男鹿のナマハゲ)’(2018)는 둘 다 탈을 사용하는 공동체 의례예요.
  - 그렇지만 ‘하야치네 카구라’는 탈 연극과 춤 등의 연희와 공연이 강조되는 반면, ‘오가의 나마하게’는 탈을 쓴 사람이 악귀를 내쫓는 역할이 강조된답니다.
  - ‘나마하게’와 같은 의례는 북한 함경도에서 이루어지던 북청사자놀이와도 비슷해요.
  - 특히 사자탈은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폭넓게 나타나는 상징물이예요.
- 인류는 항상 교류해 왔기에, 상징‘물’은 국경을 넘어 여러 지역으로 심지어 전 세계로 전파되어 나가요.
  - 그렇지만 그 의미가 상징‘물’과 함께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공동체가 역사문화적 토대 속에서 나름대로 수용하게 되지요.
  -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상징물과 유산이 애초에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보다, 각 공동체가 이 상징물과 유산을 통해 어떤 가치를 드러내면서 정체성을 만들어왔는지입니다.<sup>79)</sup>



## ● 한국의 탈 문화와 보편적 가치 ●

- 한국에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탈 문화유산이 있어요.
  - 2022년 지정된 한국의 ‘탈춤’이 있고, 2009년 지정된 남사당놀이에도 가면극이 포함되어 있어요.
  -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공동체 의례에서 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 그런데 2022년 유네스코가 한국의 탈춤에서 주목한 가치와 의미는 다른 나라 탈 문화의 의미와 전혀 달라요.
  - “전근대 시대의 사회, 계급, 도덕적 모순을 역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풍자해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내용이 담겨있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하고 유형화한 탈을 쓰고 노래와 춤, 연극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단순히 풍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 이런 평가는 유네스코가 2009년 ‘남사당놀이’를 지정하며 내세운 가치와도 비슷해요.
  - 당시 유네스코는 “정치적으로 힘없는 자들을 대변해 풍자로써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삶을 이어가게 하는 평등과 자유의 이상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유네스코가 세계의 수많은 탈춤 중에서 한국의 탈춤에서 찾은 가치는 인권, 평등, 평화(화해)라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 이렇게 볼 때 비로소 한국의 탈춤이 한국만의 것이 아닌 인류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심화활동지〕 등재유산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놀이로 알아보기



<사진 제공: 이성영>



### 무엇을 배우나요?



### 수업준비 확인

학습 주제	놀이활동을 통한 유네스코 등재유산 이해하기
수업관련 핵심 키워드	등재유산, 놀이활동
수업형태	■모둠 대항 게임 ■모둠별 조사 학습 ■개인별 및 모둠별 과제수행
자료 및 준비물	■놀이판, 주사위 ■'세계유산카드' 책 또는 교구 ■읽기 자료
수업분량	2차시 + 활동에 따라 확장 가능



### 수업내용

주제	지도 내용
놀이를 활용한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현장에서의 재미와 배움</li> <li>▶ 간단한 놀이활동을 통한 등재유산 이해하기</li> <li>- 사진카드를 통한 유네스코 유산 이해하기</li> </ul>
놀이로 하는 등재유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사위 게임을 통해 등재유산에 대한 기초 지식 쌓기</li> <li>▶ 놀이판 속 등재유산에 대해 조사해 유산이 겪는 변화 이해하기</li> <li>▶ 유산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파악하기</li> </ul>
놀이판 속 등재유산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활동지를 통해 등재유산의 다양한 모습 알기</li> <li>▶ 자연공원 보존 사업이 가져온 변화 파악하기</li> <li>▶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통해 문화유산 재난 안전 의식 키우기</li> </ul>
학생활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사위 놀이판 ▶ 놀이판 깊이 보기</li> </ul>

## 놀이를 활용한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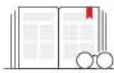
- ▶ 수업현장에서의 재미와 배움
- ▶ 간단한 놀이활동을 통한 등재유산 이해하기
- ▶ 사진카드를 통한 유네스코 유산 이해하기



### 활동내용

유산카드 활용수업  
\*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인류무형문화유산 우선 설명 필요: 더 읽을거리 (6) 참고

'세계유산카드' 책은 교구 준비하기



### 이야기 펼치기

#### ■ 놀이를 통해 수업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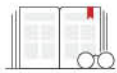
- 놀이를 통한 수업은 차별할 수 있는 교과 수업에 있어서 전략적, 경쟁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키움과 동시에 즐거운 놀이나 활동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입니다.<sup>80)</sup>
- 물론 놀이나 게임을 정교하게 설계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 먼저 간단한 사진카드를 보고 유산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활동을 통해 재미와 의미를 함께 하는 활동을 실시해 봅시다.
- 사진 보고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이름과 유형 맞추기  
- 개별로도 진행가능하며 팀으로도 진행가능
- 구체적으로 등재유산의 이름과 위치, 특징 발표하기  
- 등재유산에 대한 직관적이고 쉬운 이해를 통해 유산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 놀이를 하는 등재유산 활동

- ▶ 주사위 게임을 통해 등재유산에 대한 기초 지식 쌓기
- ▶ 놀이판 속 등재유산에 대해 조사해 유산이 겪는 변화 이해하기
- ▶ 유산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파악하기



### 이야기 펼치기

- 세계유산을 주사위 놀이(보드게임, 153쪽)를 통해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놀이가 반복되면서 놀이판에 적힌 문화유산 내용에 관심을 갖고 놀이 후 조사 활동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 놀이판 내용 중 필리핀 투바타하 리프 자연공원 보존 사업과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은 영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함께 이야기 나누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해 봅니다.
  - 주사위 놀이 진행(짝을 바꿔가서 3회 정도 반복 진행)
  - 우승 팀에 소정의 상품
- 놀이판 핵심 키워드 말하기  
(번개발표: 모든 학생들이 놀이판 내용 중 기억하는 것을 “단어”나 “한 문장”으로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이어서 번개가 휘몰아치듯 발표함. 자신의 순서에서 생각이 나지 않으면 “통과”를 외치고 마지막에 다시 발표해 모두가 활동한 내용을 공유하며 되새기게 함)



### 활동내용

4인 1모둠으로 구성  
후 2인 1팀 만들기

놀이 방법 설명하기  
(주사위를 던져 먼저  
70번에 도착하면 이  
기는 게임임)



## 놀이판 속 등재유산 이해하기

- ▶ 학생 활동지를 통해 등재유산의 다양한 모습 알기
- ▶ 자연공원 보존 사업이 가져온 변화 파악하기
- ▶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통해 문화유산 재난 안전 의식 키우기



### 이야기 펼치기

- 활동지 '놀이판 깊이 보기' 1번 문항 풀기
- 활동지 '놀이판 깊이 보기' 2번 문항 풀기
  - 영상 시청 : 투바타하 리프 자연공원 영상 찾아서 시청하기
- 활동지 '놀이판 깊이 보기' 3번 문항 풀기
  - 영상 시청 : 노트르담대성당 화재 영상 찾아서 시청하기
  - 확장하기 : 문화유산 재난안전 공모 영상 시청
- 활동지 '놀이판 깊이 보기' 4번 문항 풀기
  - 1분 뉴스 만들기(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주제를 1개씩 지정해 주기)



노트르담대성당 복원 모습 <사진 제공: 이성영 >









### 활동내용

학생 활동지

시청각 자료

## 주사위 놀이판

□ 놀이방법: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대로 진행해 70번까지 먼저 도착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주사위 놀이를 하기 전 놀이판의 주요내용을 미리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61/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계곡 유적이	62/	63/ 세계유산 지구에 사는 주민들이	64/	65/ 물에잠길 뽀얀 문화 유산을 전세계가 지켜요	66/	67/ 빨기에 알스트 카니발 일부 내용에	68/	69/ 유네스코 기부금을 냈어요.	70/ 도착!
60/  세계평화와 안녕을 위한 교육 장이 되었어요.	59/	58/	57/	56/	55/	54/	53/	52/	51/ 폴란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는
41/ 고성과 쓰레기 투척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어요.	42/	43/ 이집트 아부심벨 구하기 캠페인으로	44/	45/ 우상숭배 금지라는 이슬람교리를 명목으로 파괴되었어요.	46/	47/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48/ 	49/ 특정인종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어요.	50/
40/  내전으로 파괴되었어요.	39/	38/	37/	36/	35/	34/	33/	32/	31/ 필리핀 투비타하의 산호층을 살렸더니
21/ 사막화로 야생 동식물종이 멸종 위기에 놓였어요.	22/	23/ 남북한 교류에 한걸음 다가갔어요.	24/	25/ 각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합의를 이루었어요.	26/ 	27/ 튀니지의 이스케울 국립공원이	28/	29/ 문화유산 안내글이 너무 어려워	30/
20/	19/ 남북한이 씨름을 공동등재 했어요.	18/	17/ 양코르 와트 사원이	16/	15/ 수백년의 역사가 젓더미가 되었어요.	14/	13/ 멋진 문화유산을 보고	12/	11/ 안 위게 되었.
1/ 출발! 세계유산 알아보기	2/ 	3/ 답사를 갔다가	4/	5/ 나의 이름을 새기고 왔어요.	6/	7/ 쓰레기를 주었어요.	8/	9/ 한일이 조선 통신사를 공동등재 하며	10/ 

## 놀이판 깊이 보기

1. 놀이판을 보고 말이 전진하거나 후퇴하게 된 항목을 정리해 보자.

	전진	후퇴
같은 줄 이동	▶ ▶	▶ ▶
1-2줄 미만 이동	▶ ▶	▶ ▶
2-3줄 미만 이동	▶ ▶ ▶ ▶ ▶ ▶	▶ ▶ ▶ ▶ ▶ ▶

(항목의 내용을 간략하게 하게 써도 되고, 주사위판에 적힌 번호만 쓰게 한 후 발표시 주사위판 내용을 말하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2. 가장 많이 전진한 항목은 무엇이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3. 가장 많이 후퇴한 항목은 무엇이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4. 놀이판 내용 중 관심 있는 내용을 검색한 후 1분 뉴스로 만들어 봅시다.

<예시>

###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사업 진행중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2019년 4월 15일 저녁 첨탑 주변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15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노트르담의 아름다운 상징인 목재 지붕과 첨탑이 완전히 파괴됐고 전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에는 모두 5억5000만 유로(약 7,342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재건은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의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둔 채 기후변화로 점점 상승하는 기온 속에 관광객이 최대한 편하게 관람하도록 하는 데 공사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파리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2024년 프랑스 올림픽에 맞춰 재개장을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

---

---



# 1부: 유네스코와 유산 심화 도서목록

저자	제목	출판사
공봉진 외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세계 문화유산	경진, 2022
노먼 타일러 외 저 김경환 역	문화유산의 보존: 기본원칙에서 실제 활용까지	민속원, 2014
엘자 들라셰르 저 김해니 역	세상의 모든 전통: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각국의 60가지 무형문화재	이숲아이, 202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국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을 묻다	살림터, 2020
이혁진	세계문화유산의 이해	새로미, 2020
조민재	전쟁, 협력, 산업의 키워드로 본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야기	통독원, 2021
최몽룡	세계 문화유산: 글로벌 문화사의 이해	주류성, 2021
홍덕용	세계기록유산 100% 활용하기: 해외 세계대전 편	좋은땅, 2021





더 읽을거리

---

**2부**  
**유산과 평화**

##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지속적 여정: 평화 개념을 넓히다

-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 평화의 상징인 순백의 비둘기를 떠올리시거나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웃으며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습도 생각나죠?
  - 우리 마음속에 평화는 고귀하고 고결한 가치로 느껴지면서도 때론 너무 추상적이어서 닿을 수 없는 이상향 같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유네스코 유산 보호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우리는 유산 보호를 통해 평화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네스코는 다시 세계를 재건하고자 시작되었기에,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 더 이상 인간이 인간과 세상을 파괴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지요.
  - 당시엔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이해했답니다.
  -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겠죠.
  - 또 제2차 세계대전의 특수성이 있었지요? 그건 바로 나치가 인종주의에 기반해 인종을 차별하고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것이었습니다.
- 유네스코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며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 무력 충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 문화의 우월성을 경쟁하는 ‘문화 전쟁’, 그리고 그동안 많은 나라가 행했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인지를 둘러싼 ‘기억 전쟁’도 치열하답니다.
- 이제 유네스코가 지향했던 평화는 더 이상 ‘총돌없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게 되었어요.
  - 유네스코의 ‘평화’는 유산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으로서의 평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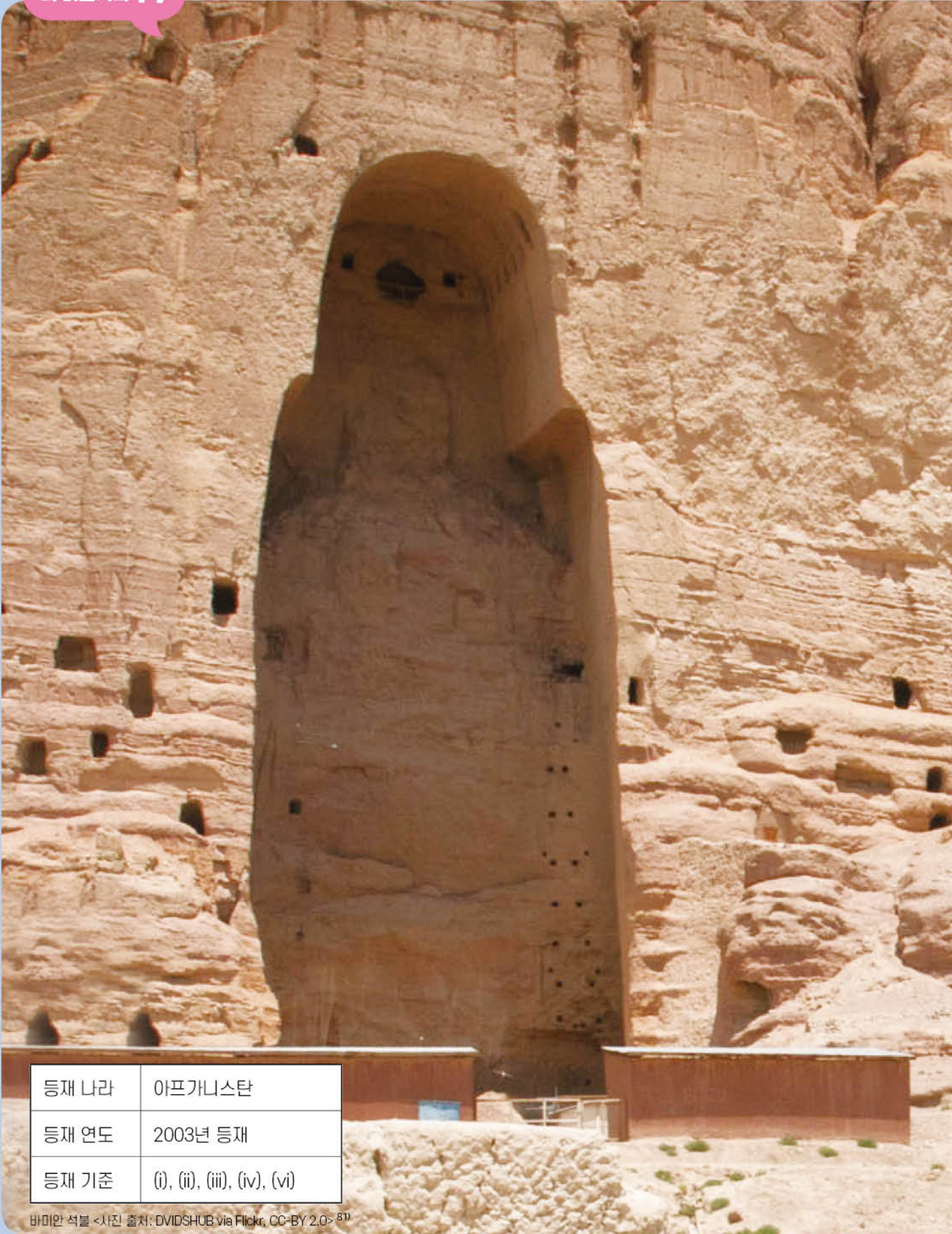


## 전쟁 속 유산 파괴: 유네스코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유산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하는 것은  
지속적인 평화와 인도주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2021년 8월 19일,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발언

-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종교·정치·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무력 충돌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가 있고, 한국도 북한과 휴전 상태이지만 언제나 긴장 상태에 있지요.
  - 전쟁은 치명적 인명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키고, 전쟁을 겪은 사람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 국가나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기록유산도 함께 파괴되지요.
- **최근 주목할 점은,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날 때 국가나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특정 유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이에요.**
  -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뉴욕의 9.11테러 기억하시나요?
  -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항하는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인 알카에다가 일으킨 테러인데, 뉴욕의 상징이던 쌍둥이 빌딩, 즉 세계무역센터 건물 파괴가 실시간으로 방영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 테러로 높은 빌딩이 무너지는 모습은 마치 이슬람과 미국의 전쟁에서 뉴욕의 중심이, 더 나아가 미국이 무너지는 듯한 상징적 효과를 전 세계에 전했어요.
  - 또 2015년 시리아 내전 때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시리아 팔미라의 고대 신전을 폭파했어요.
  - 팔미라 유적은 고대 로마와 그리스, 페르시아 양식이 혼합되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었어요.
  - 시리아 문화의 상징인 팔미라 유적의 파괴는 시리아가 IS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시각적 상징을 전달하게 되었어요.
  - 상대방의 문화와 자연의 부리를 파괴하고 뒤흔들며 전쟁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 전쟁을 통한 유산 파괴는 결국 공동체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등재 나라	아프가니스탄
등재 연도	2003년 등재
등재 기준	(i), (ii), (iii), (iv), (vi)

바미안 석불 <사진 출처: DVIDSHUB via Flickr, CC-BY 2.0> <sup>81)</sup>

## 바미안 계곡의 석불 파괴와 복원

- 바미안 석불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다면 아프가니스칸이란 나라는 들어보셨죠? 탈레반도 들어보셨나요? 바미안 계곡 석불 사례는, 전쟁으로 인한 유산 파괴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유네스코가 평화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왔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 2001년 3월 9일 세계 최대 규모인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석불이 산산조각 났어요.
  - 당시 아프간을 통치하던 탈레반 군사정권이 1500년 된 인류의 문화유산을 향해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서쪽 125km 지점의 바미안 계곡 암벽에 높이 56m와 38m로 새겨진 두 개 마애석불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었어요.
  - 서기 600년 전후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이 불교문화권이었을 당시 만들어진 바미안 불상들인데, 탈레반은 이 불상이 우상숭배라며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석불을 파괴했어요.
  - 앞의 사진 속 뚫려 있는 공간이 바미안 석불이 있었던 자리이고, 그 공간 주변의 수많은 구멍은 탈레반이 폭격한 흔적이에요.
- 이후 아프간 전쟁이 발발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잃은 후 유네스코와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복원을 추진했어요.
  - 특히 유네스코는 이 지역을 2003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위험에 처한 유산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그렇지만 폭약을 이용해 석불이 파괴되어 잔해가 남아있지 않아 본래 모습을 복원하기 어려웠고, 조각들마저 외국으로 밀수출되어 재건이 어려웠죠.
  - 이후 유네스코는 바미안 석불이 있던 자리에 주변 풍광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객을 위한 '바미안 문화센터' 건립 작업을 하고 있어요.
-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2021년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과연 복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유네스코는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 **유산 보호는 단지 유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상황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나요?**
  - **우리는 정치와 유산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유산 보호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비록 바미안 석불을 다시 복원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볼 수 있죠.
  - 2021년 3월 9일에는 석불 파괴 20년을 맞아 석불의 모습을 3D 영상으로 비추는 행사가 열렸어요. (뉴스기사나 영상 찾아보기)
  - 바미안 주민과 사회운동가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 전쟁 없는 평화를 함께 염원했습니다.

## 난징대학살 문서를 둘러싼 논쟁



- 이번에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둘러싸고 일어난 국가 간 갈등에 대해 알아보까요?
- 난징대학살을 들어보셨나요?
  - 중국은 2014년 난징대학살(南京大屠殺) 관련 문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해 2015년 11월 등재되었어요.
  - 난징대학살 문서는 1937년 12월부터 1938년 1월까지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이후 6주간 난징 시민과 중국 군인을 학살한 사실 그리고 1945년 이후 전쟁 범죄자의 재판 관련 기록물이에요.
  - 중국 정부는 난징대학살 당시 30만명 이상이 희생됐다는 난징군사법정 자료를 등재 신청 자료에 포함시켰어요.
  - 그러자 일본은 중국이 등재 신청서에 쓴 30만 명의 희생자 숫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 또 일본은 유네스코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한쪽의 편향된 주장에 따라 등재를 승인했다며 유감을 표시했어요.
  - 하지만 중국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역할이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이 문서가 유네스코 정신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답니다.

중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p>“(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은) 반인도적, 인권침해, 반인류적인 유사한 죄행이 앞으로 재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p> <p>- 2014년 6월 난징대학살 문서 신청 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인터뷰</p>	<p>“이 안건은 일본-중국 간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신청된 것이다. 이것(난징대학살 문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중립적이고 공평해야 할 국제기구로서 문제가 되는 일이기에 극도로 유감스럽다. 유네스코의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요구할 것이다.”</p> <p>- 2015년 10월 10일 가와무라 야스히사 일본 외무성 대변인 담화</p>

- 유네스코의 결정에 대해 세계 최고의 유네스코 분담금 지원국가인 일본은 분담금을 삭감하겠다는 의견도 냈어요.

  - 분담금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네스코는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예요.
  - 그래서 유네스코는 경비 마련을 위해 총회에서 결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유네스코 회원국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운영한답니다.
  - 즉 각국의 분담금은 유네스코 유지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이 삭감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한 거죠.
- 또 일본은 “국제적으로 논쟁이 있는 기록물을 편향된 시선으로 등재하는 것이 유네스코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심사·등재 방식 수정을 요구했어요.

  - 2018년 유네스코에서 이를 받아들여 세계기록유산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2021년 수정안이 발표되었어요.
  - 이제는 국가 간 정치적, 역사적 갈등 소지가 있는 기록유산이 등재신청될 경우, 관련 국가가 그 등재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 간 대화 과정이 진행된답니다.
  - 유네스코 유산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유산 제도의 변화까지 불러 일으킨 특별한 사례죠.
- 유네스코는 이제 세계적 문화 브랜드가 되어서,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유산 관련 정보가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에, 국가들은 서로 다른 기억과 해석을 가진 유산의 등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아름답고 찬란한 인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유네스코 유산 제도가 국제 외교 분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산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 유네스코 유산을 둘러싼 토론이 격렬해지고 때로는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유산의 가치와 평화의 의미에 대해 더 뜨겁게 토론하며 성찰하고 있습니다. 즉 갈등은 꼭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성찰하고 토론하게 해주기도 하지요.

##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왜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까요?



<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Koji 12, CC-BY-SA 4.0 International ><sup>82)</sup>

- 일본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철강, 조선 및 탄광'이라는 이름으로 23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을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일본이 유럽과 미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이룬 산업화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유산으로 지정되었답니다.
- 그런데 이 연속유산에 포함된 곳 중에는 조선인 5만 7,900여 명이 강제 동원되었던 하시마 탄광(군함도)와 나가사키 조선소 등 7개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어요.
-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 징용했다는 역사(1939-1945)를 충분히 밝히고 있지 않아서 유네스코도 지적했고, 국제사회가 계속 다함께 더 나은 방안을 찾으며 토론하고 있어요.
- 영화 <군함도>를 통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노역 상황이 어땠는지 이해해 보고, 친구들에게 군함도를 '불편문화유산'으로 소개해 볼까요?

## 유산 보호와 인권 존중의 평화로운 공존: 인권 문제로 등재가 취소된 유산도 있다고요?

문화유산은 우리가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인권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2016년 10월 27일 UN 총회 카리마 베논(UN 문화권리 분야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

- 유네스코 유산이 특정 문화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담고 있다면 그 유산은 보호되어야 할까요?
  - 유네스코 등재유산 보호의 주체에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유산을 향유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서 유산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해석되고 있어요.
  - 이제 유산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 2010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벨기에의 알스트 카니발(Aalst carnival) 사례를 통해, 유산 보호와 인권 존중 중 유네스코가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두는지 살펴보기로 해요.
- 알스트 카니발은 벨기에 북부와 플랑드르 주의 알스트에서 매년 가톨릭 사순절을 앞두고 사흘간 열리는 축제예요.
  - 약 600년 전부터 개최되었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카니발 가운데 하나예요.
  - 축제기간 동안 어떤 규제와 제약도 없는 무제한의 풍자와 유머를 표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 그래서 유명 정치인과 세계 지도자, 부자와 유명 인사 누구나 풍자 대상으로 삼아서 거침없이 조롱하기도 한답니다.



알스트 카니발 < 사진 출처: AlexSky on Pixabay > 83)

- 하지만 2010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후 축제의 풍자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 유대인을 희화화하고, 나치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카니발에 계속 등장해왔기 때문이죠.
  - 알스트 시에서는 축제의 가장행렬 차량에 등장한 '돈더미 위에 올라앉은 매부리코 유대인 상'은 재미를 위한 풍자일 뿐이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반유대주의, 유대인 혐오주의를 촉발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어요.
  - 그래서 유네스코는 여러 차례 알스트 시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알스트 시에서는 축제의 핵심인 유머나 풍자를 막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 결국 2019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위원회는, 차별주의적 정서를 강화하는 카니발은 유네스코의 창립 이념에 담긴 인간존엄, 평등, 상호존중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알스트 카니발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서 삭제했어요.**
  - 유네스코가 보기에 알스트 카니발은 공동체간 대화를 촉진하지도 않으며,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유산으로 여겨진 것이죠.
  - 이런 결정에 대해 벨기에 측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축제의 핵심을 억압하는 처사라고 했지만, **특정 문화권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기에 유네스코는 이렇게 강력 조치를 했어요.**
  -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최초로 삭제되는 사례가 된 거예요.**
- 유네스코 유산의 보호와 향유에서 핵심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어떤 가치가 가장 소중한지 우리는 계속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야 할 거예요.





##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토론해보기

<활동 참고 자료>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佐渡)광산을 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뒤 “한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재신청” (동아닷컴 2023. 1. 20.) 중 -

2023년 1월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재신청하였다. 2022년도 동일하게 신청하였으나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신청서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등재 심사에서 사도광산을 탈락시켰다. 그래서 일본이 신청서를 수정, 보완하여 재신청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자유롭게 자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재신청은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일본의 사도광산은 에도(江戸)시대(1603-1868)부터 유명한 금광이었어었지만, 이 금광에서 채굴된 광물(구리, 철 등)은 아시아-태평양 전쟁(1941-1945) 당시 전쟁 물자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 에도시대로 한정하여 산업유산적 성격만 부각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유산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을 등재하면서 아시아 최초 산업혁명이 성공한 사례로 메이지 시기만 강조하고, 식민지 시기 조선인 강제 노역을 선택적으로 배제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 및 이후에도 한국을 포함한 관련 회원국들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메이지산업유산과 비슷한 사례인 사도광산의 등재 재신청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 학생활동지

-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최근 자료를 찾아보고, 서로 한국과 일본 역할을 맡아서 토론해 보아요.

### ○ 모둠별 역할

1	한국 정부 입장
2	일본 정부 입장
3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 ■ 한국 정부 입장

- 입장에 따른 자료를 조사·수집해 '사도광산' 등재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타당한 근거를 준비합니다.

주장(입론)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한다.
이유	

- 다른 모둠에 제기할 질문을 준비하고 또한 다른 모둠에서 제기할 질문을 예상해봅니다.

교차 질의	▶ ▶
-------	--------

- 주장 및 주고받은 질문을 근거로 최종 변론을 해봅니다.

최종 변론	
-------	--

## 학생활동지

### ■ 일본 정부 입장

- 입장에 따른 자료를 조사·수집해 '사도광산' 등재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타당한 근거를 준비합니다.

주장(입론)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찬성한다.
이유	

- 다른 모둠에 제기할 질문을 준비하고 또한 다른 모둠에서 제기할 질문을 예상해봅니다.

교차 질의	▶ ▶
-------	--------

- 주장 및 주고받은 질문을 근거로 최종 변론을 해봅니다.

최종 변론	
-------	--

■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의 집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의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각측의 입장을 듣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유를 제시해봅시다.

결정	
이유	

지도방법 및 참고사항

- 위의 사례 외에도 난징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일본 하시마섬(군함도) 등 역사적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불편문화유산을 선정해 토론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에 불편하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적 유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 국제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화해와 치유의 유산보호 활동

- 유네스코는 국제협력을 장려하며 유산 보호를 통한 평화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유네스코를 통해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에요.
  - 공적개발원조(ODA)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 선진국 정부나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경제적·기술적 도움을 주는 걸 가리킨답니다. 유네스코 유산 분야에서도 ODA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 한국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복원정비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 2013년부터 시작된 캄보디아 프레아피투(Preah Pithu) 사원 복원정비사업은 한국이 세계유산 앙코르(Angkor) 유적지에서 처음으로 복원정비 사업을 벌인 곳이에요.
  - 기존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프레아피투 유적지에 대해 한국은 연구를 수행하고 현지 문화재 인력에게 교육을 제공했어요.
  - 이 과정에서 사원이 그때까지 알려진 것보다 한 세기 정도 빨리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되어, 캄보디아의 문화 자긍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재발견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유산이 특정 국가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유산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 최근 사례로는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들 수 있어요.
  - 2023년 일본은 유네스코에 약 130억 원(1천만 달러)을 기부하면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교육과 문화와 기자들 지원에 사용해 달라는 뜻을 밝혔어요.
  - 우크라이나 유산이 다시 복원되고 전쟁의 상처도 치유되길 함께 소망하는 마음인 거죠.
- 파괴되었던 유산이 유네스코를 통한 국제협력으로 복원되면서, 유산을 둘러싼 서로 다른 관점과 이견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화해와 치유의 단계로 나아가기도 해요.

## 북한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남북한 협력

- 한반도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는 계속 변했지만, 유산에 대한 남북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 이는 유산을 남북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공동 자산으로 보기에 가능한 거죠.
  - 또 비정치적이고 평화로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문화유산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 유산분야의 남북 협력은 1990년부터 시작되어 공동학술대회, 유물전시회, 복측 소재 유적·유물 실태 조사, 남북공동발굴조사, 멸실 문화재 공동 복원, 일본 소재 약탈 문화재 반환, 남한의 복측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어요.<sup>84)</sup>
-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경험과 노하우를 좀더 많이 지닌 남한이 북한 소재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 대표적 사례로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2004년 등재)**<sup>85)</sup> 과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2013년 등재)**<sup>86)</sup>에 남북한이 협력했어요.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한의 협력 절차는 세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어요.<sup>87)</sup>
  - 첫 번째 단계는 사전 준비단계로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구를 통한 협력을 추진해요.
  - 두 번째 단계는 진행단계로 세계문화유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현지실사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요.
  - 세 번째 단계는 등재 이후 사후관리 단계로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을 위해 학술대회, 발굴조사, 특별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해 남북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요.
  - 이러한 협력 절차를 복측의 세계유산등재 사례에 비추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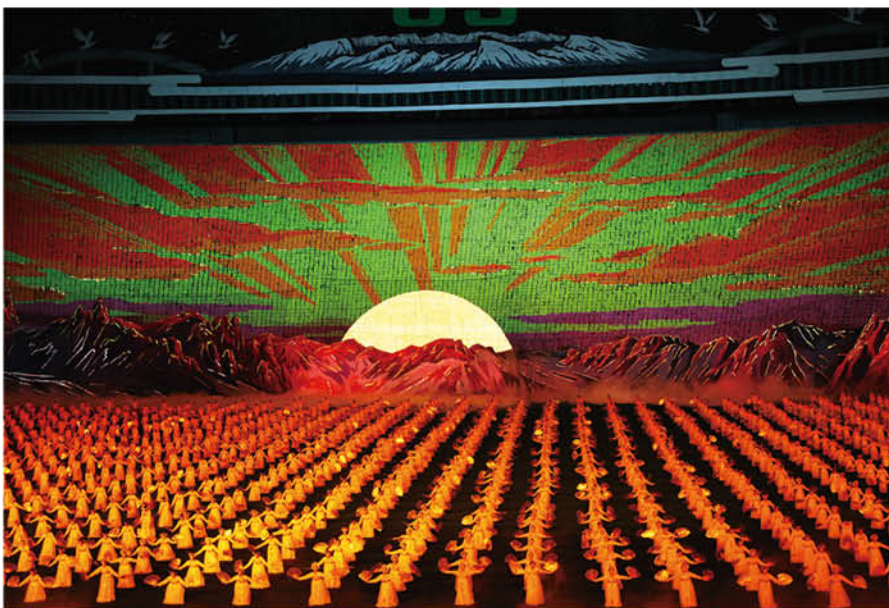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한의 협력 절차 ]



절 차	고구려 고분군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		
1단계: 사전 준비 단계	1999년	세계유산위원회가 북한 실무자 연수 개최 및 북한 고구려 고분군 신청서 준비를 위해 3만불 지원	200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00년	- 한국정부가 지원한 10만달러의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용을 위한 북한과 유네스코 간 협정 체결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20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해 자문	2005년	(11월)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12월) 남북장관급 회담 합의	
2단계: 진행단계	2002년	(1월) 등재 신청	2007년	(1월) 등재 신청	
	2003년	(7월) 반려: 현지 재조사 필요 및 북한·중국 간 공동등재 권고	(1월) - 중국 등재 신청 - 중국의 동북 공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남한의 외교 지원활동 진행	2008년	반려: 재고의 필요성, 유적 지역 경계의 재 설정, 잠정적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는 완충지역 설정 필요
	2004년	(3월) ICOMOS 2차 실사 후 등재권고 (7월) 등재	2011년	(2월) 반려사항 수정·보완 제출	
			2013년	(6월) 등재	
3단계: 등재 이후 사후관리	- '고구려 고분군' 관리방안에 대한 남북공동학술회 개최 - 고분군 실태조사 진행		- '개성 역사유적지구' 남북공동발굴조사 지속 (2018년까지) -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남북공동발굴 개성 만월대 특별전' 서울-개성 동시 개최		

## 남북한의 아리랑 비교

- 아리랑은 누구나 아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라는 후렴을 지닌 민요 아리랑은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죠.
- 아리랑은 남한과 북한이 유네스코에 따로 등재했습니다.
  - 남한은 2012년 ‘한국의 서정적 민요 아리랑’이란 이름으로, 북한은 2014년 ‘조선민요 아리랑’이란 이름으로 등재했어요.
  - 북한에서만도 서도아리랑, 평안도아리랑, 진천아리랑, 해주아리랑, 강원도아리랑, 고성아리랑, 온성아리랑, 단천아리랑, 통천아리랑, 무산아리랑, 구아리랑, 고산아리랑 등 서른여섯 개의 버전이 있고 지금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아리랑을 부르며 기쁨과 슬픔 등 감정을 공유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힘을 얻는다는 점에서 아리랑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죠.
  - 한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을 할 때 바로 이렇게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마음속에 아리랑을 사랑하는 정서가 있고 문화와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로 여긴다”는 점과 아리랑의 다양성을 강조했어요.
  - 북한은 노래의 호소력이 사회적 단결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북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웃 주민이나 학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리랑을 배워요.
- 한반도 전체 아리랑이 완전한 모습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포함된 거예요.



북한의 아리랑 공연 <사진 출처 : Flickr, ©Roman Harak, CC-BY-SA 2.0 Generic> 88)





## 2부: 유산과 평화 심화 도서목록

저자	제목	출판사
구정은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	후마니타스, 2018.
김영미	세계는 왜 싸우는가?	김영사, 2019
김재명	오늘의 세계 분쟁: 국제 분쟁 전문가 김재명의 전선 리포트	미지북스, 2021
노라 크루크 저 권자아 역	나는 독일인입니다: 전쟁과 역사와 죄의식에 대하여	엘리, 2020
노르만 핀켈슈타인 저 신현승 역	홀로코스트 산업: 홀로코스트를 초대형 돈벌이로 만든 자들은 누구인가?	한겨레신문사, 2004
수전 손택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저 박은정 역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문학동네, 2015
시몬 비젠탈 저 박중서 역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용서받을 자격과 용서할 권리에 대하여	뜨인돌, 2019
아트 슈피겔만	쥐(The Complete Maus)	아름드리미디어, 2014
전범환 외	난생 처음 떠나는 문화유산 ODA여행	문보재, 2020
한나 아렌트 저 김선욱 역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06





수원화성 팔달문 <사진 제공: 윤미혜>



정월대보름 당산굿 <사진 제공: 무진농악단>



더 읽을거리

---

**3부**  
**유산과 문화다양성**

## 문화다양성: 평화적 공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

모든 문화는 전 인류에 속한 공동유산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1966)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

- 유네스코는 서로 다른 문화의 풍요로운 다양성 유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가장 필요한 핵심 가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 '유네스코 헌장'이 보여주듯, 가장 큰 갈등과 전쟁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 유네스코는 일찍이 1966년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에서 "모든 문화는 전 인류에 속한 공동유산의 일부"라고 선언했는데,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 문화는 특정 국가의 국민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유산이라는 종대한 관점의 등장을 보여주는 선언인 거죠.
- 유네스코는 1978년 '인종과 인종차별적 편견에 대한 선언'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인종적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 서로 다른 문화가 누가 더 낫다는 판단과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평화적 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 유네스코에서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은 단지 각 나라의 문화 차이를 존중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각 나라 안에 있는 다양한 지역과 소수집단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되면서 인권과 평화로 연결된답니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서유럽 중심주의를 넘어선 문화다양성의 구현

- 문화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유네스코의 가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선언하며 47개국이 동참한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이에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처음에는 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과 자연경관이 중심이었어요.
  - 이 때의 ‘탁월하고 보편적이고 정통적’이라는 기준은 서유럽 중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어요.
- 유네스코는 서유럽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더 넓은 다양성을 꾀하고자 계속 노력해 왔답니다.
  - 그 노력 과정에서 ‘전통문화와 민속의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안(1989)’과 ‘인류 구전 및 무형 문화유산 걸작’ 프로그램(2001년 시작) 등이 나왔어요.
  - 2001년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에서는 사라질 위험에 처한 토착민사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소수민족 문화 보호를 강조했어요.
- 2003년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은 유형의 문화, 아름답고 유명한 유산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화, 다양한 공동체의 문화가 가지는 가치에 주목하자는 선언이에요.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등장으로 ‘다양한 문화’는 더 이상 열등하거나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귀중한 기반이 된다고 여겨지게 되었어요.

한 문화의 진정한 공헌은 그 문화가 개별적으로 생산해 낸 발명 목록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의 차이점에 있다.  
한 문화의 개별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느껴야만 하는 감사와 존경은 다른 문화가 셀 수 없는 면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유네스코 보고서(1995)

## 문화는 고정된 화석이 아니라 변화한답니다

문화의 차용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현상으로서,  
 문화를 전해준 측이 반드시 우월감을 느끼고  
 문화를 받은 쪽이 열등감을 느껴야 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는 차용되는 그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기 마련이며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발전하게 된다.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sup>89)</sup>

- 문화다양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특정 문화의 현재 상태를 화석처럼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 문화의 경계는 국가마다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더욱 문화의 경계선은 분명하게 고정될 수 없답니다.
-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문화를 주로 '예술'에 한정해서 이해했지만 점차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 즉 문화는 삶의 방식(제도와 관습), 가치체계(종교, 윤리, 신념, 세계관), 문화적 실천(의례, 생산체계, 지식의 전수체계), 지식과 기술, 언어, 예술적 표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 이렇게 일상생활과 신념과 관습과 가치를 포함하는 넓은 문화는 결코 고정되어 불변으로 있을 수 없지요.
-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있고 서로 겹쳐져 있어요.
  - 따라서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특정한 시기의 문화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이 아니라, 문화내/문화간 다양성이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적 실천을 통해 계속 변화하며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sup>90)</sup>



## ‘국가’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인간과 공동체 중심으로 사고하기

-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을 강조하고 문화유산 등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각 나라가 어떤 문화를 ‘자기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쟁하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 인간이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 우리는 국가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서 인간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핵심 기준은 문화다양성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예요.
  -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의 단위는 ‘국가’가 아니예요.
  - 국가를 넘어서는 문화 공동체도 수없이 존재하고, 또 각 국가 안에도 다양한 공동체(소수민족 등)가 있어요.
  - 문화다양성은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 차이를 존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나라 안에 있는 다양한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과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 그럼으로써 문화다양성은 인권과 평화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며, 인류 공동의 가치가 된답니다.
- 물론 공동체의 목소리가 항상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예요.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토론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나가야겠죠.
  - 독일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현지 주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이름보다 다리 건설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서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된 사례예요. 어떤 결정이 옳은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겠지요.
  - 중요한 건, 이제 유산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더 이상 소수 전문가나 공무원만 가진 게 아니라 현지의 주민들, 방문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유산 공동체에 포함되어 유산 관련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sup>91)</sup>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뿔 수 없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권리를 포함한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

## 공동의 문화와 정체성: 유럽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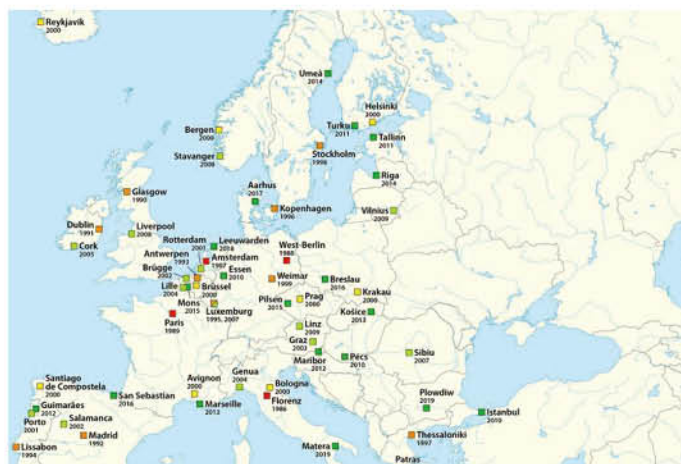
-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의 유산을 '유럽 공동의 유산'이라고 제시하며 정체성과 다양성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sup>92)</sup>
- '유럽유산네트워크(European Heritage Network)'는 유럽의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의 생활세계를 만들어내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발전과도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 보존 전문가, 유산 중개자, 연구활동가, 단체 회원, 청년 등 누구나 정보 시스템에 접근해 함께 목록을 만든답니다.

유럽유산네트워크 사이트:

<https://www.coe.int/en/web/herein-system/home>



- 유네스코 등재유산과는 관련 없지만, 유럽에서는 매년 각 나라 도시를 하나씩 번갈아가며 '유럽문화수도'로 선정해 다함께 홍보함으로써 문화적 관심과 관광객을 범유럽적으로 집중시키는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프로그램이 있어요.
  - 1985년 6월 13일 당시 그리스 문화부장관이자 왕년의 톱클래스 영화배우였던 멜리나 메르쿠리가 제안해 시작되었어요.
  - 문화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유럽 시민들의 공동문화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증대시키며 도시 발전에 문화적 공헌을 하려는 프로그램이에요.
  - 문화수도로 선정된 도시에서는 문화적 개성을 부각시키는 성대한 이벤트가 열려 유럽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축제가 벌어져요.
  - 이 프로그램은 각 나라가 서로 문화를 비교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교류의 장을 창조해내고, 유럽이 '하나의 집'이라는 느낌을 통해 유럽 공동의 정체성을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어요.



역대 유럽문화수도의 지리적 분포 <그림 출처:Wikipedia © Maximilian Darrbecker (Chumwa), CC-BY-SA 2.0 > <sup>93)</sup>





## 3부: 유산과 문화다양성

# 심화 도서목록

저자	제목	출판사
가미즈루 히사히코 외 박지환 역	문화인류학으로 보는 동아시아: 비슷하며 다른, 가까우며 낯선 이웃 동아시아, 열린 시각으로 살펴보기	놀민, 2021
공원국	인문학자 공원국의 유목문명 기행: 신화부터 역사까지, 처음 읽는 유목문명 이야기	위즈덤하우스, 2021
김선규 외	문화다양성과 관용의 철학	경진, 2022
김수아 외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왜 문화다양성인가	컬처북, 2022.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마이클 M. 에임스 저 조승역 역	식인종 여행과 유리 상자: 비판과 성찰의 박물관 인류학	민속원, 2023
바바라 밀러 저 박충환 외 역	글로벌시대의 문화인류학	시그마프레스, 2019.
브래디 미카코 저 김영현 역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 차별과 다양성 사이의 아이들	다다서재, 2020.
에드워드 사이드 저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007.
이하루	사회적응 거부선언: 학살의 시대를 사는 법	온다프레스, 2023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저 박옥줄 역	슬픈 열대	한길사, 2022.





고창갯벌 <사진 제공: 김진근>



갯벌을 찾은 백로 모습 <사진 제공: 김형학>



더 읽을거리

---

**4부**

**유산과 지속가능성: 공존과 상생**

## 지속가능발전: 인류 공동의 목표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을 의미한다.

브룬틀란 보고서(1987년)

- '지속가능성'이나 '지속가능발전'이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아마 아직은 낯설게 느끼는 분이 많을 것이고, 들어봤더라도 환경문제와 관련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발과 발전을 피할 수는 없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너무 많은 개발과 발전을 하지는 말자는 정도의 뜻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구요.
- '지속가능발전'이란 말은 단순히 개발을 덜 하면서 오랫동안 발전하자는 뜻을 넘어서, 앞으로 전세계 인류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함께 지키기로 한 중요한 약속을 담고 있어요.
  - 발전목표라고 하면 흔히 '3년 내 20% 경제 성장'처럼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달성하는 경우가 많지요.
  -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인류사회 모든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 점차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랍니다.

## 지속가능발전 목표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모든 분야는 연결되어 있다

- 유엔은 2015년 9월에, 앞으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 과거에는 '경제발전이냐 환경보호냐'의 딜레마 속에서 두 가치가 공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등장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에요.
  -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는 서로 연결되어 빈곤 퇴치, 인권 보장, 성평등의 3가지 최우선 목표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음페이지).



목표	주요 내용
1 빈곤 퇴치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장려
3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4 양질의 교육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7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적정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촉진,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복원력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혁신 장려
10 불평등 감소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감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3 기후행동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14 수(물)생태계 보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15 육상생태계 보전	육상 생태계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양 황폐화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권 제공,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유산과 지속가능발전의 결합 사례: 함께 배우며 능력을 키우고 공동체를 사랑하기

“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절은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이 아니지만 '나의' 세계유산이다.  
나는 여기서 형제와 뛰어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학교 앞의 빵집도 세계유산이다.  
나는 매일 그 곳에 가고, 내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다.

일본에서 열린 '유산과 공동체'에 대한 어느 발표에서 한 초등학생의 말

”

- 일본의 야마가타시 치토세 지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치토세 지역전통문화를 학교에서 배우면서 전통과 지역사회와 나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해요.
  - 초등학생들은 정월 대보름 축제 때 추는 오키노하라 모심기 춤(rice planting dance)에 대해 배우는데, 이 춤은 예전에 이 지역에 있었던 대가뭍과 관련이 있어요.
  - 춤을 추면서 사람들은 지역의 모든 집을 방문하며 그 해의 수확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는 거죠.
  - 학생들은 이 전통 춤에 대해 배우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과 전통문화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재난으로부터 막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데 전통문화가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 이런 수업을 하는 이유는,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지역 공동체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sup>94)</sup>
- 제주도에서는 제주 메밀과 제주 신화, 지속가능한 삶과 미래를 주제로 수업을 만들어 유네스코학교들과 제주지역 단체들이 함께 활동하며, 지역의 생태문화 속에서 미래의 모델을 찾는 노력을 했어요.
  - 학생들은 제주 농경의 여신 '자청비'에 대해 배우면서, 직접 자청비 신화를 읽고 주요 장면을 이야기로 구성해서 '메밀밭에 피어난 자청비 이야기'라는 주제로 메밀밭에 전시하고 연극공연도 했어요.
  - 학생들은 '제주 농업과 6차산업', '전통놀이와 청소년문화', '제주메밀과 제주음식' 등 다양한 발표를 했습니다.<sup>95)</sup>



## 내가 사는 지역 유산투어 스탬프 만들며 지속가능한 관광 생각해보기

### Heritage - Journey -

※네모 안에는 자기가 사는 지역 이름을 넣어보아요!

- 우리는 학습활동지 8(팔라우)에서,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면서도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 볼 수 있어요.
- **지속가능한 관광 성공 사례 조사하기**  
-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 또는 국외 사례를 알아보며 어떤 점이 성공적인지 생각해보아요.

(사례1:            )	성공요인:

(사례2:            )	성공요인:

-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 조사하기**  
-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이 이루어지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여정' 프로젝트를 한답니다.  
- World Heritage Journey (<https://visitworldheritage.com>)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고,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유산 여정을 짜보기로 해요.





학생활동지

※네모 안에는 자기가 사는 지역 이름을 넣어보아요!

Heritage - Journey -

[Blank box for region name]

[테마 : ] 모듬원:

(테마여정1: ) [Blank lines for notes]

(테마여정2: ) [Blank lines for notes]

(테마여정3: ) [Blank lines for notes]

(테마여정4: ) [Blank lines for notes]

(테마여정5: ) [Blank lines for notes]

## 학생활동지

### ● 여행 스탬프 디자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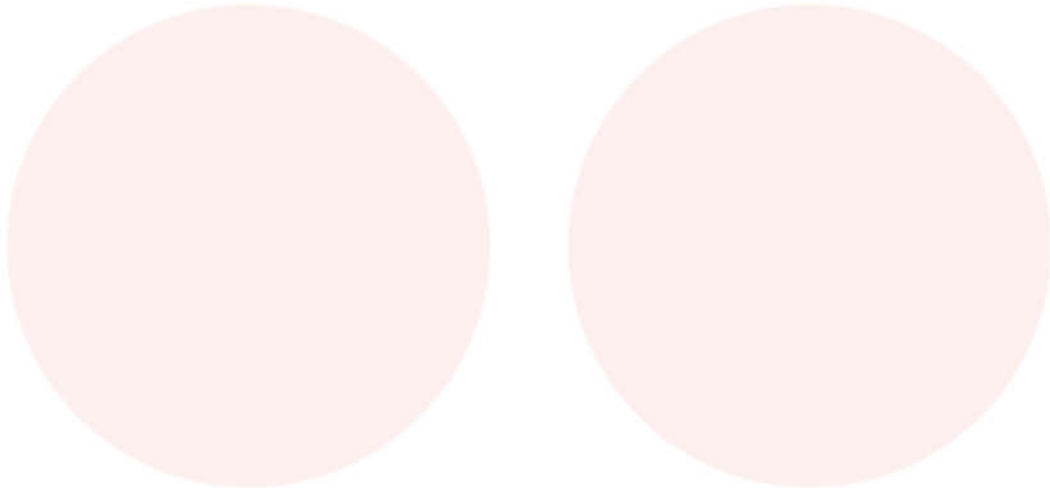
#### [참고해 봅시다] 부산의 산토리니 투어, 부산 감천문화마을 스탬프 투어



이미지사진

1950년대 6·25 피난민이 터를 잡으면서 형성된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곳. 산자락을 따라 각양각색의 주택이 계단식으로 줄지어 서 있는 이 마을에서 자연과 골목의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중략)  
바다를 끼고 자리한 마을의 풍경을 즐기면서 골목 곳곳에 놓인 투어 12개소를 찾아보자. 지역 예술가의 손으로 완성된 예술작품과 개성 있는 포토존이 골목골목 설치된 것이 이 투어의 매력 요소다.  
출처 : 트래비 매거진(<https://www.travie.com>)

#### 우리 지역 유산 투어 스탬프 디자인하기



#### 관련 자료 및 사이트



World Heritage Journey  
<https://visitworldheritage.com>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 디지털 유산 관광의 지속가능성

### [학생활동지] 디지털 관광 가상체험해보기

- 최근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유산 복원과 보존 뿐 아니라 관광과 체험에도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 세계유산인 한국 충청남도 공주시의 왕성 '공산성'은 2022년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산성 달밤 이야기와 콘서트' 행사를 했어요.
- 전라북도 익산시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미륵사지석탑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해 내서, 젊은 층이 유산을 친근하게 느끼고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면서 풍부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 관광객들은 현실의 미륵사지에서는 석탑 위에 올라가 춤을 출 수 없지만 메타버스 속에서는 구름을 타고 석탑 위에서 춤을 추고 사진도 마음껏 찍을 수 있어요.
- 쌍방향 가상현실 관광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지속가능한 관광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디지털 관광 가상체험해보기

-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에서 디지털 유산 관광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모든 유산은 디지털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현실에 존재하는 유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디지털 유산 관광과 현실에서의 유산 관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디지털 관광을 체험해보고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참고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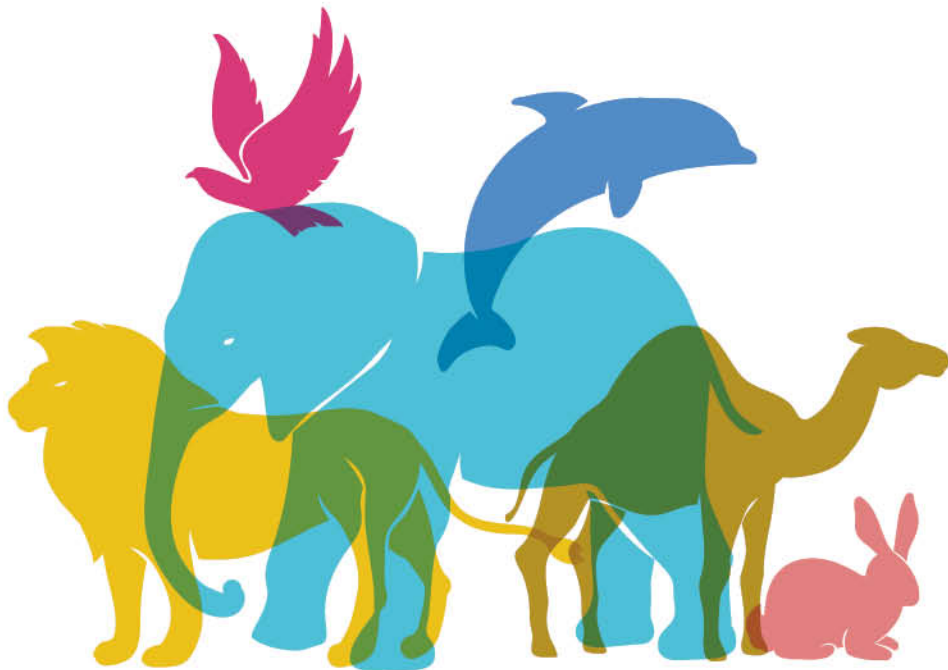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

(<https://kids.cha.go.kr/depart/KidsIndex.action>)

모둠명	모둠구성원
가상체험 장소	
가상체험 주요내용	
디지털 체험 장점	
디지털 체험 단점	

## 지구와 자연과 동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해외 사례

- 에콰도르에서는 2008년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써넣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침팬지와 오랑우탄이 법적 권리를 가진 법 인격체라고 인정했어요.
- 네덜란드에서는 횡한 어항에 금붕어 한 마리만 기르는 게 불법이에요.
- 미국과 인도에서는 일각고래, 북방점박이올빼미, 아시아사자의 생존을 인간의 편리보다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홈볼트 카운티 숲을 벌목하려는 목재회사에 맞서 환경정보보호센터가 숲에 사는 대리석무늬 바다오리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대리석무늬 바다오리는 위기종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며, 바다오리 생존에 해가 되게 벌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뉴질랜드에서는 원주민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 강에 인간과 동등한 법 인격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이 강을 해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해친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지요. 마오리족의 대표자와 정부 대표자가 함께 강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600년 이상 황거누이 강 주변에서 살아온 마오리족은 “나는 곧 강, 강이 곧 나”(코 아우 테 아우아, 코 테 아우아 코 아우)라고 말합니다.<sup>96)</sup>



## 환경 위기와 지속불가능성 위기

- 전 세계적인 환경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죠?
  -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환경 위기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생태계가 사라져 가고 있어요.
  - 기후 변화는 세계유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 홍수로 베니스의 세계유산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잘 알려진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리프는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데 산호초들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계속되며 죽어 가고 있어요.
- 환경 위기는 지속가능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환경 위기는 단지 환경만의 위기가 아니에요.
  - 유네스코에서 나온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보고서(2021)에서는 인류가 지속불가능성 위기에 놓이게 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꼽고 있어요.
  - 환경 위기는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와 평등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는 빈부격차를 크게 벌어지게 만들었고, 세계적으로 최소 수억 명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적 빈곤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 미국 예일대 기후변화커뮤니케이션센터가 미국 성인 1,2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 기후위기를 환경 쟁점이나 과학 쟁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 기후위기가 농업(63%), 정치(57%), 경제(54%), 인도주의(51%), 도덕(38%), 빈곤(29%), 국가안보(27%), 사회정의(27%), 종교(9%) 문제라는 응답도 많았어요.
- 우리는 이제 기후변화를 자연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문제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sup>97)</sup>
  - 환경 위기가 지속가능발전과 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토착적 전통지식과 지속가능성: 마양나 부족 <sup>9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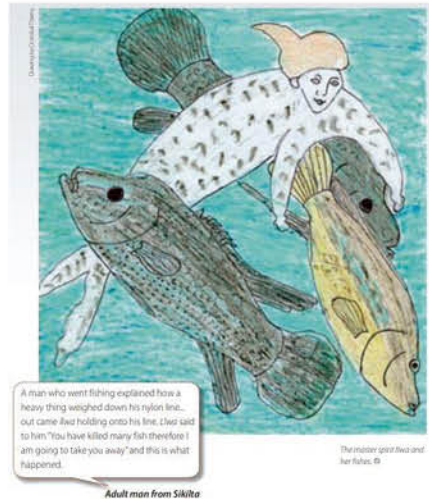
- 니카라과 생물권 보전지역에 살고 있는 마양나(Mayangna) 부족은 자기들의 토착 지식과 세계관을 기록하고 싶어했어요.
  - 유네스코는 세계 토착민의 지혜에 인류의 어려움을 극복할 실마리가 있다고 보고 링크(LINKS = Local and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현지·토착지식체계) 프로그램으로 이런 지식의 발굴과 기록을 돕고 있어요.
  - 유네스코의 링크 프로그램 지원으로 마양나 부족은 물 속 세계에 대한 토착지식을 400쪽이 넘는 책으로 만들어냈답니다.
- 마양나 사람들은 이 지역의 물 속에 사는 30종의 어류와 6종의 거북이에 대해 토착적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 분류와 약간씩 다르며 서로 보완해 줘요.
  - 즉 원주민의 지식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게 해주는 소중한 지혜예요.
  - 스누크 피쉬가 물가에 가까이 다가오면 겨울이 온다는 신호이고, 흑목거북이 물위에서 표류하는 건 홍수가 임박했다는 경고랍니다.
  - 마양나 사람들은 '리와(Liwa)'라는 인어가 살고 있어서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공격하면서 물고기를 보호한다고 믿어요(아래 그림).

“물 속에서 ‘리와’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죽였으니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를 공격했다”는 구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찾아볼 페이지: 유네스코 LINK 프로그램 사이트(영문)

<https://www.unesco.org/en/links?hub=408>

<그림 출처: 『A Brief presentation of the book: Mayangna knowledge of the co-existence of people and nature: fish and turtles』, 2010, p.9> <sup>99)</sup>



“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원주민(indigenous people)의  
 중대한 역할을 재확인한다.  
 '요하네스버그 선언'(1987년) 25번  
 ”

## 토착적 전통지식과 지속가능성 사례들

- 케냐 키쿠유(Kikuyu) 여인들은 농작물의 재배와 종자 보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여성들은 같은 자리에 다양한 종의 콩을 재배하고, 예측불가능한 기후와 질병에 대비해 다량의 종자를 비축해요.
  - 오늘날 이런 종자들은 식물에 대한 토착지식의 귀중한 보고가 되었어요.
  - 농부, 유목민, 어부, 전통치유사 등 토착지식 보유자들이 생물다양성의 보호자가 되고 있어요.<sup>100)</sup>
- 일본 혼슈섬 남서해안의 카요이우라, 나가토, 야가구치 현에는 17세기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고래 잡이가 있었어요.
  - 전통 고래잡이 어촌이었던 카요이에는 고래잡이 관습과 관련된 문화가 많이 남아있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어요.
  - 이 마을에는 1802-1842년 기록된 고래 이름 등록부가 보존되어 있는데, 고래를 잡은 날짜와 위치, 고래 이름과 종류와 크기, 성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 고래의 성격은 '차가운, 경의로운, 기품있는 흰색'(1807년 3월), '영웅적인, 신념, 거대한, 남성'(1834년 3월)과 같은 식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 또 다른 사원에선 매일 고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는 여성들도 있어요. 붙잡힌 고래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평생 고래를 위해 기도를 바치는 거죠.<sup>101)</sup>







<마추픽추의 계단식 농업>

- 영국의 언론매체 BBC방송에서는 전세계 원주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혜에서 현재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을 수 있다며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어요. <sup>102)</sup>
  -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토착민이 활용하는 '자이(Zai)'라는 전통 관습은 우기(雨期)가 오기 전에 땅에 작은 구멍이를 파고 퇴비와 비료를 넣은 뒤 씨를 심는 방법인데, 지구 온난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물이 부족한 지구에서 물을 지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줘요.
  - 호주 원주민들은 수천년 동안 생물다양성을 강화하고 산불 확산도 막고 토양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땅을 태우는 관습을 갖고 있는데, 이 전통을 생태환경에 따라 섬세하게 계산해 실행합니다.
  - 페루의 '마추픽추'는 잉카 제국 사람들의 계단식 농업을 보여주는 상징적 유적지인데, 고산지대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들은 라마와 알파카의 배설물을 비료로 활용해 과일, 견과류, 채소, 향신료를 생산하면서 방치된 계단식 농지를 되살리고 있어요. 이들의 농업은 땅의 면적을 늘리고 물 사용을 줄이며 토양 침식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약 400개 부족이 사는데 이 원주민들의 경작지에는 수백 종의 식용 식물이 자라요. 이 경작지는 날씨 변화에 적응하는 종자를 양성하는 '종자 은행' 역할을 하며, 원주민들은 경작지를 이용하다가 숲이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경작지를 버리고 떠난답니다.
  - 핀란드 바이노쇼키 강의 복원 프로젝트 과정에서 비영리단체 '스노우체인지'는 원주민에게 도움을 청했고, 원주민들은 오래된 바위와 돌들의 흔적을 더듬어 복원에 필요한 지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물길 복원을 통해 찬물에 사는 송어 등이 돌아왔고, 생태계 복원이 진행 중입니다.

## 인류무형문화유산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 유네스코 유산에는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있어요. 한국에는 15개의 세계유산, 16개의 세계기록유산, 22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있습니다(2022년 기준).
- 인류무형문화유산에는 가장 처음 지정된 <종묘제례 및 종묘 제례악>처럼 과거 궁중에서 연주하던 음악도 있고, 한국 불교문화인 영산재(2009)나 연등회(2020) 같은 의식도 있어요. 또 민간에서 하던 놀이·의례인 강강술래(2009)나 제주칠머리당 영등굿(2009)도 있지요. 이처럼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답니다.



그림 : 무형문화유산과 공동체와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103

-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요.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지역공동체는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가족과 공동체가 단합하며, 고통이나 재난으로 인한 아픔을 극복할 힘을 가지게 되어 공동체가 회복탄력성을 가지게 된답니다. 성별과 연령, 직업, 종교와 정치 성향, 종족·민족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무형문화유산을 실천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포용적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어요.
- 또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지혜를 배움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고,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지며 자기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 4부: 유산과 지속가능성

# 심화 도서목록

저자	제목	출판사
Alexandra Coghlan 저 최규환 외 역	지속가능한 관광	청람, 2023
김정후	발전소는 어떻게 미술관이 되었는가: 유럽 산업유산 재생 프로젝트 탐구	돌베개, 2013
나오미 클라인 저 이순희 역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열린책들, 2016
레이첼 칼슨 저 김은령 역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2011
롭 닉슨 저 김홍옥 역	느린 폭력과 빈자의 환경주의	에코리브르, 2020
리처드 화이트 외 저 이두갑 역	자연 기계: 인간과 자연, 환경과 과학기술에 대한 거대한 질문	이음, 2018
마이클 쉘러버거 저 노정태 역	지구를 워한다는 착각: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	부키, 2021
세계시민교육 연구개발공동체 '느루' 저	교실에서 세계 시민 되기: 중등편- SDGs 테마수업 워크북	창비교육, 2022
세계 환경 발전 위원회 저 홍성태 외 역	우리 공동의 미래: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물결, 2005
아미타브 고시 저 김홍옥 역	육두구의 저주: 지구 위기와 서구 제국주의	에코리브르, 2022
안희경 외	오늘부터의 세계: 세계 석학 7인에게 코로나 이후 인류의 미래를 묻다	메디치미디어, 202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아주 구체적인 위협: 유네스코가 말하는 기후위기 시대의 달라진 일상	동아시아, 2022
윤원근 외	농어촌유산과 에코뮤지엄	대원사, 2016
임영신 외	희망을 여행하라: 새로운 여행에 대한 즐거운 상상	소나무, 2018
조시 테켈 저 유기쁨 역	대지에 입맞춤을: 당신이 먹는 음식이 기후 변화를 역전시키고 당신의 몸을 치유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을까	놀민, 2023
조효제	침묵의 범 죄 에코사이드	창비, 2022
패트릭 무어 박석순 역	종말론적 환경주의: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과 위협	어문학사, 2021
홀리 터펜 저 배지혜 역	지속가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스미디어, 2021

- 1) 울룰루-카타추타 국립공원 관련 설명에는 권혜운 자문위원이 제공한 내용이 포함됨.
- 2) <https://namu.wiki/jump/hcTaa7dPgiNuwolrDKxNjXDBd%2FxFtan1kfWZPCfdjNOWPiAVApfuCQxbAjxzSLrbclZQELxQq9n298fn65NkPA%3D%3D>
- 3) 안네 프랑크, 이견영 옮김, 『안네의 일기』, 문예출판사, 1971, 22쪽.
- 4) 위의 책, 64쪽.
- 5) 위의 책, 69쪽
- 6) [heritage.unesco.or.kr/안네-프랑크의-일기/](http://heritage.unesco.or.kr/안네-프랑크의-일기/)
- 7) 박건형, “가상현실로 아우슈비츠 재현, 나치 전범 무릎 꿇렸다”, 조선비즈([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4/2016101400013.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4/2016101400013.html)), 2016. 10. 14.
- 8) 안네 프랑크, 홍경호 옮김, 『안네의 일기』, 문학사상사, 1995, 75-76쪽. 책 속의 경어체를 평어체로 바꾸었음.
- 9) 위의 책, 83쪽.
- 10) 위의 책, 218-220쪽.
- 11) 유철인, “제주 바다의 어멍 해녀, 그 웅골찬 생명력”, 『여성신문』, 2016. 12. 28.
- 12) 직업으로서 해녀의 변화 관련 내용에 양선아 선생님이 제공한 내용이 포함됨.
- 13) <https://www.nfm.go.kr/paju/archive/detail/search/1051/OR0001-2015-015-00070159>
- 14) 오창현, 「15-20세기 해조류의 구분법에 대한 연구: 미역, 다시마, 곤포를 중심으로」, 『무형유산』 12, 국립무형유산원, 2022.
- 15) 히로시마 원폭 돔 관련 설명내용에는 오은정 자문위원이 제공한 내용이 포함됨. 더 자세한 내용은 오은정 저, 「파괴의 보존: 유네스코 세계유산 히로시마 원폭 돔의 보존과 ‘평화’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53집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20 참고.
- 16) ‘불편문화유산’ 용어 대신 심주형은 ‘곤란한 문화유산’, 오은정은 ‘참혹한 유산’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바 있다. 이현경,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한 고찰」,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0호, 도시사학회, 2018; 심주형, 「‘불편한 문화유산(Inconvenient Heritage)’에 대한 복원의 정치: 베트남 하노이 구시가의 ‘광동회관’ 복원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사론』 57집, 한국중앙사학회, 2022; 오은정, 「파괴의 보존: 유네스코 세계유산 히로시마 원폭 돔의 보존과 ‘평화’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5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20.
- 17)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경섭, 「조선인원폭피해자와 초국적 시민(권)」, 『현대사회과학연구』 13집,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참고.
- 18) 오은정,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에서 한일 시민연대의 사회문화적 토대와 그 변화」, 『기억과 전망』 39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8.
- 19) “김치, 유네스코 세계유산 맞나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20) 박상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무형문화유산의 공동체」, 『무형유산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1) 함한희, 「아리랑, 김치 그리고 국가주의」, 『비교민속학』 제59집, 2016, 424쪽.
- 22) 박채린, 「김치 독자성의 근거와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6집 3호, 2021, 265-273쪽.

- 23) 위 논문, 같은 곳.
- 24) “김장, 김치 담그고 나누는 문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 25) 이효지, 이해경, 「김치 문화의 변천에 관한 문헌적 고찰」, 『문화재』 23, 1990, 87-112쪽; 한경구, 「어떤 음식은 생각하기에 좋다: 김치와 한국민족성의 정수」, 『한국문화인류학』 26집, 1994, 51-58쪽; 이성우, 『한국식품문화사』, 교문사, 1984.
- 26) 고영, 「물같이 연하고 고기보다 맛있는 김치」, 『시사IN』, 2017. 12. 15.; 이세림, 김재엽, 「인류세 시대의 새로운 김장 문화 계승 방법 제안」,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1집, 2021.
- 27) 권기배, 「유라시아 지역 고려인의 정체성 연구: 1990년대 이후 연해주 고려인의 음식문화를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33권 1호, 2021, 345-368쪽.
- 28) 이도은, “[김치로드] 무 대신 선인장… 조국 떠난 이민자, 김치는 지켰다”, 『중앙일보』, 2019. 1. 25.
- 29) “찬밥 떡볶이에 스벅 달고나? 이색 K-푸드 즐기는 베트남”, 『헤럴드경제』, 2021. 10. 30.
- 30) 이미지, “無絨갈 김치, 당근·케일 김치… 美·유럽 등 40國서 ‘맛있어요’”, 『조선일보』, 2022. 6. 29.
- 31) 김치의 “한국성”이 상품의 특징과 마케팅전략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중국 기업을 통해 분석한 연구로 박형진(Park, Heangjin)의 『Manufacturing “Korea” in China: The Coproduction of Commodity Value and Nationalist Imaginaries in the Chinese Kimchi Industry』,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2021 참고.
- 32) 장정룡, 『아시아의 단오민속: 한국, 중국, 일본』, 국학자료원, 2002; 문경연, 「대만의 ‘종즈’가 양안을 건너다」, 『관행중국』 118호, 2020년; 유옥희, 「하이쿠에 나타난 단오 수용 양상: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어문학』 84권 1호, 2020; 정은주,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강릉단오제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3; 천석경,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명절 단옷날」,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원 홈페이지, 2021. 6. 23.; 임영화, 「강릉단오제와 중국단오절에 대한 비교연구: 유네스코 등재 위주로」, 『Journal of China Studies』 21권 1호, 2018; 황루시, 「단오무형문화유산의 진흥을 위한 지역협력방안」,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9 등 참고.
- 33) 니시카와 나가오, 「문화의 국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9, 53쪽.
- 34) 김용범,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제도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35) Dawnhee Yim, “Living Human Treasures and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e Heritage in South Korea: Experiences and Challenges”, ICOM NEWS, No.4, 2004; 2009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에서 임돈희 교수의 토론.
- 36) Jung-a Chang, “From ‘folk culture’ to ‘great cultural heritage of China’: the aporia of the quest for the essence of Chinese culture”, Kuah Khun-Eng and Zhaohui Liu ed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ontemporary China, Routledge, 2017, 113쪽.
- 37)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_Gangneung\\_Danoje\\_Jangneung\\_58\\_\(14140184170\).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_Gangneung_Danoje_Jangneung_58_(14140184170).jpg)
- 38) <https://v.douyin.com/IV1jm4N/>

- 39) <https://www.flickr.com/photos/tiseb/13541434/>
- 40) 심승구, 「인류무형유산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 의미와 과제」, 『비교민속학』 69집, 비교민속학회, 2019.
- 41) <https://www.flickr.com/photos/northkoreatravel/10108835864/>
- 42) 황경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매사냥’ 공동등재의 특성과 의의”, 『문화재』 51권 4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2018.
- 43)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azakhs\\_19th\\_Century\\_2.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azakhs_19th_Century_2.jpg)
- 44)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ustrian\\_falconry\\_Girl.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ustrian_falconry_Girl.jpg)
- 45) 사진들 출처: <https://blog.naver.com/sptokorea>
- 46) 최성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 키워드는 ‘공존’…친환경 여행지 주목”, 『세계일보』, 2021. 3. 2.; 신효정, “‘선한 영향력’ 선사하는 관광지 5곳…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 동아닷컴, 2021. 2. 24. 참고.
- 47) Maffi, L. & Woodley, E., 『Biocultural Diversity Conservation: A Global Sourcebook』. Earthscan, 2010.
- 48) 장성익, “자연에게 권리를 허하라”, 『월간 참여사회』, 2018. 11. 1.; 이인숙, “황거누이강을 사람으로 대하라”, 『경향신문』, 2017. 3. 16. 참고.
- 49) 김지수,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살리는 자연유산의 잠재성”, 문화재청 사이트(<https://url.kr/cxn92o>), 2022. 6. 29.
- 50) 위의 글; 신현실, “기후위기를 극복할 사회적 장치로서 자연유산”, 문화재청 사이트(<https://url.kr/i5hjx3>), 2022. 1. 27.
- 51)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unminjeongeumhaerye\\_\(cropped\).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unminjeongeumhaerye_(cropped).jpg)
- 52)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odiyattam\\_Framed\\_001.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odiyattam_Framed_001.jpg)
- 53) 오창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가치와 실현수단에 관한 연구: 공동체, 보호, 참여 개념을 중심으로」, 『무형유산』 10, 국립무형유산원, 2021.
- 54) 이현경, 「‘과정(process)’으로서의 유산과 그 유산의 해석」, 『미술이론과 현장』, 한국미술이론학회, 2019.
- 55) <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BGfmQvwtwsk>.
- 56)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ashima\\_Nagasaki\\_Japan.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ashima_Nagasaki_Japan.jpg)
- 57)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amborgbibelen.jpg>
- 58) <https://www.flickr.com/photos/rightsatduke/1775940454/in/photolist-3GWae1-5qaJB2-2mHc3Tt-3GRPF6-2er6ZRL-oM5mC7-E5KYU-2cJeQRj-2jJEkP1-2edLA4f-eijM63-5qf2xb-5qaJVi-5qeZx5-5qaH46-5qaHjX-skZih-fJxtV-uZrS1-eie3ez-eie3ep-FcwiK-eijM3h-eijM1m-2dcmwKseijM95-eijM9A-24EwfXF-2jpVkAh-qSEBtV-5zHqse-Fcv5Q-pxRH2h-2jpVkx1-eLcxdp-eLoPDw-2fabrUX-eLoV8b-Fcwyv-eLk27W-eLoS8E-eLoQC9-sp28T-bmUse2-eijM39-S9dJb8-6Th9iHHDMhNw-dFoZ7B-qbjzW3/>
- 59)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ikji\\_\(replica\),\\_1377\\_-\\_Korean\\_Culture\\_Museum,\\_Incheon\\_Airport,\\_Seoul,\\_South\\_Korea\\_-\\_DSC00785.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ikji_(replica),_1377_-_Korean_Culture_Museum,_Incheon_Airport,_Seoul,_South_Korea_-_DSC00785.JPG)
- 6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1893\\_Women%27s\\_Suffrage\\_Petition\\_\(16734429368\)\\_\(cropped\).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1893_Women%27s_Suffrage_Petition_(16734429368)_(cropped).jpg)
- 61)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agna\\_Carta\\_-\\_colophon\\_-\\_Pickering\\_1540-1.png#filelinks](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agna_Carta_-_colophon_-_Pickering_1540-1.png#filelinks)

- 62)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ibelungenlied\\_manuscript-c\\_f1r.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ibelungenlied_manuscript-c_f1r.jpg)
- 63) [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6Woj\\_wozqmA](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6Woj_wozqmA)
- 64) <https://pixabay.com/photos/green-tea-lung-ching-teacup-cup-6078275/>
- 65) <https://www.flickr.com/photos/koreanet/44533791572/>
- 66) <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BHD20xkYGSk>
- 67) <https://www.flickr.com/photos/prefeituradeolinda/4438177445/>
- 68) <https://pixabay.com/photos/japan-geisha-theatre-kabuki-kimono-1416901/>
- 69)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ver\\_of\\_the\\_diary\\_of\\_Anne\\_Frank\\_2.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ver_of_the_diary_of_Anne_Frank_2.jpg)
- 7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Wizard\\_of\\_Oz\\_Lahr\\_Garland\\_Bolger\\_Haley\\_1939.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_Wizard_of_Oz_Lahr_Garland_Bolger_Haley_1939.jpg)
- 71)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927\\_Boris\\_Bilinski\\_\(1900-1948\)\\_Plakat\\_f%C3%BCr\\_den\\_Film\\_Metropolis,\\_Staatliche\\_Museen\\_zu\\_Berlin.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927_Boris_Bilinski_(1900-1948)_Plakat_f%C3%BCr_den_Film_Metropolis,_Staatliche_Museen_zu_Berlin.jpg)
- 72) <https://pixabay.com/photos/arabian-coffee-arabic-coffee-pots-5202589/>
- 73) <https://unsplash.com/ko/%EC%82%AC%EC%A7%84/cWXibBbXx44>
- 74)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agomuseet,\\_Ljungby.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agomuseet,_Ljungby.jpg)
- 75) 우리가 흔히 ‘민족주의’라고 쓰는 용어는 영어로 내셔널리즘(nationalism)인데 ‘국민주의’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음.
- 76)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 김광역 외, 『종족과 민족: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2005; 박찬승, 『민족, 민족주의』, 소화, 2016; 장문석, 『민족주의』, 책세상, 2011;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옮김,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길, 2018; 권혁범, 『민족주의는 죄악인가』, 아로파, 2014 등.
- 77) 권숙인, 「일본 사회의 변화와 민족문제의 새로운 전개」, 김광역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2005, 아카넷, 253쪽.
- 78) ‘중화민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이론에 대해서는 윤휘탁, 『신중화주의: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와 한반도』, 푸른역사, 2006. 참고.
- 79) 싱가포르의 대표적 상징물인 머라이언(Merlion, 사자 머리에 물고기 하반신)은 관광청 디자인 공모전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 싱가포르인들의 국민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강희정, “머라이언과 박물관: 싱가포르의 국민 만들기”, 『동남아시아의 박물관: 국가 표상과 기억의 문화정치』, 이매진, 2011. 참고.
- 80) 박찬정, 박점희, 『사회 보드게임북』, 애플북스, 2020. 참고.
- 81)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lickr\\_-\\_DVIDSHUB\\_-\\_Giant\\_standing\\_Buddhas\\_of\\_Bamiyan\\_still\\_cast\\_shadows\\_\(Image\\_2\\_of\\_8\).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lickr_-_DVIDSHUB_-_Giant_standing_Buddhas_of_Bamiyan_still_cast_shadows_(Image_2_of_8).jpg) 원본 사진에서 바미안 석불 부분만 확대하였음.
- 82)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ashima\\_Nagasaki\\_Japan.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ashima_Nagasaki_Japan.jpg)
- 83) <https://pixabay.com/photos/carnival-aalst-mask-costume-group-2107004/>
- 84) 박성진, 「남북 문화유산 공동조사의 과거와 현재」, 『2019 국립무형유산원 학술대회 북한의 무형유산과 남북 교류의 협력 방안』, 국립무형유산원, 2019, 80쪽.
- 85) <https://whc.unesco.org/en/list/1091/>

- 86) <https://whc.unesco.org/en/list/1278/>
- 87) 송민선,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문화재』 50(2),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2017, 100쪽.
- 88) <https://www.flickr.com/photos/roman-harak/5015832858/>
- 89) 한경구,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지역내 문화정체성」, 『국경을 넘는 무형유산: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과 보편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9, 39쪽.
- 90) 한건수, 「한국사회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국제이해교육연구』 10권 2호, 2015.
- 91) 조유진, 「드레스덴 엘베계곡의 사례로 본 세계유산 보존 정책」, 『문화재』 48권 2호(통권 68호), 2015.
- 92) 박경하, 홍윤기, 김유환,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와 관리』, 통일연구원, 2004.
- 93) [https://de.wikipedia.org/wiki/Kulturhauptstadt\\_Europas#/media/Datei:Karte\\_Kulturhauptstadt\\_Europas.png](https://de.wikipedia.org/wiki/Kulturhauptstadt_Europas#/media/Datei:Karte_Kulturhauptstadt_Europas.png).
- 94) Daisuke Abe, "Chitose's Tradition and I", Research on ICH's Contribution to SDGs: Educ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Report 2020-2021,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2022. pp.222-243(야마가타시 치토세 초등학교 교사의 발표); 일본 아시아태평양무형유산연구센터장 lwamoto Wataru와 인터뷰(2023. 2. 17.).
- 95) 「생물권보전지역 지속가능발전교육 증진방안」, 『MAB한국위원회 정책브리프』 1호, MAB한국위원회, 2016.
- 96) 이인숙, 앞의 글.
- 97) 이재영, 「기후위기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 조명래 등,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한울 아카데미, 2022, 416-453쪽;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2022 참고.
- 98) 「A Brief presentation of the book: Mayangna knowledge of the co-existence of people and nature: fish and turtles」, 2010,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86692>.
- 99) <https://www.unesco.org/en/links/latin-america-caribbean?hub=408>.
- 100)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개정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2019, 102쪽.
- 101) 쿠미 카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바다윤리: 일본, 호주, 미국의 전통어업 사례를 중심으로」, 『2020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발표자료집』, 2020, 128-146쪽.
- 102) "지구 살리려면 원주민의 지혜 배워라", 『동아시아인스』, 2020. 4. 22.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36212.](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36212))
- 103) 『Research on ICH's Contribution to SDGs: Educ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Report 2020-2021』, 일본 아시아태평양무형유산연구센터, 2022.



## 자문과 도움 주신 분

- 【교육청 및 학교】 **유보람** 전라북도교육청 주무관 (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 사업담당자)  
**강정숙** 복대중학교 교사  
**김다영** 시흥매화고등학교 교사  
**최소망** 옥과고등학교 교사
- 【학계 및 전문가】 **권혜운** 전 서울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  
**양선아** 전북대학교 쌀·삼·문명연구원 전임연구원  
**오은정**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조유진**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프로그램 매니저  
**橋本 好史(Hasimoto Yoshifumi)**, 토바시(鳥羽市) 향토사회 부회장 겸 문화재조사위원장
- 【교육부】 **김기형**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사무관  
**이건희** 교육부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연구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  
**김귀배** 지적연대본부장  
**서현숙** 네트워크사업실장  
**신종범** 네트워크사업실 팀장  
**오혜재** 네트워크사업실 선임전문관
- 【해외 유관기관】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国立民族学博物館,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제소희(諸昭喜)** 조교수  
**飯田 卓(Iida Taku)** 교수
- 국립문화재기구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연구센터(IRCI,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岩本 渉(Iwamoto Wataru)** 前 센터장  
**佐々木 一恵(Sasaki Kazue)** Associate Fellow
- 유네스코·아시아문화센터 문화유산보호협력사무소(Cultural Heritage Protection Cooperation Office,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Meladze Tamar** 국제협력과 과장  
**脇谷 華代子(Wakiya Kayoko)** 연수사업부 차장
- 【사진 제공해 주신 분】 **국사편찬위원회**  
**김수진** 선유고등학교 교사  
**김진근** 람사르고창갯벌센터 갯벌생태안내인  
**김형학** 고창군청 농촌활력과 팀장  
**무진농악단**  
**박재아** 태평양관광기구 한국지사장  
**오은정**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교수  
**윤미혜** 문화플랫폼 소호 대표  
**이성영** 곤지암중학교 교사  
**임경숙**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광주지부 교육국장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최상원** 한겨레신문 기자  
**胡拍 Hu Pai**

## 유네스코 유산, 평화를 품다

발행일	2023년 9월 1일
저자	장정아, 김민성, 김수진, 김원호, 안치영 오성희, 오창현, 이성영, 이현경, 전원희
기획 및 발행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인	한경구
교열	이혜선
디자인	디자인소호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100
전자우편	aspnet@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ISBN 979-11-90615-45-7

이 책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 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기획 또는 발행한 책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유네스코-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

**유네스코회관 건축이야기**  
박경립 한경우 위행복 신미아 이왕기 길지혜 지음  
유네스코-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

**아주 구체적인 위협**  
김추령 김한솔 민정희 윤순진 채수미 최경호 지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획 / 동아시아 발행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김수아 박미선 이해민 한건수 한희정 홍성수 지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컬처룩 발행

유네스코 토크 시리즈

- ① **늘이 뒤집어 보기**
- ② **이주민과 다시 그려보는 '우리'**
- ③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인공지능(AI)은 가능한가**
- ④ **청년, 화려한 이상 혹은 슬픈 자화상**

# HERITAGE

“

우리가 유산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뀐답니다.  
우리는 유산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사람과 세계, 과거와 현재를 대하는 태도도 배우게 됩니다.  
유산교육의 핵심은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의 세계관과 가치를 계속 바꾸어 나가며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



9 791190 615457  
ISBN 979-11-90615-45-7